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77	당포해전의 승리를 기념한 그림 唐浦前洋勝 捷之圖	1604년(선조 37) 6월 4일 경상도 통영의 당포 앞바다를 침범한 일본 무장 상선과의 전투에서 이긴 장면을 그린 것으로, 당시의 승리를 기념하여 공신들에게 보상품으로 하사한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신여량의 유품 중 하나이며 18~19세기경의 모사본입니다. 상단에는 전서체의 제목이 쓰여 있고, 그 아래의 해전도 장면에는 전열을 가다듬은 선단이 줄지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에는 영기를 달았는데 흑색 대선을 향해 돌격하는 조선 수군의 기세당당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판옥선이 그려진 그림 중 연대가 가장 이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단의 가장 오른쪽에는 ‘가의대부겸전라충청경상삼도수군통제사(嘉義大夫兼全羅忠淸慶尙三道水軍統制使)’라고 묵서되어 있고, 왼쪽 상단에는 벼슬 이름이, 그 아래에는 윤홍용, 박웅, 신여량, 김대관, 김일개, 이희춘 등 27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1604년(선조 37) 6월 4일 경상도 통영의 당포 앞바다를 침범한 일본 무장 상선과의 전투에서 이긴 장면을 그린 것으로, 당시의 승리를 기념하여 공신들에게 보상품으로 하사한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신여량의 유품 중 하나이며 18~19세기경의 모사본입니다. 상단에는 전서체의 제목이 쓰여 있고, 그 아래의 해전도 장면에는 전열을 가다듬은 선단이 줄지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에는 영기를 달았는데 흑색 대선을 향해 돌격하는 조선 수군의 기세당당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판옥선이 그려진 그림 중 연대가 가장 이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단의 가장 오른쪽에는 ‘가의대부겸전라충청경상삼도수군통제사(嘉義大夫兼全羅忠淸慶尙三道水軍統制使)’라고 먹물로 쓰여있고, 왼쪽 상단에는 벼슬 이름이, 그 아래에는 윤홍용, 박웅, 신여량, 김대관, 김일개, 이희춘 등 27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신여량의 유품 중 하나로 18~19세기 경의 모사본이다. 1604년 6월 4일 통영의 당포 앞바다를 침입한 일본 무장 상선과의 전투에서 이긴 것을 기념하여 공신들에게 하사한 그림이다. 상단에 전서체로 제목이 쓰여 있고, 아래의 해전도 장면에는 전열을 가다듬은 선단이 줄지어 배치되어 있다. 배에는 영기를 달았는데 흑색 대선을 향해 돌격하는 조선 수군의 기세당당한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판옥선이 그려진 그림 중 연대가 가장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하단의 가장 오른쪽에는 ‘가의대부겸전라충청경상삼도수군통제사’라고 먹물로 쓰여 있고, 왼쪽 상단에는 벼슬 이름이, 그 아래에는 윤홍용, 박웅, 신여량, 김대관, 김일개, 이희춘 등 27명의 이름이 적혀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78	산수무늬 사각연적 靑畵白磁山水 文四角硯滴	<p>연적은 벼루에 먹을 갈 때 쓸 물을 담아 두는 그릇입니다. 보통 두 개의 작은 구멍이 있어 물을 붓고 따르기에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정조대에 해당하는 18세기에 다양한 무늬의 청화백자 연적이 제작된 이래 19세기에는 화려하고 장식적이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연적이 생산되었습니다. 예컨대 원형·또아리형 및 4각·6각·7각·8각 등 다각형 연적과 보주·복숭아·감·부채·집모양·동물 등을 본뜬 상형(象形) 연적뿐만 아니라 투각 기법 등으로 매우 다양한 연적을 만들었습니다.</p> <p>이 산수무늬 사각연적은 광주 분원리 요지에서 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벽이 얇고 청화의 발색이 곱고 푸른 기가 섞인 회백색의 유약을 바른 후 구워냈습니다. 윗면과 옆면에는 산수문을 그려 넣었고, 굽 아래에는 모래받침이 남아 있습니다.</p> <p>조선 시대의 연적은 실용적인 문방용품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완상품으로서 선비들의 문방 취미를 보여주는 예술 작품이기도 합니다.</p>	<p>연적은 벼루에 먹을 갈 때 쓸 물을 담아 두는 그릇입니다. 보통 두 개의 작은 구멍이 있어 물을 붓고 따르기에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정조대에 해당하는 18세기에 다양한 무늬의 청화백자 연적이 제작된 이래 19세기에는 화려하고 장식적이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연적이 생산되었습니다. 예컨대 원형·또아리형 및 4각·6각·7각·8각 등 다각형 연적과 보주·복숭아·감·부채·집모양·동물 등을 본뜬 상형(象形) 연적뿐만 아니라 투각 기법 등으로 매우 다양한 연적을 만들었습니다.</p> <p>이 산수무늬 사각연적은 광주 분원리 요지에서 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께가 얇고 청화의 발색이 곱고 푸른 기가 섞인 회백색의 유약을 바른 후 구워냈습니다. 윗면과 옆면에는 산수문을 그려 넣었고, 굽 아래에는 모래받침이 남아 있습니다.</p> <p>조선 시대의 연적은 실용적인 문방용품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용도로서 선비들의 문방 취미를 보여주는 예술 작품이기도 합니다.</p>	<p>산수무늬 사각연적이다.</p> <p>연적은 벼루에 먹을 갈 때 쓸 물을 담아 두는 그릇이다.</p> <p>보통 두 개의 작은 구멍이 있어 물을 붓고 따르기에 쉽게 만들었다.</p> <p>18세기에 다양한 무늬의 청화백자 연적이 제작된 이래 19세기에는 화려하고 다양한 형태의 연적이 만들어졌다.</p> <p>예를 들어 원형, 또아리형 및 다각형(4각, 6각, 7각, 8각 등) 연적과 보주, 복숭아, 감, 부채, 집, 동물 등을 본뜬 연적뿐 아니라 투각 기법 등으로 매우 다양한 연적을 만들었다.</p> <p>이 산수무늬 사각연적은 광주 분원리 요지에서 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p> <p>두께가 얇고 청화의 발색이 곱고 푸른 기가 섞인 회백색의 유약을 바른 후 구워냈다.</p> <p>윗면과 옆면에는 산수문을 그려 넣었고, 굽 아래에는 모래받침이 남아있다.</p> <p>조선 시대 연적은 실용적인 용품일 뿐 아니라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용도로써 선비들의 취미를 보여주는 예술작품이기도 하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79	서산대사 초상	<p>지눌과 더불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선승인 청허 휴정의 초상화이다.</p> <p>서산 西山이라는 별명을 가진 묘향산에 오랫동안 주석했기 때문에 서산 대사라고도 불린다. 그의 선사상은 저서인 『선가귀감 禪家龜鑑』, 『선교석 禪敎釋』, 『선교결 禪敎訣』, 『심법요초 心法要抄』에 잘 나타나 있는데, 선수행의 방안으로 간화선 看話禪을 내세웠다. 간화선은 특정한 공안에 모든 의식을 집중시켜, 그 한계점에서 마음의 격발 激發, 대파 大破를 통해 극적인 깨달음의 체험을 얻는 것이다. 그는 제자가 천여 명에 이를 정도였으며, 제자 가운데 특히 사명 四溟 유정 惟政, 편양 鞭羊 언기 彦機, 소요 逍遙 태능 太能, 정관 靜觀 일선 一禪은 서산대사의 문하를 이끌며 대표적 4대 문파를 형성 하였다. 이처럼 조선 중기의 불교계에서는 서산대사의 위상이 대단하였으며, 그에 따른 진영제작도 활발히 이루어졌다.</p> <p>화면의 왼쪽에는 ‘청허당휴정대사’라고 하여 초상화의 주인공을 밝히고 있다. 휴정은 의자에 가부좌를 하고 앉은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p> <p>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는 이 그림처럼 가부좌를 하고 앉은 형식과 다리를 내리고 발아래에 답대 踏臺를 밟고 있는 형식으로 나뉜다. 양 손으로 불자를 쥐고 있으며, 발 아래에는 답대가 놓여 있다. 배경은 아무런 문양이나 장치 없이 처리하였으며, 화려하게 표현된 의자와 대조된다. 고요 하게 정면을 응시하는 눈, 굳게 다문 입 등의 용모에서 풍기는 분위기와 참선을 하는 듯한 자세에는 선사로서의 면모가 잘 드러나 있다.</p>	<p>지눌과 함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선승(참선을 통해 불도를 깨달으려는 승려)인 청허 휴정의 초상화입니다.</p> <p>서산(西山)이라는 별명을 가진 묘향산에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서산대사라고도 불립니다. 그의 선사상은 저서인 『선가귀감(禪家龜鑑)』, 『선교석(禪敎釋)』, 『선교결(禪敎訣)』, 『심법요초(心法要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선수행의 방법으로 간화선(看話禪)을 내세웠습니다. 간화선은 특정한 공안에 모든 의식을 집중시켜, 마음의 격발(激發), 대파(大破)를 통해 극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는 제자가 천여 명에 이를 정도였으며, 제자 가운데 특히 사명(四溟), 유정(惟政), 편양언기(鞭羊彦機), 소요태능(逍遙太能), 정관일선(靜觀一禪)은대표적 4대 문파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조선 중기의 불교계에서는 서산대사의 위상이 대단하였습니다.</p> <p>화면의 왼쪽에는 ‘청허당휴정대사’라고 하여 초상화의 주인공을 밝히고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는 이 그림처럼 가부좌를 하고 앉은 형식과 다리를 내리고 발아래에 답대(踏臺)를 밟고 있는 형식으로 나뉩니다. 휴정은 의자에 가부좌를 하고 앉은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양손으로 불자를 쥐고 있으며, 발아래에는 답대가 놓여있습니다. 무늬가 없는 배경은 화려하게 표현된 의자와 대조됩니다. 고요하게 정면을 응시하는 눈, 굳게 다문 입 등의 휴정의 용모에서 풍기는 분위기와 참선을 하는 듯한 자세에는 선사로서의 면모가 잘 드러납니다.</p>	<p>청허 휴정 스님의 초상화이다.</p> <p>휴정 스님은 지눌과 함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선승이다.</p> <p>서산이라 불리는 묘향산에 오래 머물러서 서산대사라고도 불린다.</p> <p>그는 여러 저서를 통해 선사상을 잘 드러냈다. 또한 선수행의 방법으로 모든 의식을 집중시켜 깨달음을 얻는 간화선을 내세웠다.</p> <p>그의 제자가 천여 명에 이를 정도였으며, 제자 중 사명, 유정, 편양언기, 소요태능, 정관일선은 대표적 4대 문파를 형성하였다.</p> <p>이처럼 조선 중기 불교계에서 그의 위상이 대단했다.</p> <p>이 초상화 왼쪽에는 ‘청허당휴정대사’라고 초상화의 주인공을 밝혔다.</p> <p>휴정은 의자에 가부좌를 하고 앉은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p> <p>양손으로 불자를 쥐고 있으며, 발아래에는 답대가 놓여 있다. 무늬가 없는 배경은 화려하게 표현된 의자와 비교된다.</p> <p>차분히 정면을 보는 눈, 굳게 다문 입 등 휴정의 얼굴에서 풍기는 분위기와 참선을 하는듯한 자세는 선사로서의 면모가 잘 드러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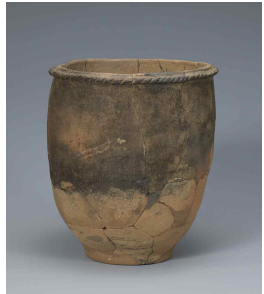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80	보림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1934년보림사남·북삼층석탑에서발견된 사리장엄구로,탑지를비롯하여사리호와함 등이출토되었다.사리호와함은보존상태가 양호한편으로,청동합가운데뚜껑과그릇에 ‘가정14년을미4월일입탑중수기화주의근 嘉靖十四年乙未四月日立塔重修記化主義 根’이라는 명문이 새겨져있다.	1934년 보림사 남·북삼층석탑에서 발 견된 사리장엄구로, 탑지를 비롯하여 사 리호와 합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사리호 와 합은 보존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청 동합 가운데 뚜껑과 그릇에 ‘가정14년을 미4월일입탑중수기화주의근(嘉靖十四年 乙未四月日立塔重修記化主義根)’ 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사리장엄구는 1934년 보림사 남·북 삼층석탑에서 발견됐다. 탑지, 사리호, 합 등이 함께 출토됐다. 사리호와 합은 보존상태가 좋은 편이다. 청동합 가운데 뚜껑과 그릇에 탑을 보수 한 날 등이 새겨져 있다.	



(2) 국립김해박물관(60편)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	굵개	굵개는 가장 흔한 석기 중의 하나로 원석이나 격지 등의 가장자리를 얇게 떼어내는 방법으로 만듭니다. 가장자리 날의 모양은 직선 혹은 볼록하거나 오목하며 가죽을 벗기거나 물고기를 해체할 때 사용합니다. 굵개의 잔손실 상태나 위치, 날 형태에 따라 세분되며, 구석기시대 전 시대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석기인 굵개는 원석 등의 가장자리를 얇게 떼어내는 방법으로 만듭니다. 가장자리 날의 모양은 직선 혹은 볼록하거나 오목하다. 굵개는 가죽을 벗기거나 물고기를 해체할 때 사용한다. 미세한 손실 상태나 위치, 날 형태에 따라 종류가 나뉘며, 구석기시대 전 시대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난다.	원석 등의 가장자리를 얇게 떼어내어 만든 것이다. 가장자리 날의 모양은 직선 혹은 볼록하거나 오목하며 가죽을 벗기거나 물고기를 해체할 때 사용한다. 구석기시대 전 시대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며 가장 흔한 석기이다. 손상의 상태나 위치, 날 형태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	
2	슴베찌르개	작은 화살촉처럼 아래쪽에 작은 스펀지가 달려있습니다. 나무와 같은 도구에 꽂아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칭으로 날을 날카롭게 떼어낸 흔적이 남아있으며, 구석기시대의 중요한 사냥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작은 화살촉처럼 아래쪽에 작은 스펀지가 달려있다. 나무와 같은 도구에 꽂아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칭으로 날을 날카롭게 떼어낸 흔적이 남아있으며, 구석기시대의 중요한 사냥도구로 보고 있다.	아래쪽에 작은 스펀지가 달려있는 화살촉 모양의 이것은 나무와 같은 도구에 꽂아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몸통의 양쪽은 날을 날카롭게 떼어낸 흔적이 있다. 구석기시대의 중요한 사냥도구로 보고 있다.	
3	흑요석촉	흑요석은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긴 용암이 공기 중에서 급속하게 식으면서 생기는 광물로서 유리질 화산암입니다. 신석기시대부터 남해안, 동북한 지역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출토되는 흑요석의 원산지는 백두산과 일본 규슈九州지역의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점에서 흑요석 촉은 당시 물자 교류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입니다.	흑요석은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긴 용암이 공기 중에서 급속하게 식으면서 생기는 광물로서 유리질 화산암이다. 신석기시대부터 남해안, 동북한 지역에서 주로 발견된다. 우리나라에서 출토되는 흑요석의 원산지는 백두산과 일본 규슈九州지역의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흑요석 촉은 당시 물자 교류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이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긴 용암이 급속하게 식으면서 생기는 유리질의 화산암 광물이다. 신석기시대부터 남해안 동북한 지역에서 발견된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은 백두산과 일본 규슈지역의 것이다. 당시 물자 교류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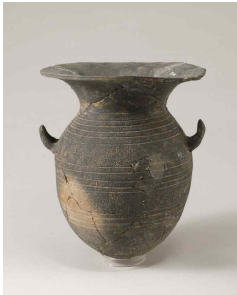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	나무배 (복제품)	창녕 비봉리유적에서 출토된 신석기시대의 통나무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배로서 200살 된 소나무를 U자상으로 파내어 만들었습니다. 방사선탄소연대(C14) 측정 결과 약 8,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이키리키伊木力유적 배보다 약 2,000년 이상 오래된 것입니다.	창녕 비봉리유적에서 출토된 신석기시대의 통나무배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배로서 200살 된 소나무를 U자상으로 파내어 만들었다. 방사선탄소연대(C14) 측정 결과 약 8,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이키리키伊木力유적 배보다 약 2,000년 이상 오래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배이다. 신석기시대의 것으로 창녕 비봉리에서 출토되었다. 200살 된 소나무를 U자 모양으로 파내어 만들었다. 측정 결과 약 8천 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배보다 약 2천년 이상 더 오래된 배이다.	
5	갈돌·갈판	나무열매나 곡물의 껍질을 벗기고 가루로 만드는 데 사용된 원시적 맷돌의 하나입니다. 넓적한 갈판과 몽둥이 모양의 갈돌이 한 쌍을 이룹니다. 신석기시대부터 확인되며, 청동기시대에 농경이 본격화되면서 곡물가공에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절구가 그 기능을 대신합니다.	나무열매나 곡물의 껍질을 벗기고 가루로 만드는 데 사용된 원시적 맷돌이다. 넓적한 갈판과 몽둥이 모양의 갈돌이 한 쌍을 이룬다. 신석기시대부터 확인되며, 청동기시대에 농경이 본격화되면서 곡물가공에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절구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나무열매나 곡물의 껍질을 벗기고 가루로 만드는데 사용했던 것이다. 넓적한 갈판과 몽둥이 모양의 갈돌을 함께 사용한다. 신석기시대부터 확인되며 청동기시대에 농경이 본격화되면서 곡물가공에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6	빚살무늬 토기	신석기시대에 만들기 시작한 토기는 먹을거리를 조리하고 저장하는데 유용합니다. 토기 표면에 가는 도구로 기하학적인 선을 긋거나 찍어서 만든 무늬가 대표적입니다. 무늬의 크기와 위치 등에 따라 시기나 지역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석기시대에 만들기 시작한 토기는 먹을거리를 조리하고 저장하는데 유용한 도구이다. 토기 표면에 가는 도구로 기하학적인 선을 긋거나 찍어서 만든 무늬가 대표적이다. 무늬의 크기와 위치 등에 따라 시기나 지역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먹을거리를 조리하고 저장하는데 사용된 토기이다. 신석기시대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토기 표면에 가는 도구로 다양한 선을 긋거나 찍어서 만든 무늬가 있으며 그 무늬의 크기와 위치를 보고 사용된 시기와 지역을 구분할 수 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7	달모양 도끼 (환상석기)	바퀴나 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바퀴날 도끼 또는 달모양 도끼라고 부르는 청동기 시대의 독특한 돌도끼입니다. 가운데에 자루를 끼우기 위한 구멍이 있고, 일반적인 도끼의 모양과 달라 지도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퀴나 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바퀴날 도끼 또는 달모양 도끼라고 부르는 청동기 시대의 독특한 돌도끼이다. 가운데 자루를 끼우기 위한 구멍이 있다. 일반적인 도끼의 모양과 달라 지도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모양이 바퀴나 달처럼 생긴 돌도끼이다. 가운데에 자루를 끼우는 구멍이 있다. 보통의 다른 도끼와 모양이 달라 이것은 지도자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8	간돌검 (석검)	우리나라에서는 고인돌이나 돌널무덤에서 많이 확인되는 간돌칼은 의례용 도구이자 무기입니다. 검몸劍身과 자루를 함께 제작한 자루식有柄式, 나무로 만든 자루에 끼워 사용하는 습배식有莖式으로 구분됩니다. 날 부분에 이가 빠진 것은 실제 사용되었을 것이며, 자루에 비해 검몸이 작은 경우는 재 가공된 경우입니다. 자루 끝과 칼 코가 옆으로 길게 뻗어 장식성이 강조된 것은 꺾문거리로 제작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인돌이나 돌널무덤에서 많이 확인되는 간돌칼은 의례용 도구이자 무기이다. 검몸劍身과 자루를 함께 제작한 자루식有柄式, 나무로 만든 자루에 끼워 사용하는 습배식有莖式으로 구분된다. 날 부분에 이가 빠진 것은 실제 사용되었을 것이며, 자루에 비해 검몸이 작은 경우는 재가공된 것이다. 자루 끝과 칼 코가 옆으로 길게 뻗어 장식성이 강조된 것은 꺾문거리로 제작된 것이다.	이것은 의례용 도구이자 무기로 주로 고인돌이나 돌널무덤에서 많이 발견된다. 검몸과 자루를 함께 제작하는 방식이 있고, 나무로 만든 자루에 끼워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칼날에 이가 빠진 것은 실제 사용되었을 것이고, 칼자루에 비해 검의 몸이 작은 것은 재가공된 것이다. 칼자루의 끝과 칼 코가 옆으로 길게 뻗은 것은 무덤의 꺾문거리로 제작된 것이다.	
9	붉은간토기 (홍도)	붉은간토기는 그릇 표면에 산화철을 발라 잘 문지른 후에 구웠습니다. 집터에서도 출토되지만 주로 무덤에서 확인되며, 의례 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용은 납작 바닥의 바리 모양, 항아리 모양, 접시 등이며, 무덤의 꺾문거리용은 둥근 바닥 항아리가 대부분입니다.	붉은간토기는 그릇 표면에 산화철을 발라 잘 문지른 후에 구웠다. 집터에서도 출토되지만 주로 무덤에서 확인되며, 의례 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일상용은 납작 바닥의 바리 모양, 항아리 모양, 접시 등이며, 무덤의 꺾문거리용은 둥근 바닥 항아리가 대부분이다.	그릇 표면에 산화철을 발라 잘 문지른 후 구워 붉은색의 광택이 나는 토기이다. 집터에서도 발견되지만 주로 무덤에서 확인되며 의례 등 특별한 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0	가지무늬 토기 (채도)	그릇 어깨에 ‘가지’ 또는 ‘W’ 모양의 검은 무늬가 있는 토기입니다. 무늬는 그릇면에 무엇인가 덧대어 불완전 소성의 방법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원전 6세기~4세기까지 우리나라 남부 지역, 특히 남강 유역에서 집중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릇 어깨에 ‘가지’ 또는 ‘W’ 모양의 검은 무늬가 있는 토기이다. 무늬는 그릇면에 무엇인가 덧대어 불완전 소성의 방법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6세기~4세기까지 우리나라 남부 지역, 특히 남강 유역에서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릇 어깨에 ‘가지’ 또는 ‘W’모양의 검은 무늬가 있는 토기이다. 그릇 면에 무언가를 덧대어서 구워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6세기~4세기까지 우리나라 남부 지역, 특히 남강 유역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다.	
11	새김덧띠 무늬토기 (각목돌대문 토기)	아가리 주위에 점토띠를 덧붙인 후 점토띠 표면에 비스듬히 침선을 새겼습니다. 주로 북한의 압록강이나 청천강유역에서 사용하던 토기가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가리가 도톰한 새김덧띠무늬토기는 농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청동기시대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토기 중 하나입니다.	아가리 주위에 점토띠를 덧붙인 후 점토띠 표면에 비스듬히 침선을 새겼다. 주로 북한의 압록강이나 청천강유역에서 사용하던 토기가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아가리가 도톰한 새김덧띠무늬토기는 농경이 본격화되는 청동기시대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토기이다.	이것은 농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청동기시대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토기이다. 토기의 아가리 주위에 점토띠를 덧붙인 후 띠 표면에 비스듬히 침선(가느다란 도구로 선을 그은 것)을 새겼다. 주로 북한의 압록강이나 청천강유역에서 사용하던 토기가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12	바위그림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신안마을에 있던 고인돌에 새겨진 바위그림입니다. 장방형의 무덤구역을 갖춘 네 기의 고인돌 상석에 여러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현재 전시된 바위그림은 4호 고인돌로 지름 7.0cm 내외의 세 겹 동심원과 아래방향으로 향한 검은 점이 새겨져 있습니다. 검은 길이 11.2cm, 너비 5.7cm로 검은 점과 손잡이가 선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신안마을에 있던 고인돌에 새겨진 바위그림이다. 장방형의 무덤구역을 갖춘 네 기의 고인돌 상석에 여러 무늬가 새겨져 있다. 현재 전시된 바위그림은 4호 고인돌로 지름 7.0cm 내외의 세 겹 동심원과 아래방향으로 향한 검은 점이 새겨져 있다. 검은 길이 11.2cm, 너비 5.7cm로 검은 점과 손잡이가 선으로 나뉘어 있다.	이것은 고인돌에 새겨진 바위그림이다. 경상남도 밀양시 신안마을에서 발견되었다. 장방형의 무덤을 갖춘 4기의 고인돌 상석에 여러 무늬가 새겨져 있다. 그중 이것은 4호 고인돌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란히 점점 크게 그려진 3개의 동그라미와(동심원 : 중심은 같고 지름이 다른 여러 개의 원) 아래방향으로 향한 검은 점이 새겨져 있다. 검은 길이가 11.2cm, 너비가 5.7cm로 검은 점과 손잡이가 선으로 나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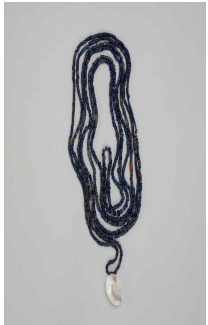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3	가덕도 인골	<p>부산 가덕도유적은 한반도 최대의 신석기시대 공동무덤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48개체의 사람 뼈 중 남자 8개체, 여자 10개체의 성별이 확인되었고 나이는 20대에서 50대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람을 묻을 때에는 바로 눕혀서 묻기, 옆으로 눕혀서 묻기, 팔이나 다리를 구부려서 묻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무덤 안에는 많은 토기와 석기를 함께 넣어주며 뼈로 된 치레걸이와 조가비팔찌로 꾸미기도 했습니다.</p>	<p>부산 가덕도유적은 한반도 최대의 신석기시대 공동무덤이다. 현재 남아있는 48개체의 사람 뼈 중 남자 8개체, 여자 10개체의 성별이 확인되었고 나이는 20대에서 50대로 확인되었다. 사람을 묻을 때에는 바로 눕혀서 묻기, 옆으로 눕혀서 묻기, 팔이나 다리를 구부려서 묻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죽은 사람의 무덤 안에는 많은 토기와 석기를 함께 넣어주며 뼈로 된 치레걸이와 조가비팔찌로 꾸미기도 했다.</p>	<p>부산 가덕도유적은 한반도 최대의 신석기시대 공동무덤이다. 현재 남아있는 48개체의 사람 뼈 중 남자 8개체, 여자 10개체의 성별이 확인되었고 나이는 20대에서 50대로 확인되었다. 사람을 묻는 방법은 바로 눕혀서 묻기, 옆으로 눕혀서 묻기, 팔이나 다리를 구부려서 묻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죽은 사람의 무덤 안에는 많은 토기와 석기를 함께 넣어주며 뼈로 된 장신구와 조가비 팔찌로 꾸미기도 했다.</p>	
14	청동거울 (가상부귀경)	<p>고대 청동 거울은 단순히 얼굴을 비추는 용도가 아닌, 지배자들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위세품이었습니다. 따라서 청동거울은 지배자급 무덤에서 출토하며, 거울 뒷면에 다양한 무늬와 문자로 장식하였습니다. 거울 뒷면의 무늬나 문자는 청동 거울의 연대·교류·사상 등 당시의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거울은 밀양 교동에서 출토된 것으로 중국 한(漢)나라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경(漢鏡)’이라고 합니다.</p>	<p>고대 청동 거울은 단순히 얼굴을 비추는 용도가 아닌, 지배자들이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위세품이었다. 따라서 청동거울은 지배자급 무덤에서 출토되고 거울 뒷면에 다양한 무늬와 문자로 장식되어있다. 거울 뒷면의 무늬나 문자는 청동 거울의 연대·교류·사상 등 당시의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이 거울은 밀양 교동에서 출토된 것으로 중국 한(漢)나라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경(漢鏡)’이라고 한다.</p>	<p>이것은 고대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울이다. 밀양 교동에서 출토된 것으로 중국 한나라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경’이라고 한다. 단순히 얼굴을 비추는 용도가 아닌, 지배자들이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위세품이다. 따라서 청동거울은 지배자급 무덤에서 출토된다. 거울 뒷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무늬와 문자는 거울의 연대·교류·사상 등의 당시 정보를 담고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5	한국식동검	청동검은 요령식 동검과 한국식 동검으로 나뉩니다. 요령식 동검은 비파모양으로 생겨 예전에는 비파형동검으로도 불렸습니다. 주로 중국 요령지역에서 많이 나와 요령식 동검으로 부릅니다. 한국식 동검은 전체 모양이 가늘어 세형동검으로도 불렸습니다. 주로 한반도에서 많이 나와 한국식동검으로 부릅니다. 청동 검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이나 북방지역 동검과 달리 검 몸과 자루 손잡이를 따로 만들어 조립한다는 점입니다. 김해 내동과 합천 영창리 유적 출토품입니다.	청동 검은 요령식 동검과 한국식 동검으로 나뉩니다. 요령식 동검은 비파모양으로 생겨 예전에는 비파형동검으로도 불렀다. 주로 중국 요령지역에서 많이 나와 요령식 동검으로 부른다. 한국식동검은 전체 모양이 가늘어 세형동검으로도 불렀다. 주로 한반도에서 많이 나와 한국식동검으로 부른다. 청동 검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이나 북방지역 동검과 달리 검 몸과 자루 손잡이를 따로 만들어 조립한다는 점이다. 김해 내동과 합천 영창리 유적 출토품이다.	이것은 한국식 동검이다. 주로 한반도에서 많이 나와 붙여진 이름이다. 전체 모양이 가늘어 세형동검으로도 불렀다. 출토된 곳은 김해 내동과 합천 영창리 유적이다. 청동검의 가장 큰 특징은 검 몸과 자루 손잡이를 따로 만들어 조립한다는 점이다.	
16	수정 목걸이	구슬류를 귀하게 여겼던 삼한과 가야 유적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유리 와 수정 목걸이가 확인됩니다. 수정은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원석 자체를 갈아서 둥근 모양이나 여러 면을 가진 형태로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김해 양동리 무덤에서 확인된 이 수정목걸이는 현재 확인된 수정 중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운데 곱은 옥의 길이는 3.0cm입니다.	구슬류를 귀하게 여겼던 삼한과 가야 유적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유리 와 수정 목걸이가 확인된다. 수정은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원석 자체를 갈아서 둥근 모양이나 여러 면을 가진 형태로 만들기 어려웠다. 김해 양동리 무덤에서 확인된 이 수정목걸이는 현재 확인된 수정 중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것이다. 가운데 곱은 옥의 길이가 3.0cm이다.	구슬을 곱아 만든 목걸이이다. 김해 양동리무덤에서 발견되었으며 현재 확인된 수정 중 가장 크고 아름다운 것이다. 가운데 곱은 옥의 길이가 3.0cm이다 구슬류를 귀하게 여겼던 삼한과 가야 유적지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유리 와 수정 목걸이가 확인된다.	
17	덧띠 토기 (원형점토대 토기)	덧띠토기는 민무늬토기 아가리에 한 줄의 점토 띠를 덧붙인 토기를 말합니다. 이 점토 띠는 단면 형태가 원형에서 삼각형으로 점차 바뀝니다. 덧띠토기를 사용하였던 시기는 민무늬토기에서 와질토기로 변하는 과도기적인 단계이며, 새로운 철기문화의 유입 등 정치·사회적 변동이 함께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이 토기는 김해 대청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덧띠토기는 민무늬토기 아가리에 한 줄의 점토 띠를 덧붙인 토기이다. 이 점토 띠는 단면 형태가 원형에서 삼각형으로 점차 바뀐다. 덧띠토기를 사용하던 시기는 민무늬토기에서 와질토기로 변하는 과도기적인 단계이며, 새로운 철기문화의 유입 등 정치·사회적 변동이 함께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 토기는 김해 대청에서 출토된 것이다.	민무늬토기 아가리에 한 줄의 점토 띠를 덧붙인 토기이다. 아가리에 붙인 점토 띠는 그 모양이 원형에서 삼각형으로 점차 바뀐다. 이것은 김해 대청에서 출토된 것으로 민무늬토기에서 와질토기로 변하는 단계의 토기이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8	쇠뿔모양 손잡이 달린 항아리	쇠뿔모양의 손잡이가 붙은 항아리는 청동기시대에 유행하였던 민무늬토기에서 발전하였습니다. 쇠뿔모양이 한 개, 또는 두 개를 엮어서 만들기도 하고 항아리의 표면에 옷칠을 한 예도 있습니다.	쇠뿔모양의 손잡이가 붙은 항아리는 청동기시대에 유행하였던 민무늬토기에서 발전하였다. 쇠뿔모양이 한 개, 또는 두 개를 엮어서 만들기도 하고 항아리의 표면에 옷칠을 한 예도 있다.	쇠뿔모양의 손잡이가 붙은 항아리이다. 쇠뿔모양이 한 개, 또는 두 개를 엮어서 만들기도 하고 항아리 표면에 옷칠을 한 예도 있다 청동기시대에 유행했던 민무늬토기에서 발전된 것이다.	
19	주머니 항아리	주머니단지는 마치 옷에 달린 주머니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몸통의 가장 배부른 곳이 각이 진 듯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단지는 영남 지방 널무덤[木棺墓]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토기이지만 유럽 각지에서도 똑같이 생긴 주머니단지가 확인되기도 합니다.	주머니단지는 마치 옷에 달린 주머니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몸통의 가장 배부른 곳이 각이 진 듯한 모습이다. 이러한 단지는 영남 지방 널무덤[木棺墓]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토기이지만 유럽 각지에서도 똑같이 생긴 주머니단지가 확인되기도 한다.	옷에 달린 주머니모양으로 생긴 단지이다. 영남 널무덤(시신 안치하는 관이 나무로 만들어진 무덤)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토기이지만 유럽 각지에서 똑같이 생긴 것이 확인되기도 한다.	
20	붓과 손칼 (복제품)	다호리 1호 통나무관 아래의 구덩이 속 바구니에서 확인된 붓은 당시 변한시기 창원 사람들이 문자를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붓 자루 표면에는 옷칠이 되어 있고 양쪽으로 붓털 일부가 남아있었습니다. 붓과 함께 손칼은 나무에 쓴 글씨를 깎아 내거나 지우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요즘의 지우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호리 1호 통나무관 아래의 구덩이 속 바구니에서 확인된 붓은 당시 변한시기 창원 사람들이 문자를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붓 자루 표면에는 옷칠이 되어 있고 양쪽으로 붓털 일부가 남아있다. 붓과 함께 손칼은 나무에 쓴 글씨를 깎아 내거나 지우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요즘의 지우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변한시기 창원 사람들이 사용했던 붓과 손칼이다. 다호리 1호 통나무관 아래의 구덩이 속 바구니에서 발견되었다. 손칼은 나무에 쓴 글씨를 깎아 내거나 지우는 용도로 사용되어 지금의 지우개라 할 수 있다. 변한시기에 창원 사람들이 문자를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1	뚜껑 있는 굽다리 항아리 (유개대부직 구호)	굽다리접시 형태와 비슷하지만 몸통 깊이가 깊기 때문에 굽다리항아리로 분류합니다. 밀양 전사포리유적, 제대리유적, 경주 황성동 575번지유적, 경산 임당유적 및 중부지방 아산 용두리, 평택 마두리, 오산 궐동유적, 청주 봉명동유적 등 일부 지역에서만 확인되는 특이한 형태의 토기입니다.	굽다리접시 형태와 비슷하지만 몸통 깊이가 깊기 때문에 굽다리항아리로 분류한다. 밀양 전사포리유적, 제대리유적, 경주 황성동 575번지유적, 경산 임당유적 및 중부지방 아산 용두리, 평택 마두리, 오산 궐동유적, 청주 봉명동유적 등 일부 지역에서만 확인되는 특이한 형태의 토기이다.	굽다리접시와 비슷하지만 몸통 깊이가 깊어 항아리로 분류한다. 밀양 전사포리유적 외에 제대리유적, 경주 황성동 575번지유적, 경산 임당유적 및 중부지방 아산 용두리, 평택 마두리, 오산 궐동유적, 청주 봉명동유적 등 일부 지역에서만 확인되는 특이한 형태의 토기이다.	
22	쇠검과 청동손잡이 (청동파부철 검)	김해 양동리 55호 무덤에서 출토된 쇠로 만든 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검의 손잡이는 기존의 청동으로 만든 것으로 보아 과도기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55호 무덤에서는 청동거울과 청동고리, 목걸이 등이 함께 출토되었습니다.	김해 양동리 55호 무덤에서 출토된 쇠로 만든 검이다. 하지만 아직도 검의 손잡이는 기존의 청동으로 만든 것으로 보아 과도기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55호 무덤에서는 청동거울과 청동고리, 목걸이 등이 함께 출토되었다.	쇠로 만든 검이다. 김해 양동리 55호 무덤에서 청동거울과 청동고리, 목걸이 등과 함께 발견하였다. 검은 쇠인데 반해 검의 손잡이는 청동으로 만든 것으로 보아 변화하는 과정중의 것으로 보인다.	
23	미늘쇠 (유자이기)	미늘쇠는 얇은 철판 가장자리에 여러 개의 고사리모양[미늘]이 달려있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래쪽에 나무자루를 꽂는 구멍이 있어 말을 탄 적군을 걸어 떨어뜨리는 전쟁용 무기로 보기도 합니다. 고사리모양 대신 새 모양이 장식된 미늘쇠는 장식성이 강조되어 특정한 지배층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함안과 함천지역에서만 출토되는 특징적인 유물입니다.	얇은 철판 가장자리에 여러 개의 고사리모양[미늘]이 달려있어서 미늘쇠라고 한다. 아래쪽에 나무자루를 꽂는 구멍이 있어 말을 탄 적군을 떨어뜨리는 전쟁용 무기로 보기도 한다. 고사리모양 대신 새 모양이 장식된 미늘쇠는 장식성이 강조되어 특정한 지배층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함안과 함천지역에서만 출토되는 특징적인 유물이다.	얇은 철판 가장자리에 여러 개의 고사리모양이 달려있어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함안과 함천지역에서만 출토되는 특징이 있다. 이것의 아래쪽에 나무자루를 꽂는 구멍이 있어 말을 탄 적군을 떨어뜨리는 전쟁용 무기로 보기도 한다. 고사리 모양 대신 새 모양이 있는 것은 지배층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4	용·봉황무늬 고리자루 큰칼 (용봉문 환두대도)	칼의 쓰임새 중 으뜸은 잘 벨 수 있는 날카로움과 단단함입니다. 때로는 칼의 손잡이나 칼집을 장식해서 소유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도구로 삼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근 고리만 있는 다른 칼과는 달리, 이 칼은 등근 고리 안에 용과 봉황을 함께 장식하고 금을 입혀 소유자의 위세를 보여줍니다. 합천 옥전 무덤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칼의 쓰임새 중 으뜸은 잘 벨 수 있는 날카로움과 단단함이다. 때로는 칼의 손잡이나 칼집을 장식해서 소유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도구로 삼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등근 고리만 있는 다른 칼과는 달리, 이 칼은 등근 고리 안에 용과 봉황을 함께 장식하고 금을 입혀 소유자의 위세를 보여준다. 합천 옥전 무덤에서 출토되었다.	칼은 날카롭고 단단해서 잘 벨 수 있는 사용 목적이 있고, 손잡이나 칼집에 장식을 해서 신분을 나타내는 목적이 있다. 이것은 등근 고리 안에 용과 봉황을 함께 장식하고 금을 입혀 소유자의 위세를 보여주는 칼이다. 합천 옥전 무덤에서 출토되었다.	
25	목걸이	합천 옥전 2호분에서는 구슬류가 2천여 점 발견되었습니다. 무덤 속에서 목걸이가 확인되는 곳으로 문헌 사람의 머리 쪽을 알려줍니다. 목걸이의 다양한 재질에 따라 소유자의 신분을 가늠하기도 합니다. 이 목걸이는 비취로 만든 곱은 옥과 호박·마노로 만든 대롱옥, 유리로 만든 등근 구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합천 옥전 2호분에서는 구슬류가 2천여 점 발견되었다. 무덤 속에서 목걸이가 확인되는 곳으로 문헌 사람의 머리 쪽을 알려준다. 목걸이의 다양한 재질에 따라 소유자의 신분을 가늠하기도 한다. 이 목걸이는 비취로 만든 곱은 옥, 호박·마노로 만든 대롱옥, 유리로 만든 등근 구슬로 이루어져 있다.	비취로 만든 옥과 호박, 마노로 만든 대롱옥, 유리로 만든 등근 구슬로 만들어진 목걸이이다. 합천 옥전 2호분에서 발견한 것으로 이것과 함께 구슬류가 2천여 점이 발견되었다. 목걸이가 확인된 곳은 문헌 사람의 머리의 위치를 알려준다.	
26	귀걸이 (금제이식)	창녕은 신라와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가야보다 일찍 신라의 영향력이 미쳤습니다. 창녕 교동이나 계성 무덤에서는 신라에서 출토되는 다양한 장신구류와 토기, 금속제품이 확인됩니다. 창녕 계성에서 출토된 이 곱은 고리 금귀걸이는 신라 지배층 무덤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장신구로 곱은 고리는 얇은 금판을 둥글게 말아서 붙인 것이기 때문에 속은 비어있습니다.	창녕은 신라와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가야보다 일찍 신라의 영향을 받았다. 창녕 교동이나 계성 무덤에서는 신라에서 출토되는 다양한 장신구류와 토기, 금속제품이 확인된다. 창녕 계성에서 출토된 이 곱은 고리 금귀걸이는 신라 지배층 무덤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장신구이다. 곱은 고리는 얇은 금판을 둥글게 말아서 붙인 것이기 때문에 속은 비어있다.	얇은 금판을 둥글게 말아 붙여 속이 비어있는 곱은 고리의 금귀걸이이다. 창녕 계성에서 발견되었으며 지배층 무덤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장신구이다. 창녕은 신라와 가까워 일찍 신라의 영향을 받았다. 창녕 교동이나 계성 무덤에서는 신라에서 출토되는 다양한 장신구류와 토기, 금속제품이 확인된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7	목걸이	가야 사람들은 금과 은보다는 구슬류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무덤을 조사할 때 구슬이 발견되면 그 무덤 속의 흙을 채로 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구슬을 자세히 관찰하면 틀에 부어서 만들었는지, 가는 대롱옥을 잘라내고 갈아서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김해 대성동 무덤에서 출토되었습니다.	가야 사람들은 금과 은보다는 구슬류를 소중하게 여겼다. 무덤을 조사할 때 구슬이 발견되면 그 무덤 속의 흙을 채치는 작업을 한다. 구슬을 자세히 관찰하면 틀에 부어서 만들었는지, 가는 대롱옥을 잘라내고 갈아서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다. 김해 대성동 무덤에서 출토되었다.	김해 대성동 무덤에서 발견된 구슬 목걸이이다. 가야 사람들은 금과 은보다 구슬류를 소중하게 여겼다. 무덤을 조사할 때 구슬이 발견되면 그 무덤 속의 흙을 채로 치는 일을 한다. 구슬을 자세히 관찰하면 틀에 부어서 만들었는지, 가는 대롱옥을 잘라내고 갈아서 만들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28	금동관	가야의 금동관은 화려한 신라 금관과는 달리 단순한 나뭇가지 모양입니다. 동래 복천동 11호 무덤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얇은 관테의 가장자리에 물결무늬와 점무늬를 결합시켜 장식하고 있고 가지 장식에는 세 줄의 곁가지가 뻗어 있으며, 달개를 달아 장식성을 더하였습니다. 보물 제 192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야의 금동관은 화려한 신라 금관과는 달리 단순한 나뭇가지 모양이다. 동래 복천동 11호 무덤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얇은 관테의 가장자리에 물결무늬와 점무늬를 결합시켜 장식하고 있고, 가지 장식에는 세 줄의 곁가지가 뻗어 있으며, 달개를 달아 장식성을 더하였다. 보물 제 1922호로 지정되어 있다.	보물 제1922호로 지정된 금동관이다. 동래 복천동 11호 무덤에서 발견하였다. 얇은 관테(관의 둥근 밑동 부분)의 가장자리에 물결무늬와 점무늬로 장식하였다. 관테 위에 세 줄의 장식에는 달개를 달아 장식을 더했다.	
29	덩이쇠 (철정)	씻덩이를 얇게 두드려서 만든 철판으로, 도끼나 창과 같은 철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입니다. 긴 사각형 모양으로, 가운데 부분을 잘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덩이쇠는 크기·모양·무게가 다양하여 화폐나 금괴처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야 지배자급 무덤에서는 많은 덩이쇠를 10매 단위로 묻은 것이 확인되어 가야 사람들이 10진법을 알았음을 보여줍니다.	씻덩이를 얇게 두드려서 만든 철판으로, 도끼나 창과 같은 철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이다. 긴 사각형 모양으로, 가운데 부분을 잘록하게 만들기도 한다. 덩이쇠는 크기·모양·무게가 다양하여 화폐나 금괴처럼 사용하기도 하였다. 가야 지배자급 무덤에서는 많은 덩이쇠를 10매 단위로 묻은 것이 확인되어 가야 사람들이 10진법을 알았음을 보여준다.	씻덩이를 얇게 두드려서 만든 철판이다. 이것으로 도끼나 창 등 철제품을 만들었다. 가야 지배자의 무덤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긴 사각형 모양으로 가운데 부분을 오목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크기·모양·무게가 다양하여 화폐나 금괴처럼 사용하였다. 10매씩 확인되는 것을 보아 가야 사람들이 10진법을 알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0	집모양토기	경남 창원 석동유적에서 출토된 집모양 토기입니다. 맞배지붕에 정면 두 칸, 측면 두 칸의 아홉 개 기둥을 갖춘 이중 다락집 형태로 4세기 중반 가야의 다락집 구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지붕 가운데에 액체를 넣는 주입구, 문이 있는 앞쪽에는 주출구가 있어 액체를 담거나 따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내부 용량은 350ml 가량입니다.	경남 창원 석동유적에서 출토된 집모양 토기이다. 맞배지붕에 정면 두 칸, 측면 두 칸의 아홉 개 기둥을 갖춘 이중 다락집 형태이다. 4세기 중반 가야의 다락집 구조를 엿볼 수 있다. 지붕 가운데에 액체를 넣는 주입구, 문이 있는 앞쪽에는 주출구가 있다. 액체를 담거나 따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내부 용량은 350ml 가량이다.	집모양 토기로 지붕 가운데에 액체를 넣는 주입구, 문이 있는 앞쪽에 주출구가 있다. 내부 용량은 350ml 가량이다. 경남 창원 석동유적에서 발견되었다. 맞배지붕(지붕면이 양면으로 경사를 짓는 지붕)에 정면 두 칸, 측면 두 칸의 아홉 개 기둥이 있는 이중 다락집 모양이다. 4세기 중반 가야의 다락집 구조이다.	
31	살포	논에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작은 도랑을 트거나 김을 땔 때 사용하던 농기구입니다. 나무 자루를 꽂아 사용하기 위하여 투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한국 특유의 농기구이며, 수장층 무덤에 부장되어 당시 논농사를 장악하고 통치했던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농기구임을 보여줍니다. 삼국시대 허리띠 장식에도 보이고 조선 시대의 높은 벼슬을 한 분들에게도 임금이 직접 하사하기도 합니다.	논에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작은 도랑을 트거나 김을 땔 때 사용하던 농기구이다. 나무 자루를 꽂아 사용하기 위하여 투겁이 만들어져 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한국 특유의 농기구이다. 수장층 무덤에 부장되어 당시 수장층이 논농사를 장악하고 통치했던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농기구임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 허리띠 장식에도 보이고 조선 시대의 높은 벼슬을 한 분들에게도 임금이 직접 하사하기도 하였다.	논에 물이 잘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작은 도랑을 트거나 김을 땔 때 사용하는 농기구이다. 나무자루를 꽂아 사용하기 위해 투겁이 만들어져 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한국 특유의 농기구이다. 수장층 무덤에 부장되어 수장층이 논농사를 장악하고 통치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 허리띠 장식에도 보이고 조선 시대 높은 벼슬을 한 사람에게 임금이 직접 하사하기도 했다.	
32	새모양토기	『삼국지三國志』 위서 동이전 변진조 기록으로 보아 당시 사람들은 새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신성한 동물로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덤 속에 새를 본떠 만든 토기를 죽은 이와 함께 묻었습니다. 또 목을 자른 새모양 토기나 머리만 넣는 경우도 있어 새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의례儀禮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해 망덕리 무덤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삼국지三國志』 위서 동이전 변진조 기록으로 보아 당시 사람들은 새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안내하는 신성한 동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덤 속에 새를 본떠 만든 토기를 죽은 이와 함께 묻었다. 또 목을 자른 새모양 토기나 새의 머리만 넣는 토기를 넣는 경우도 있어 새와 관련된 다양한 의례儀禮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해 망덕리 무덤에서 출토된 것이다.	새모양의 토기로 김해 망덕리 무덤에서 출토되었다. 『삼국지三國志』 위서 동이전 변진조 기록을 보면 당시 사람들은 새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안내한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새 모양의 토기를 함께 묻었다. 또 목을 자른 새모양 토기나 새 머리만 있는 토기를 넣는 경우도 있어 새와 관련된 다양한 의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3	큰 항아리 (대호)	다양한 유적에서 확인된 큰 항아리들을 모아놓았습니다. 어른 2~3명이 들어 올려야 할 만큼의 큰 항아리들은 곡식 등을 저장해두는 곳간 역할을 한 그릇입니다. 큰 항아리는 무덤 속에서도 나오고 주거지나 창고와 같은 생활유적에서도 확인됩니다. 고상가옥처럼 생긴 집[창고]에 보관해 두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외에도 제사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양한 유적에서 확인된 큰 항아리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어른 2~3명이 들어 올려야 할 만큼의 큰 항아리들은 곡식 등을 저장해두는 곳간 역할을 하였다. 큰 항아리는 무덤 속에서도 나오고 주거지나 창고와 같은 생활유적에서도 확인된다. 고상가옥처럼 생긴 집[창고]에 보관해 두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외에도 제사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다양한 유적에서 발견한 큰 항아리를 모아놓았다. 어른 2~3명이 들어 올려야 할 정도의 큰 항아리들은 곡식 등을 저장해두는 곳간 역할을 한다. 큰 항아리는 무덤 속이나 주거지, 창고 같은 생활유적지에서도 확인된다. 고상가옥처럼 생긴 집(창고)에 보관해 두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외에도 제사용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34	점치는 뼈 (복골)	고대사회에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점을 치는 행위에 사용되는 뼈입니다. 주로 사슴이나 멧돼지의 어깨뼈를 이용합니다. 김해 회현리 조개더미에서 발견된 점치는 뼈는 100점이 넘으며, 사슴 어깨뼈가 70%를 차지합니다. 뼈를 불로 지져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길흉을 점치는 것입니다. 김해 회현리 조개더미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고대사회에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점을 치는 행위에 사용되는 뼈이다. 주로 사슴이나 멧돼지의 어깨뼈를 이용한다. 김해 회현리 조개더미에서 발견된 점치는 뼈는 100점이 넘으며, 사슴 어깨뼈가 70%를 차지한다. 뼈를 불로 지져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길흉을 점치는 것이다. 김해 회현리 조개더미에서 출토되었다.	이 뼈는 고대사회에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점을 칠 때 사용된 것이다. 김해 회현리 조개더미에서 출토되었다. 점을 치는 뼈는 주로 사슴이나 멧돼지의 어깨뼈를 이용한다. 김해 회현리 조개더미에서 발견된 점치는 뼈는 100점이 넘으며, 사슴 어깨뼈가 70%를 차지한다. 뼈를 불로 지져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길흉을 점치는 것이다.	
35	인물형토우, 소형토기	김해 봉황동유적의 저습지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사람과 말 형상을 본떠 만든 작은 토우와 잔과 잔 받침 20여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사람의 얼굴, 허리띠를 맨 여성을 표현하기도 하였고, 말의 성기는 지나치게 크게 나타내었습니다. 주로 실제 유물의 크기보다 작게 본떠 만든 것으로 물가 제사나 의례와 관련된 유적에서 출토됩니다.	김해 봉황동유적의 저습지에서 출토되었다. 사람과 말 형상을 본떠 만든 작은 토우와 잔과 잔 받침 20여 점이 발견되었다. 간략하게 사람의 얼굴, 허리띠를 맨 여성을 표현하기도 하였고, 말의 성기는 지나치게 크게 나타내었다. 주로 실제 유물의 크기보다 작게 본떠 만든 것으로 물가 제사나 의례와 관련된 유적에서 출토된다.	사람 말 형상을 본떠 만든 작은 토우와 잔, 잔 받침 20여 점이다. 김해 봉황동유적의 저습지에서 출토되었다. 간략하게 사람의 얼굴, 허리띠를 맨 여성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말을 성기는 지나치게 크게 나타냈다. 주로 실제 유물보다 작게 본떠 만든 것으로, 물가 제사나 의례와 관련된 유적에서 출토된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6	항아리	함안 말이산 34호 돌덧널무덤에서 출토된 것으로, 마치 백자 달항아리를 보는 듯합니다. 항아리 전체 표면에는 도구를 통해 두드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의 가야토기보다 크고 두꺼워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34호 무덤은 5세기 후반에 해당하며, 다섯 개의 감실이 달려있는 특이한 구조의 무덤으로 5~6명의 순장이 이루어졌습니다.	함안 말이산 34호 돌덧널무덤에서 출토된 것으로, 마치 백자 달항아리를 보는 듯하다. 항아리 전체 표면에는 도구를 이용해 두드린 흔적이 남아 있다. 보통의 가야토기보다 크고 두꺼워 상당히 무거운 편이다. 34호 무덤은 5세기 후반에 해당하며, 다섯 개의 감실이 달려있는 특이한 구조의 무덤으로 5~6명의 순장이 이루어졌다.	이 항아리는 함안 말이산 34호 돌덧널무덤에서 출토되었다. 백자 달항아리를 보는 듯하다. 항아리 전체 표면에는 도구를 이용해 두드린 흔적이 있다. 보통의 가야토기보다 크고 두꺼워 상당히 무겁다. 34호 무덤은 5세기 후반에 해당하며, 다섯 개의 감실이 있는 특이한 구조의 무덤으로 5~6명의 순장이 이루어졌다.	
37	바리모양 그릇받침 (발형기대)	둥근 항아리를 받쳐두기 위해 만든 그릇받침으로 가야뿐만 아니라 신라와 백제에서도 확인됩니다. 특히 신라에서는 그릇받침의 굽다리를 떼어내고 윗부분을 쇠술의 뚜껑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릇받침은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무덤에서 그릇받침 위에 항아리가 놓인 채로 출토되기도 합니다. 함안 오곡리 무덤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둥근 항아리를 받쳐두기 위해 만든 그릇받침으로 가야뿐만 아니라 신라와 백제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신라에서는 그릇받침의 굽다리를 떼어내고 윗부분을 쇠술의 뚜껑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릇받침은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무덤에서 그릇받침 위에 항아리가 놓인 채로 출토되기도 한다. 함안 오곡리 무덤에서 출토된 것이다.	둥근 항아리를 받쳐두기 위한 그릇받침이다. 함안 오곡리 무덤에서 출토되었다. 그릇받침은 가야뿐 아니라 신라와 백제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신라에서는 그릇받침의 굽다리를 떼어내고 윗부분을 쇠술의 뚜껑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릇받침은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태를 갖고 있다. 무덤에서 그릇받침 위에 항아리가 놓인 채로 출토되기도 한다.	
38	굽다리접시	굽다리접시는 지역적으로 굽다리에 무늬나 다양한 형태의 구멍을 뚫는 특징들을 보입니다. 이 토기는 함안지역 아라가야에서 유행한 불꽃무늬가 뚫린 형태입니다. 함안 지역은 4세기 대에는 원통모양 굽다리접시가 5세기 대에는 불꽃무늬 굽다리접시가 유행합니다.	굽다리접시는 지역적으로 굽다리에 무늬나 다양한 형태의 구멍을 뚫는 특징들을 보인다. 이 토기는 함안지역 아라가야에서 유행한 불꽃무늬가 뚫린 형태이다. 함안 지역은 4세기 대에는 원통모양 굽다리접시가 5세기 대에는 불꽃무늬 굽다리접시가 유행했다.	이 굽다리접시는 함안 아라가야에서 유행한 불꽃무늬가 뚫린 형태이다. 굽다리접시는 지역적으로 굽다리에 무늬나 다양한 형태의 구멍을 뚫는 특징이 있다. 함안 지역은 4세기 대에는 원통모양 굽다리 접시가, 5세기 대에는 불꽃무늬 굽다리접시가 유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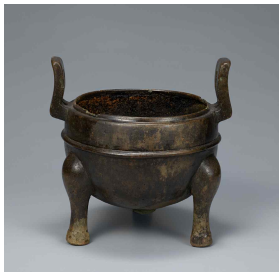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9	무늬가 새겨진 뚜껑	가야토기에는 ‘一’·‘井’·‘十’·‘八’·‘川’·‘二’ 등과 의미를 알 수 없는 여러 기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기호는 당시 토기를 만든 사람이나 집단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야 유적에서 나오지만, 이 토기 조각들은 함안 우거리의 가야토기 가마터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가야토기에는 ‘一’·‘井’·‘十’·‘八’·‘川’·‘二’ 등과 의미를 알 수 없는 여러 기호가 새겨져 있다. 이런 기호는 당시 토기를 만든 사람이나 집단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야 유적에서 나오지만, 이 토기 조각들은 함안 우거리의 가야토기 가마터에서 출토된 것이다.	함안 우거리의 가야토기 가마터에서 출토된 토기조각들이다. 가야토기에는 ‘一’·‘井’·‘十’·‘八’·‘川’·‘二’ 등과 의미를 알 수 없는 여러 기호가 새겨져 있다. 이런 기호는 토기를 만든 사람이나 집단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0	‘이득지’가 새겨진 토기 (파수부완)	산청 하촌리유적의 주거지에 발견된 전형적인 대가야 토기입니다. 토기 안쪽 바닥에 ‘二得知(이득지)’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고대 문자 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得(득)’과 ‘知(지)’는 주로 사람 이름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二得知’는 사람이름으로 추정됩니다.	산청 하촌리유적의 주거지에 발견된 전형적인 대가야 토기이다. 토기 안쪽 바닥에 ‘二得知(이득지)’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고대 문자 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得(득)’과 ‘知(지)’는 주로 사람 이름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二得知’는 사람이름으로 추정된다.	전형적인 대가야 토기로 산청 하촌리 유적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었다. 토기 안쪽 바닥에 ‘이득지’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고대 문자기록에서 ‘득’과 ‘지’가 주로 사람 이름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이득지’는 사람 이름으로 추정된다.	
41	등잔모양 토기	굽다리가 달린 작은 항아리 위에 여러 개의 작은 잔이 붙은 모습입니다. 항아리와 잔은 구멍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불을 밝히는 심지를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토기를 보통 등잔 토기라고 하며, 장송의례 때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굽다리가 달린 작은 항아리 위에 여러 개의 작은 잔이 붙은 모습이다. 항아리와 잔은 구멍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불을 밝히는 심지를 둘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토기를 보통 등잔 토기라고 하며, 장송의례 때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토기는 굽다리가 달린 작은 항아리 위에 여러 개의 작은 잔인 붙은 모양이다. 항아리와 잔은 구멍으로 연결되어 있어 불을 밝히는 심지를 둘 수 없지만 이런 토기를 보통 등잔토기라고 한다. 장송의례 때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2	수레바퀴 모양 토기	함안 말이산 34호분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위에 뿔잔을 얹고, 양쪽에 수레바퀴를 붙인 토기는 지금의 함안인 아라가야 지역에서 많이 만들던 것입니다. 제사와 같은 특별한 행사에 사용한 그릇으로 배모양 토기와 함께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 세상으로 운반할 때 사용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함안 말이산 34호분에서 출토된 것이다. 위에 뿔잔을 얹고, 양쪽에 수레바퀴를 붙인 토기는 지금의 함안인 아라가야 지역에서 많이 만들던 것이다. 제사와 같은 특별한 행사에 사용한 그릇으로 배모양 토기와 함께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 세상으로 운반할 때 사용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 토기는 함안 말이산 34호분에서 출토되었다. 위에 뿔잔을 얹고 양쪽에 수레바퀴를 붙인 토기는 지금의 함안인 아라가야에서 많이 만들었다. 제사 같은 특별한 행사에 사용한 그릇으로 배모양 토기와 함께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 세상으로 운반할 때 사용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3	뿔모양토기 및 받침	<p>짐승의 뿔 모양과 흡사하게 만든 잔으로, 그리스·로마의 각 유적과 건물에도 장식되어 있습니다. 실제 뿔을 잘라 음료를 마시는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삼국시대의 뿔모양 잔은 낙동강유역에서 많이 출토되는데, 세련된 곡선의 조형미를 뽐내고 있습니다.</p>	<p>짐승의 뿔 모양과 흡사하게 만든 잔으로, 그리스·로마의 각 유적과 건물에도 장식되어 있다. 실제 뿔을 잘라 음료를 마시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삼국시대의 뿔모양 잔은 낙동강유역에서 많이 출토되는데, 세련된 곡선의 조형미를 뽐낸다.</p>	<p>이 잔은 짐승의 뿔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었다. 그리스로마의 각 유적과 건물에도 장식되어 있다. 실제 뿔을 잘라 음료를 마시는 데서 시작되었다. 삼국시대의 뿔모양 잔은 낙동강유역에서 많이 출토되는데, 세련된 곡선의 조형미를 뽐낸다.</p>	
44	토우 달린 원통모양 그릇받침	<p>북천동 돌덧널무덤에서 출토된 그릇받침과 향아리입니다. 그릇받침에는 위로 올라가고 있는 듯한 거북 한 마리가 붙어 있습니다. 거북 등에는 일반적인 육각형 무늬 대신 가는 선으로 세밀하게 새겨 넣은 무늬가 있습니다. 이런 원통모양의 그릇받침은 무덤 내부뿐만 아니라 봉토나 주구[周溝; 무덤 둘레돌의 배수구 역할을 하는 도랑]에서도 확인되기 때문에 제사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아리는 목이 긴 것으로 밀이 둥근 형태입니다.</p>	<p>북천동 돌덧널무덤에서 출토된 그릇받침과 향아리이다. 그릇받침에는 위로 올라가고 있는 듯한 거북 한 마리가 붙어 있다. 거북 등에는 일반적인 육각형무늬 대신 가는 선으로 세밀하게 새겨 넣은 무늬가 있다. 이런 원통모양의 그릇받침은 무덤 내부뿐만 아니라 봉토나 주구[周溝; 무덤 둘레돌의 배수구 역할을 하는 도랑]에서도 확인되기 때문에 제사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향아리는 목이 긴 것으로 밀이 둥근 형태이다.</p>	<p>이 그릇받침과 향아리는 북천동 돌덧널무덤에서 출토되었다. 그릇받침에는 위로 올라가고 있는 듯한 거북 한 마리가 붙어 있다. 거북 등에는 일반적인 육각형무늬 대신 가는 선으로 세밀하게 새겨 넣은 무늬가 있다. 이런 원통모양의 그릇받침은 무덤 내부뿐만 아니라 봉토나 주구(무덤 둘레돌의 배수구 역할을 하는 도랑)에서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제사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향아리는 목이 길고 밀이 둥근 형태이다.</p>	
45	쇠칼	<p>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자로 검(劍)은 양날이기 때문에 베거나 찌르는 데 사용하였고 칼(刀)은 날이 한쪽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베는 데 사용합니다. 이 쇠칼은 일반적인 칼에 비해 몸신은 좀 짧은 편이며 날이 양쪽에 나 있으므로 '검'이라고 합니다. 김해 양동리에서 출토된 것입니다.</p>	<p>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검(劍)은 양날이기 때문에 베거나 찌르는 데 사용하고 칼(刀)은 날이 한쪽에만 있기 때문에 주로 베는 데 사용한다. 이 쇠칼은 일반적인 칼에 비해 몸신은 좀 짧은 편이며 날이 양쪽에 나 있으므로 '검'이라고 한다. 김해 양동리에서 출토되었다.</p>	<p>이 쇠칼은 김해 양동리에서 출토되었다. 일반적인 칼에 비해 몸신은 좀 짧은 편이며 날이 양쪽에 나 있으므로 '검'이라고 한다. 칼에는 두 종류가 있다. 검(劍)은 양날이기 때문에 베거나 찌르는 데 사용하고 칼(刀)은 날이 한쪽에만 있기 때문에 주로 베는 데 사용한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6	쇠투겁창 (철모)	쇠로 만든 창으로, 뾰족한 날 부분과 나무 자루를 끼우는 투겁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겁’은 ‘가늘고 긴 물건의 끝에 씌우는 물건’이라는 뜻의 우리말 ‘두겁’이 변한 말입니다. 나무자루 끝에 쇠로 만든 투겁 모양의 창을 끼워 쓰기 때문에 ‘쇠투겁창’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쇠로 만든 창으로, 뾰족한 날 부분과 나무 자루를 끼우는 투겁 부분으로 되어 있다. ‘투겁’은 ‘가늘고 긴 물건의 끝에 씌우는 물건’이라는 뜻의 우리말 ‘두겁’이 변한 말이다. 나무자루 끝에 쇠로 만든 투겁 모양의 창을 끼워 쓰기 때문에 ‘쇠투겁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쇠로 만든 창이다. 뾰족한 날 부분과 나무 자루를 끼우는 투겁으로 되어 있다. 나무자루 끝에 쇠로 만든 투겁 모양의 창을 끼워 쓰기 때문에 ‘쇠투겁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투겁’은 ‘가늘고 긴 물건의 끝에 씌우는 물건’이라는 우리 말 ‘두겁’이 변한 말이다.	
47	활	창원 신방리유적에서 출토된 활입니다. 곧게 뻗은 활 양쪽 끝부분에 고리를 걸 수 있게 단이나 홈을 파고, 그곳에 활줄을 걸게 만든 것을 직궁이라고 합니다. ㄷ자 형태에서 활줄을 걸 수 있게 만든 것은 만궁이라고 하는데, 주로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며, 기마용에 적합합니다.	창원 신방리유적에서 출토된 활이다. 곧게 뻗은 활 양쪽 끝부분에 고리를 걸 수 있게 단이나 홈을 파고, 그곳에 활줄을 걸게 만든 것을 직궁이라고 한다. ㄷ자 형태에서 활줄을 걸 수 있게 만든 것은 만궁이라고 하는데, 주로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며, 기마용에 적합하다.	이 활은 창원 신방리유적에서 출토되었다. 곧게 뻗은 활 양쪽 끝부분에 고리를 걸 수 있게 단이나 홈을 파고, 그곳에 활줄을 걸게 만든 것을 직궁이라고 한다. ㄷ자 형태에서 활줄을 걸 수 있게 만든 것은 만궁이라고 한다. 만궁은 주로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며, 기마용에 적합하다.	
48	갑옷 (판갑)	세로로 긴 쇠판을 못으로 이어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쇠판에 녹이 쓸어있지만 원래는 단단한 쇠로 되어 날아오는 화살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철판 위에 옷칠을 하거나 새 깃을 붙여 장식하기도 하였습니다. 목 뒷부분에는 꼬리를 맞대고 서로 반대쪽을 향해 보고 있는 새 두 마리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세로로 긴 쇠판을 못으로 이어 붙여서 만들었다. 쇠판에 녹이 쓸어있지만 원래는 단단한 쇠로 되어 날아오는 화살도 막을 수 있었다. 철판 위에 옷칠을 하거나 새 깃을 붙여 장식하기도 하였다. 목 뒷부분에는 꼬리를 맞대고 서로 반대쪽을 향해 보고 있는 새 두 마리가 덧붙여져 있다.	이 갑옷은 세로로 긴 쇠판을 못으로 이어 붙여서 만들었다. 쇠�판에 녹이 슬었지만 원래는 단단한 쇠로 되어 날아오는 화살도 막을 수 있었다. 철판 위에 옷칠을 하거나 새 깃을 붙여 장식하기도 했다. 목 뒷부분에는 꼬리를 맞대고 서로 반대쪽을 향해 보고 있는 새 두 마리가 덧붙여져 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9	투구 (종장판주)	여러 매의 얇고 긴 쇠판을 세로로 연결하여 만든 투구입니다. 정수리 부분에는 사발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것이 붙어 있는데 이런 것을 ‘몽고발형’ 이라고 합니다. 투구의 좌우에는 불가리개가 따로 만들어져 붙어 있습니다.	여러 매의 얇고 긴 쇠판을 세로로 연결하여 만든 투구이다. 정수리 부분에는 사발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것이 붙어 있는데 이런 것을 ‘몽고발형’ 이라고 한다. 투구의 좌우에는 불가리개가 따로 만들어져 붙어 있다.	이 투구는 여러 매의 얇고 긴 쇠판을 세로로 연결하여 만들었다. 정수리 부분에는 사발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것이 붙어 있는데 이런 것을 ‘몽고발형’이라고 한다. 투구의 좌우에는 불가리개가 따로 만들어져 붙어 있다.	
50	목가리개	사람의 목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쇠갑옷입니다. 세로로 긴 철판을 못 또는 가죽 끈을 이용해서 부채모양으로 연결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철판은 좁아지고 철판 수가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갑옷에 붙여서 만들어졌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움직임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목가리개만 따로 만들어 쓰게 됩니다. 김해 여래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의 목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쇠갑옷이다. 세로로 긴 철판을 못 또는 가죽 끈을 이용해서 부채모양으로 연결하였다. 쇠갑옷의 형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철판은 좁아지고 철판 수가 많아진다. 처음에는 갑옷에 붙여서 만들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움직임을 편하게 하려고 목가리개만 따로 만들어 쓰게 된다. 김해 여래리에서 출토되었다.	이것은 사람의 목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쇠갑옷이다. 세로로 긴 철판을 못 또는 가죽 끈을 이용해서 부채 모양으로 연결하였다. 김해 여래리에서 출토되었다. 쇠갑옷의 형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철판은 좁아지고 철판 수가 많아진다. 처음에는 갑옷에 붙여서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움직임을 편하게 하려고 목가리개만 따로 만들어 쓰게 되었다.	
51	미늘 갑옷 (찰갑)	물고기 비늘처럼 생긴 쇠판에 구멍을 뚫어 가죽 끈으로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쇠판으로 만든 갑옷에 비해 유연성이 좋아서 보병보다는 기마병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출토될 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복원하면 조선시대 장군들이 있었던 것처럼 됩니다. 김해 여래리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물고기 비늘처럼 생긴 쇠판에 구멍을 뚫어 가죽 끈으로 엮어서 만들었다. 쇠판으로 만든 갑옷에 비해 유연성이 좋아서 보병보다는 기마병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진은 출토될 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복원하면 조선시대 장군들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다. 이 비늘 갑옷은 김해 여래리에서 출토되었다.	이 갑옷은 김해 여래리에서 출토되었다. 물고기 비늘처럼 생긴 쇠판에 구멍을 뚫어 가죽 끈으로 엮어서 만들었다. 쇠판으로 만든 갑옷에 비해 유연성이 좋아서 보병보다는 기마병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진은 출토될 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복원하면 조선시대 장군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52	말갑옷	전쟁에서는 말에도 갑옷을 입혔습니다. 이 말갑옷은 함안 아라가야의 무덤에서 출토되었는데, ‘말의 갑옷’ 이 나왔다고 하여 그 무덤 이름이 ‘마갑총[馬甲塚]’ 이 되었습니다. 말갑옷은 철판을 연결하여 만들었으며, 목가리개는 부채꼴모양으로 연결하였습니다. 말갑옷과 중무장한 무사의 모습은 고구려 벽화무덤이나 말 탄 사람모습의 토기에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말에도 갑옷을 입혔다. 이 말갑옷은 함안 아라가야의 무덤에서 출토되었는데, ‘말의 갑옷’ 이 나왔다고 하여 그 무덤 이름이 ‘마갑총[馬甲塚]’ 이 되었다. 말갑옷은 철판을 연결하여 만들었으며, 목가리개는 부채꼴모양으로 연결하였다. 말갑옷과 중무장한 무사의 모습은 고구려 벽화무덤이나 말 탄 사람모습의 토기에서 잘 표현되어 있다.	이것은 말갑옷이다. 함안 아라가야의 무덤에서 출토되었는데, 말의 갑옷이 나왔다고 하여 그 무덤이 ‘마갑총’이 되었다. 전쟁에서는 말에게도 갑옷을 입혔다. 말갑옷은 철판을 연결하여 만들었고, 목가리개는 부채꼴모양으로 연결하였다. 말갑옷과 중무장한 무사의 모습은 고구려 벽화무덤이나 말 탄 사람모습의 토기에서 잘 표현되어 있다.	
53	말머리 가리개 (마면주)	전쟁에 나가는 말에게도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웠습니다. 말이 쓴 투구를 말머리 가리개라고 합니다. 말머리 가리개는 얼굴을 덮는 얼굴 덮개, 머리 위와 귀를 가리는 챙, 볼을 가리는 볼 가리개의 세 부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얼굴 덮개와 볼 가리개는 가죽 끈으로 묶고, 나머지는 못을 사용하여 연결하였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말에게도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웠다. 말이 쓴 투구를 말머리 가리개라고 한다. 말머리 가리개는 얼굴을 덮는 얼굴 덮개, 머리 위와 귀를 가리는 챙, 볼을 가리는 볼 가리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얼굴 덮개와 볼 가리개는 가죽 끈으로 묶고, 나머지는 못을 사용하여 연결하였다.	말머리 가리개이다. 전쟁에 나가는 말에게도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웠다. 말이 쓴 투구를 말머리 가리개라고 한다. 말머리 가리개는 얼굴을 덮는 얼굴 덮개, 머리 위와 귀를 가리는 챙, 볼을 가리는 볼 가리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얼굴 덮개와 볼 가리개는 가죽 끈으로 묶고, 나머지는 못을 사용하여 연결하였다.	
54	청동투겁창 (광형동모)	이 청동투겁창은 한국식투겁창보다 폭이 훨씬 넓고 크기도 아주 큼니다. 일본 야요이[彌生]시대 후기인 2~3세기 대 유행한 것이 한국으로 전해진 것이라 본다. 김해 양동리무덤에서 출토된 것으로 실용적이지 못하고 제사나 의례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청동투겁창은 한국식투겁창보다 폭이 훨씬 넓고 크기도 아주 크다. 일본 야요이[彌生]시대 후기인 2~3세기 대 유행한 것이 한국으로 전해진 것이라 본다. 김해 양동리무덤에서 출토되었다. 실용적이지 못하고 제사나 의례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청동투겁창은 한국식투겁창보다 폭이 훨씬 넓고 크기도 아주 크다. 김해 양동리 무덤에서 출토되었다. 너무 길어서 실제 사용보다는 제사나 의례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야요이시대 후기인 2~3세기 대 유행한 것이 한국으로 전해진 것이라고 본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55	배모양토기	가야 지역에서 확인된 최초의 배모양 토기로, 김해시 진영 여래리 덧널무덤에서 출토되었습니다. 배모양토기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간다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판자를 덧대어 만든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배 좌우에 각각 2개의 노걸이가 있고, 배의 보에 해당하는 멍에가 앞머리에만 있습니다. 가야의 배 연구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가야 지역에서 확인된 최초의 배모양 토기로, 김해시 진영 여래리 덧널무덤에서 출토되었다. 배모양토기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간다는 믿음을 담고 있다. 판자를 덧대어 만든 모양을 하고 있다. 배 좌우에 각각 2개의 노걸이가 있고, 배의 보에 해당하는 멍에가 앞머리에만 있다. 가야의 배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배모양토기이다. 판자를 덧대어 만든 모양이다. 배 좌우에 각각 2개의 노걸이가 있고, 배의 보에 해당하는 멍에가 앞머리에 있다. 가야지역 배모양토기 중 최초로 확인된 것으로, 김해 덧널무덤에서 출토되었다. 가야의 배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배모양 토기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간다는 믿음이 있다.	
56	청동 세발솥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경 중국 황하 유역에서 만들어진 청동 솥입니다. 가야로 전해져 기원후 3세기경 김해 양동리 무덤에 묻혔습니다. 당시 중국과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무게는 2.3kg, 부피는 1.98 l (1되=2 l)로 큰 콜라 한 병보다 더 많은 양을 담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보다는 제사와 같은 의식이나 어떤 물품의 부피를 재기 위한 그릇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가리 곁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확인된 글자는 전서체로 ‘西口宮鼎容一斗并重十七斤七兩七’ 14자입니다.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경 중국 황하 유역에서 만들어진 청동 솥이다. 가야로 전해져 기원후 3세기경 김해 양동리 무덤에 묻혔다. 당시 중국과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무게는 2.3kg, 부피는 1.98 l (1되=2 l)로 큰 콜라 한 병보다 더 많은 양을 담을 수 있다. 실생활보다는 제사와 같은 의식이나 어떤 물품의 부피를 재기 위한 그릇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가리 곁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확인된 글자는 전서체로 ‘西口宮鼎容一斗并重十七斤七兩七’ 14자이다.	청동 솥으로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경 중국 황하 유역에서 만들어졌다. 가야로 전해져 기원후 3세기경 김해 양동리 무덤에 묻혔다. 이것을 통해 중국과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다. 무게는 2.3kg, 부피는 1.98 l로 큰 콜라 한 병보다 더 많은 양을 담을 수 있다. 실생활보다는 제사와 같은 의식이나 어떤 물품의 부피를 재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가리 곁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전서체로 14자이다.	
57	청동 방패꾸미개 (파형동기)	바람개비모양 청동기는 가죽으로 만든 방패를 장식하던 도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도 이러한 유물이 많이 출토되며, 가야와 일본의 활발했던 교류를 알려주는 유물입니다. 김해 대성동에서 출토되었습니다.	바람개비모양 청동기는 가죽으로 만든 방패를 장식하던 도구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도 이러한 유물이 많이 출토되며, 가야와 일본의 활발했던 교류를 알려주는 유물이다. 김해 대성동에서 출토되었다.	이 바람개비 모양의 도구는 청동으로 만들어졌다. 가죽으로 만든 방패를 장식하던 도구로, 김해 대성동에서 출토되었다. 일본에서 이런 유물이 많이 출토되며, 가야와 일본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알려주는 유물이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58	청동술 (동북)	이런 모양의 청동술은 유라시아 북방 초원지대의 유목민이 주로 사용하던 그릇입니다. 중국에서는 서주시대 말에서 육조시대까지 사용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평양의 낙랑 유적, 김해의 대성동과 양동리의 가야 유적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청동술의 몸통은 길쭉한 편이며, 손잡이가 얇은 편입니다. 특히 이 청동술 속에는 밤 3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양의 청동술은 유라시아 북방 초원지대의 유목민이 주로 사용하던 그릇이다. 중국에서는 서주시대 말에서 육조시대까지 사용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평양의 낙랑 유적, 김해의 대성동과 양동리의 가야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청동술의 몸통은 길쭉한 편이며, 손잡이가 얇은 편이다. 특히 이 청동술 속에는 밤 3점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청동술으로 유라시아 북방 초원지대 유목민이 주로 사용했다. 청동술의 몸통은 길쭉한 편이고 손잡이가 얇은 편이다. 이 술 속에는 밤 3점이 들어 있었다. 중국에서는 서주시대 말부터 육조시대까지 사용했다. 우리나라 평양의 낙랑유적, 김해의 대성동과 양동리의 가야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59	통형동기	통형동기는 그 속에 청동 붓이 들어가 있어 흔들면 소리가 납니다. 한쪽 끝에는 나무 자루를 꽂아 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안쪽에 나무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고루 출토되어 일본계 청동제품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김해 대성동·양동리유적, 부산 복천동 유적에서만 출토되었습니다. 다만 김해 대성동유적 1호 덧널무덤에서 한꺼번에 8점이 출토되어 금관가야의 자체 제작품일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통형동기는 그 속에 청동 붓이 들어가 있어 흔들면 소리가 난다. 한쪽 끝에는 나무 자루를 꽂아 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안쪽에 나무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일본 전역에서 고루 출토되어 일본계 청동제품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김해 대성동·양동리유적, 부산 복천동 유적에서만 출토되었다. 다만 김해 대성동유적 1호 덧널무덤에서 한꺼번에 8점이 출토되어 금관가야의 자체 제작품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통형동기는 속에 청동 붓이 들어 있어 흔들면 소리가 난다. 한쪽 끝에 나무 자루를 꽂아 고정할 수 있는데 실제 안쪽에 나무의 흔적이 있다. 일본 전역에서 출토되어 일본계 청동제품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해 대성동, 양동리 유적, 부산 복천동에서만 출토되었다. 다만 김해 대성동 유적 1호 덧널무덤에서 한꺼번에 8점이 출토되어 금관가야 자체 제작품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60	하지키 토기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일본토기는 하지끼[土師器]와 스에키[須恵器]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끼는 적갈색의 연질토기[무른 토기]로 항아리 아가리가 강하게 꺾여 있거나 반원모양의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굽다리접시의 접시부에는 각이 살아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에키 토기는 쫄소리가 날 정도로 단단한 회청색 가야토기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일본토기는 하지끼[土師器]와 스에키[須恵器]를 들 수 있다. 하지끼는 적갈색의 연질토기[무른 토기]로 항아리 아가리가 강하게 꺾여 있거나 반원모양의 손잡이가 달려 있다. 굽다리접시의 접시부에는 각이 살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에키 토기는 쫄소리가 날 정도로 단단한 회청색 가야토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토기인 하지끼이다. 적갈색의 무른 토기로 항아리 아가리가 강하게 꺾여 있거나 반원모양의 손잡이가 있다. 굽다리접시의 각이 살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에키 토기는 가야토기의 영향으로 발생했다.	



(3) 국립대구박물관(50편)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	주먹도끼	구석기시대는 돌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도구를 제작하였다. 이를 펜석기라고 하는데, 구석기시대를 대표하는 펜석기 가운데 하나가 주먹도끼이다. 이 주먹도끼는 안동 마에리 구석기유적에서 출토되었다. 몸체의 양 가장자리와 밑 부분을 다듬어 제작하였다. 몸체의 윗부분은 잔손질로 정교하게 다듬었기 때문에 뾰족한 모양이다. 주먹도끼는 대체로 사냥을 비롯해 나무와 가죽의 가공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에리 구석기유적은 안동에서 확인된 첫 구석기 유적이며, 상주 신상리 구석기 유적과 함께 경북 지역의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이다.	주먹도끼는 돌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제작하는 펜석기의 대표적 유물입니다. 몸체의 양 가장자리와 밑부분을 다듬었고 윗부분은 잔손질로 정교하게 다듬어 뾰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먹도끼의 용도는 사냥할 때와 나무, 가죽 등을 가공할 때 사용했습니다.	동물을 사냥하거나 가죽을 벗길 때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돌을 깨뜨려서 만든 것으로 구석기를 대표하는 유물이다. 양 가장자리와 밑 부분을 다듬었고 윗부분은 손질로 뾰족하게 다듬어 만들었다.	
2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토기는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토기이다.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주로 바닷가나 큰 강에서 생활하였다. 이 빗살무늬토기는 팔공산에서 시작해 금호강으로 합류하는 동화천 인근에 자리한 대구 서변동유적의 움집자리[竈穴住居址]에서 출토되었다. 토기는 점토를 일정한 크기의 고리로 만들어 짜리 모양으로 쌓아 올리는 테쌓기[輪積] 기법으로 만들었다. 바닥은 뾰족하고 아가리와 몸체의 상부에는 사격자무늬[斜格子文]가 새겨져 있다.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으로 사선을 먼저 그은 다음,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사선을 그어 사격자무늬를 완성하였다. 토기 외면과 내면에는 가로 방향으로 빗살흔이 남아 있다. 서변동유적은 대구에서 처음으로 신석기시대의 유구와 토기 등이 확인됨으로써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토기는 점토를 일정한 크기의 고리로 만들어 짜리 모양으로 쌓아 올리는 테쌓기 기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닥은 뾰족하고 아가리와 몸체의 윗부분에는 사격자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토기 바깥쪽과 안쪽에는 가로 방향으로 빗살흔이 남아 있습니다.	이 토기는 점토를 일정한 크기로 고리를 만들어 짜리 모양으로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방법을 테쌓기 기법이라고 한다. 아래는 뾰족하고 몸체의 윗 부분과 아가리에 사격자 무늬가 새겨져 있다. 토기 바깥쪽과 안쪽에는 가로 방향으로 빗살모양이 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	반달돌칼과 돌낫	곡식의 이삭을 따는 데 사용한 수확용 도구이다. 전체적인 형태가 반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반달돌칼로 불린다. 대구 서변동유적에서 출토된 반달돌칼은 2개의 구멍 사이에 끈을 연결하여 끈 사이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사용하였다. 날은 한쪽만 갈아서 만들었다.	곡식의 이삭을 따는데 사용한 반달돌칼과 돌낫입니다. 전체적인 형태가 반달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반달돌칼은 구멍 2개 사이에 끈을 연결하여 끈 사이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사용했습니다. 날은 한쪽만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곡식의 이삭을 따는데(떼어내는 데) 사용한 것이다. 형태가 반달 모양과 비슷하다. 구멍 2개에 끈을 연결하여 끈 사이에 손가락을 끼워 사용하였다. 한쪽의 날만 갈아서 만들었다.	
4	툽니날도끼	툽니날도끼는 별모양도끼라고도 불리며, 대체로 한반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출토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 툽니날도끼는 대구 서변동유적의 움집자리[竪穴住居址]에서 출토되었다. 툽니날 모양의 돌기는 모두 11개이다. 가운데에는 양쪽에서 구멍이 깊이 파여져 있으나 관통되지는 않았다.	툽니날도끼는 별모양도끼라고도 불리며, 대체로 한반도 북부 중심으로 출토되는 경향입니다. 이 툽니날도끼는 대구 서변동 유적의 움집자리에서 출토되었습니다. 툽니날 모양의 돌기는 모두 11개이며 가운데에는 양쪽에 구멍이 깊이 파여져 있으나 관통되지는 않았습니다.	툽니날도끼는 별모양도끼라고도 불린다. 이것은 대구 서변동 유적에서 발견되었으며 대체로 한반도 북부지역에서 발견된다. 돌기가 툽니날 모양으로 모두 11개이며 중간에 깊이 파여져 있는 구멍이 양쪽에 있지만 서로 관통되지는 않는다.	
5	굽은옥 대롱옥 목걸이	이 목걸이는 영덕군 오포리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굽은옥[曲玉]과 여러 점의 짧은 대롱옥[管玉]을 연결하여 만들었다. 끈으로 연결하기 위해 굽은옥과 대롱옥에는 구멍을 뚫었다. 선사시대에는 조개나 짐승의 이빨 등을 이용해 목걸이를 만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재료가 유리나 옥으로 대체되었다. 옥으로 만든 목걸이는 생활유적보다는 무덤에서 꺼문거리[副葬品] 형태로 많이 출토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옥 목걸이는 소유자의 신분과 계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목걸이는 굽은 옥과 여러 점의 짧은 대롱옥을 연결하여 만들었습니다. 끈으로 연결하기 위해 굽은 옥과 대롱옥에는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옥 목걸이는 소유자의 신분과 계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굽은 옥과 짧은 대롱옥에 구멍을 뚫어 끈으로 연결해 만든 목걸이이다. 이것은 소유자의 신분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옥은 희소가치가 있고 가공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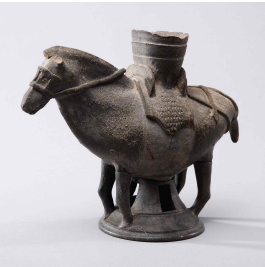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6	요령식동검 과 한국식동검	<p>요령식동검은 전체적인 형태가 비파(琵琶)와 비슷해 비파형琵琶形동검으로도 불린다. 한국식동검은 날부분의 전체적인 형태가 직선적이며 검몸 중간 부분에 마디가 있는 점이 특징이다. 요령식동검이 중국 요령遼寧지역부터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출토되는 것과 달리, 한국식동검은 평안북도를 제외한 한반도에 출토된다.</p> <p>1966년 대구 만촌동에서 출토된 한국식동검은 검몸의 폭이 좁고 등날이 밑부분까지 이른다. 검몸에는 피홈[血溝]이 형성되어 있다. 한국식동검 가운데 후기 양식에 해당한다. 구미 선산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하는 요령식동검도 비교적 후기 양식이다.</p>	<p>요령식동검은 전체적인 형태가 비파와 비슷해 비파형동검으로도 불립니다. 한국식동검은 날 부분의 형태가 직선적이며 검몸 중간 부분에 마디가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요령식동검은 중국 요령 지역부터 한반도 남부 지역까지 출토되지만 한국식동검은 한반도에서만 출토가 됩니다.</p>	<p>이것은 요령식동검과 한국식동검이다.</p> <p>요령식동검은 모양이 비파와 비슷해 비파형동검이라고도 불린다.</p> <p>이것은 중국 요령 지역부터 한반도 남부 지역까지 발견된다.</p> <p>한국식동검은 날의 형태가 직선적이며 검몸 중간에 마디가 있다.</p> <p>이것은 한반도에서만 발견된다.</p>	
7	중국거울	<p>1974년 8월 대구 평리동 와룡산 기슭에서 대량의 청동기가 발견되었다. 이 거울은 이때 함께 발견되었다.</p> <p>거울에는 4개의 꼭지 사이에 용무늬를 ‘2’ 자 모양으로 간략하게 표현한 환룡무늬[應龍文]를 새겼다. 가운데의 원형 꼭지 주위에는 빗살무늬를 2중으로 둥글게 배치하였다. 영천 어은동에서 출토된 거울과 유사해 같은 거꾸집[同范]을 사용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p> <p>평리동유적에서는 한국식동검韓國式銅劍을 비롯해 다양한 금속품이 출토되었다. 1세기 전반, 중국 한漢 계통의 청동기·철기문화가 유입되었음을 보여준다.</p>	<p>거울에는 4개의 꼭지 사이에 용무늬를 ‘2’ 자 모양으로 간략하게 표현한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p> <p>평리동 유적에서는 이 거울과 한국식동검을 비롯해 다양한 금속품이 출토되었습니다. 1세기 전반, 중국 한나라 계통의 청동기·철기문화가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p>	<p>이것은 중국거울이다.</p> <p>발견된 곳은 평리동 유적이며 한국식동검과 다양한 금속품이 함께 발견되었다.</p> <p>거울에 4개의 꼭지(볼록 모양)가 있고 그 사이에 용모양을 ‘S’자 모양으로 간단하게 표현한 무늬가 새겨있다.</p> <p>1세기의 중국 한나라의 청동기·철기문화가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8	호랑이 모양 허리띠고리	경산 신대리유적 1호 널무덤[木棺墓]에서 출토된 이 허리띠고리는 호랑이가 앉아서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얼굴과 잘록한 허리 등 전체적인 모습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꼬리는 엉덩이에 붙어 몸체와 일체형을 이루며, 뱀처럼 둥글게 말려있다. 다리는 구부린 상태로 앞발이 뒷발에 비해 조금 더 길다. 앞·뒷발에는 선무늬를 이용해 발톱을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얼굴의 입 주변은 여러 개의 새김무늬[沈線文]와 가로줄무늬[橫線文]가 서로 교차되게 새겨져 있으며, 요철무늬[凹凸文]를 이용하여 14개의 이빨을 익살스럽게 표현하였다. 눈은 동심원을 2겹 가량 겹쳐서 나타냈고, 목과 배의 잘록한 부분에는 2줄의 구획선 안에 가로줄과 세로줄을 교차시키는 방식으로 무늬를 새겼다. 길게 만들어진 끝은 갈고리 모양으로 처리하였다.	이 허리띠 고리는 경산 신대리 유적의 1호 널무덤에서 출토되었습니다. 호랑이가 앉아서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으며 얼굴과 잘록한 허리 등 전체적인 모습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호랑이가 앉아서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으며 얼굴과 잘록한 허리 등 전체적인 모습을 실제 호랑이와 매우 비슷하게 만들었다. 발견된 곳은 경산 신대리 유적의 1호 널무덤이다.	
9	금동관	1960년 국립박물관이 탐리 고분군의 서쪽 정상부에 있는 가장 큰 고분을 발굴조사하였다. 하나의 봉토 안에서 모두 5개의 덧널이 확인되었다. 이 금동관은 그 가운데 제1곽에서 출토되었다. 세움장식은 가장자리를 얇게 오려낸 다음 일일이 꼬아서 새의 깃털모양처럼 만들었다. 세움장식의 상부에는 마치 새의 눈을 연상시키는 2개의 구멍을 내었다. 세움장식의 가장자리를 새 깃털모양처럼 장식하는 것은 고구려의 관에서 많이 나타나는 제작기법이다. 경주 황남대총 남분에서 출토된 은관과 대구 달성고분군 37호분 제2곽에서 출토된 고갈 모양의 관[帽冠]에도 새 깃털모양의 세움장식이 있어서 고구려 문화가 신라로 유입되었음을 알려준다.	세움 장식은 가장자리를 얇게 오려낸 다음 일일이 꼬아서 새의 깃털 모양처럼 만들었습니다. 세움 장식 윗부분에는 새의 눈을 연상시키는 2개의 구멍을 내었습니다. 세움 장식의 새 깃털 모양은 고구려의 관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고구려의 문화가 신라로 들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금동관의 세움 장식은 양쪽 가장자리를 얇게 오린 다음 하나하나 꼬아서 만들어 새의 깃털 모양과 비슷하다. 세움 장식 위에는 새의 눈과 비슷한 2개의 구멍이 있다. 새 깃털 모양은 고구려의 관에서 많이 보인다. 따라서 고구려의 문화가 신라로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0	금동관	<p>대구 달성고분군 37호 제1곽에서 출토되었다. 넓은 관테[帶輪]에 나뭇가지모양의 맞가지 세움장식[立飾] 3개와 사슴뿔모양의 엇가지 세움장식 2개를 금동못으로 고정시켜 장식하였다.</p> <p>굽은옥[曲玉]이 달려 있지 않은 점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형태는 경주에서 출토되는 금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세움장식은 지상과 천상을 잇는 매개체로서 나무와 사슴을 상징화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p>	<p>넓은 관테에 나뭇가지 모양의 맞가지 세움 장식 3개와 사슴뿔 모양의 엇가지 세움 장식 2개를 금동 못으로 고정시켜 장식했습니다.</p> <p>전체적인 형태는 경주에서 출토된 금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p>	<p>넓은 관테에 나뭇가지 모양의 맞가지 세움 장식 3개와 사슴뿔 모양의 엇가지 세움 장식 2개를 금동 못으로 고정하여 만들었다.</p> <p>금관의 전체적인 모양은 경주에서 발견된 금관과 비슷하다.</p>	
11	관꾸미개	<p>신라의 관꾸미개는 새 날개 모양[鳥翼形]처럼 만든 것이 많다. 고깔 형태의 관[帽冠]에 끼워서 착용하였다.</p> <p>의성 탑리 고분 2곽에서 출토된 금동으로 만든 관꾸미개와 경산 임당동 2호분에서 출토된 은으로 만든 관꾸미개는 앞세움장식[前立飾]과 양쪽 날개를 조합하여 만들었다. 탑리 고분 2곽에서 출토된 관꾸미개의 앞세움장식 아랫부분은 고깔 형태의 관에 끼울 수 있도록 뾰족하고 매끈하게 만든 반면, 임당동 2호분에서 출토된 관꾸미개는 앞세움장식 아래쪽 좌우에 고깔 형태의 관에 고정하기 위한 못구멍이 있다. 탑리 고분 2곽에서 출토된 관꾸미개에는 금동실을 꼬아 둥근 달개[璎珞]를 달았는데 상당수는 결실되었다.</p>	<p>의성 탑리 고분 2곽에서 출토된 금동으로 만든 관꾸미개와 경산 임당동 2호분에서 출토된 은으로 만든 관꾸미개는 앞세움 장식과 양쪽 날개를 합쳐 만들었습니다. 의성 탑리의 관꾸미개는 앞세움장식의 아랫부분이 고깔 형태의 관에 끼울 수 있도록 뾰족하고 매끈합니다.</p>	<p>이것은 관꾸미개이다.</p> <p>하나의 금동으로 만들었으며 아랫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어 고깔 형태의 관에 끼울 수 있게 만들었다.</p> <p>발견된 곳은 의성 탑리 고분 2곽이다.</p> <p>또 하나는 은으로 만든 앞세움 장식과 양쪽 날개를 합쳐서 만들었다.</p> <p>발견된 곳은 경산 임당동 2호 분이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2	금귀걸이	대구 달성고분군 55호분에서 출토되었다. 중심고리[主環]와 노는고리[遊環], 셋장식[中間飾], 드림[垂下飾]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셋장식이 특히 화려하다. 중심고리의 속은 비어 있다. 셋장식은 작은 고리를 여러 개 연결하여 만든 구체와 반구체가 상하로 연결되어 있었다. 중간에는 둥근 고리를 끼워 넣었다. 드림은 하트형[心葉形]이며, 연결금구가 걸리는 부분에는 구멍을 뚫었다. 드림의 가장자리와 앞·뒷면 가운데에 새김 눈 테가 있는 금띠를 붙였다.	중심고리와 노는고리, 셋장식, 드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려한 셋장식은 작은 고리를 여러 개 겹쳐 만든 구체와 반구체 위아래로 연결하여 만들었습니다. 드림은 하트 모양이며, 가장자리와 앞·뒷면 가운데에 새김 눈 테가 있는 금띠를 붙였습니다.	이것은 금 귀걸이이다. 중심고리와 노는고리, 셋장식, 드림으로 연결되어 있다. 셋장식은 작은 고리를 여러 개 겹쳐 만든 구체(공 모양)와 반구체(공을 반 자른 모양)으로 연결하여 만들어 화려하다. 드림은 하트 모양으로 가장자리와 앞·뒷면 가운데에 새김 눈 테가 있는 금띠가 있다.	
13	허리띠, 드리개	1982년 해외로 밀반출하려다 경찰에 압수된 경산 임당동 고분군 도굴품 가운데 하나이다. 이에 따라 발굴이 시작되었다. 북분[北墳]의 으뜸덧널[主槨]에서 은허리띠의 띠고리[鉸具]와 띠꾸미개[鈔板]가 출토되었다. 이것을 압수한 은허리띠의 띠꾸미개와 비교한 결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은허리띠는 띠고리와 띠꾸미개, 드리개[腰佩], 띠끝장식[帶端金具]으로 이루어져 있다. 띠꾸미개는 인동무늬[忍冬文]가 간략하게 표현된 사각형 판에 하트형心葉形의 장식이 달려 있다. 6줄의 띠드리개는 큰 타원형 판과 작은 타원형 판을 교대로 연결하여 만들었다. 끝에는 직사각형의 모자장식, 홀모양[圭形板]과 물고기모양 장식 등이 매달려 있다. 띠끝장식은 띠의 연결부가 삼각형 모양으로 각이져 있다.	1982년 해외로 밀반출하려다 경찰에 압수된 경산 임당동 고분군 도굴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건으로 고분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북쪽 봉분의 으뜸덧널에서 은허리띠의 띠고리와 띠꾸미개가 출토되었습니다. 이것을 압수한 은허리띠의 띠꾸미개와 비교한 결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1982년 해외로 밀반출하려다 경찰에 압수된 것이다. 경산 임당동 고분군에서 도굴된 유물 중 하나이다. 이 사건 이후로 고분 발굴이 시작되었다. 북쪽 봉분의 으뜸덧널에서 은허리띠의 띠고리와 띠꾸미개가 발견되었다. 이것을 경찰이 압수한 것과 비교한 결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4	금동신발	960년 국립박물관이 탐리 고분군의 서쪽 정상부에 있는 가장 큰 고분을 발굴조사하였는데, 하나의 봉토 안에서 모두 5개의 나무덧널[木槨]이 확인되었다. 이 금동신발은 그 가운데 제2곽에서 출토되었다. 3매의 금동편을 맞대어 만들었고 뒷판과 바닥판은 못으로 고정하였다. 전체적인 형태와 맞새김장식의 무늬 등으로 보아 전형적인 신라식 신발에 해당한다.	1960년 의성 탐리 고분군 서쪽 정상부에 있는 가장 큰 고분을 발굴하여 조사할 때 출토된 금동신발입니다. 고분 안의 5개의 나무덧널 중 제2곽에서 출토되었습니다. 3장의 금동편을 맞대어 만들었고 뒤판과 바닥판은 못으로 고정했습니다.	이것은 금동신발이다. 발견이 된 시기는 1960년으로 의성 탐리 고분군 서쪽에 있는 가장 큰 고분을 조사할 때 발견하였다. 금동편 3장을 맞대어 만들고 뒤판과 바닥판은 못으로 고정하였다.	
15	안장꾸미개	삼국시대의 안장은 일반적으로 말을 타는 사람이 앉는 부분과 앞·뒤에 부착되는 가리개[鞍橋]로 이루어져 있다. 앉는 부분과 안장가리개는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삭아서 없어지고 금속으로 제작된 안장꾸미개만 출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안장가리개 꾸밈에는 거북의 등껍질을 형상화 한 육각형 안에 용무늬[龍文]를 도식화圖式化하여 투조透彫한 점이 특징이다. 좌목선금구座木先金具에도 도식화 한 용무늬를 투조하였다.	나무로 된 앉는 부분과 안장가리개는 삭아서 없어지고 금속으로 된 안장꾸미개만 출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장가리개 꾸밈은 거북 등껍질을 형상화 한 육각형 안에 용무늬 모양을 도려내어 나타내었습니다. 좌목선금구에도 마찬가지로 용무늬를 표현했습니다.	금속으로 된 (말의) 안장꾸미개이다. 사람이 앉는 부분과 앞·뒤의 안장가리개는 나무로 되어 있어 삭아서 없어지고 금속으로 된 것만 발견된 것이다. 이것은 거북 등껍질 모양으로 육각형 안에 용무늬 모양으로 도려내어 만들었다. 좌목선금구에도 용무늬가 있다.	
16	고리자루큰칼	삼국시대 무덤의 대표적 껌문거리[副葬品]이다. 고리자루큰칼은 무덤 주인공의 허리 부분에서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실용품도 있지만 대부분 장식품 성격이 강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구 달성 고분군 55호분에서 출토된 고리자루큰칼이다. 이 고리자루큰칼은 세잎무늬[三葉文]가 장식된 고리만 금동이다. 그 외의 다른 부분은 모두 나무로 만들었고 표면에만 금동편을 덧대었다. 칼집에는 새끼칼 2자루가 장식되어 있다. 새끼칼의 표면에 다시 간략화 된 새끼칼 2자루가 표현되어 있다. 물고기의 꼬리지느러미처럼 생긴 칼집의 끝부분에는 연속으로 작은 점을 찍어서 무늬를 새겼다.	고리자루큰칼은 대부분 장식품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 고리자루큰칼은 세 잎 무늬의 고리만 금동이며 다른 부분은 모두 나무로 만들었고 겉에만 금동편을 덧대었습니다. 칼집에는 새끼칼 2자루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칼집의 끝부분에는 연속으로 작은 점을 찍어 무늬를 새겼습니다.	이것은 장식품의 성격이 있는 칼이다. 세 잎 무늬의 고리는 금동이며 다른 부분은 나무로 만든 후 표면에 금동편을 덧대었다. 칼집에는 새끼칼 2자루가 장식되어 있다. 칼집의 끝에는 작은 점을 연속으로 찍은 무늬가 새겨져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7	말모양토기	대구 옥수동 생활유적 가지구 1호 구溝에서 출토된 말모양토기이다. 말의 머리와 갈기, 고삐, 안장 등이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눈 주위로는 굴레가 씌워져 있고 고삐가 연결되어 있다. 등과 옆구리에는 안장 밑에 깔아 말의 등을 덮어 주는 방식의 일종인 언치를 엮었다. 상부에는 안장을 엮었으며, 앞가리개[前輪]와 뒷가리개[後輪] 사이에 타원 모양의 잔을 부착하였다. 결실된 굽다리와 말의 다리 부분은 일본 도쿄[東京]국립박물관에 소장된 오쿠라[小倉] 컬렉션의 말모양토기를 바탕으로 복원하였다.	말의 머리와 갈기, 고삐, 안장 등이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눈 주위로는 굴레가 씌워져 있고 고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등과 옆구리에는 언치를 엮었고 그 윗부분에는 안장을 엮었습니다. 앞가리개와 뒷가리개 사이에 타원 모양의 잔을 부착하였습니다.	말 모양 토기이다. 말의 머리와 갈기, 고삐, 안장 등이 매우 잘 표현되어 있다. 눈 주위에는 굴레가 씌어 고삐가 연결되어 있다. 말의 등과 옆구리에는 언치(말을 덮어주는 방식 종류)를 엮고 그 위에 안장을 엮었다. 앞가리개와 뒷가리개 사이에 타원 모양의 잔을 부착하였다.	
18	거북모양 주전자	1913년 12월 대구 달성達城 황대신궁皇大神宮 요배전遙拜殿을 개축하기 위한 부지에서 출토되었다. 배 부분에 굽다리[臺脚]가 있던 흔적이 남아 있다. 꼬리 쪽에 액체를 넣을 수 있도록 깔때기 모양의 주입구注入口를 만들고 주둥이는 액체가 나오는 출수구出水口로 만들었다. 토기 속은 비어 있어서 주입구로 액체를 넣으면 주둥이로 액체가 나오도록 만들었다. 거북 머리에는 눈, 코, 귀로 추정되는 원형의 구멍을 각 1쌍씩 내었다.	배 부분에 굽다리가 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꼬리 쪽에 액체를 넣을 수 있도록 깔때기 모양의 주입구를 만들고 주둥이는 액체가 나오는 출수구로 만들었습니다. 거북 머리에는 눈, 코, 귀로 추정되는 원형의 구멍이 각 1쌍씩 있습니다.	거북이 모양의 주전자이다. 거북이의 배 부분에 굽다리 흔적이 있다. 꼬리 쪽에 액체를 넣을 수 있는 깔때기 모양의 주입구가 있고 주둥이에 액체가 나오는 출수구가 있다. 거북이 머리에는 눈, 코, 귀로 보이는 구멍이 각 1쌍씩 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9	배모양 토기	<p>대구 달성 평촌리유적의 12호 수혈堅穴 유구에서 출토되었다. 통나무배의 몸통을 하부로 삼고, 상부는 뱃전 위에 널판을 이어 붙이고 배의 앞과 뒤에 가로로 널판을 대어 파도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한 2단 형식의 준구조선準構造船이다.</p> <p>상부 구조물의 상단에는 2개의 횡판을 가로로 덧붙였고, 좌우에 각 3조의 노걸이가 표현되어 있다. 노걸이의 방향으로 보아 끝부분에 가로로 둥근 형태의 구조물이 있는 쪽이 배의 뒷부분일 가능성이 높다. 배의 앞부분과 뒷부분은 둥근 형태로 들려 있다.</p>	<p>통나무배의 몸통을 하부로 삼았습니다. 또한 양쪽 가장자리 부분 위에 널판을 이어 붙이고 배의 앞뒤에 가로로 널판을 대어 상부를 만들었습니다. 파도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한 2단 형식의 준 구조선입니다.</p>	<p>배 모양의 토기이다.</p> <p>통나무배의 몸통을 아래에 두었다.</p> <p>배의 양쪽 가장자리에 널판을 붙이고 앞뒤에 가로로 널판을 대어 만들었다.</p> <p>파도가 배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2단 형식의 준 구조선으로 만들었다.</p>	
20	반가사유상	<p>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무릎 위에 얹고(반가半跏) 손가락을 뺨에 댄 채 생각에 잠긴 모습(사유思惟)의 보살상이다. 원래 이러한 모습은 인간의 생로병사生老病死를 고민하며 명상에 잠긴 싯다르타 태자 모습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한다. 중국에서 하나의 독립된 보살상 형식으로 확립되면서 반가사유상으로 불리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해지는 반가사유상으로 보아, 삼국시대인 6~7세기에 독립된 반가사유상 제작이 유행하였다.</p> <p>김천 출토 반가사유상은 무표정한 얼굴과 몸체에 비해 지나치게 큰 머리와 보관, 그에 비해 작고 야윈 손가락을 뺨에 댄 어색한 사유의 자세, 도식적인 옷 주름과 연꽃 모양의 족좌足座 등 옥동출토 반가사유상보다 더 형식화가 진행된 단계의 것이다.</p>	<p>반가(半跏)는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무릎 위에 얹어 반가부좌를 했다.’라는 의미이며 사유(思惟)는 ‘생각에 잠기다.’라는 의미입니다. 반가사유상은 인간의 생로병사(生老病死)를 고민하며 명상에 잠긴 싯다르타 태자의 모습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집니다.</p>	<p>이 보살상은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무릎 위에 얹고 앉은 모양’을 의미하는 ‘반가’에 ‘생각에 잠긴 모습’을 의미하는 ‘사유’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반가사유상’이다. 미륵 혹은 인간의 생로병사를 고민하는 모습의 싯다르타 태자의 모습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1	관음보살	국보 제183호 금동 관음보살상은 장신구, 천의, 영락장식 등을 전면에 걸쳐 섬세하게 조각하였으나 국보 제184호 관음보살상에 비해 입체감은 떨어진다. 온화한 표정의 얼굴에 늘씬하고 유연한 몸매, 신체에 밀착된 법의 표현 등에서 관능적인 여성미가 느껴지는 듯 하다. 오른쪽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허리를 왼쪽으로 살짝 틀어 전체적으로 우아한 삼곡 자세를 보인다. 목걸이와 X자자로 교차된 영락장식, 양팔을 감싸고 대좌까지 내려오는 천의가 울동감과 함께 세련미를 더해준다. 전체적인 자태와 조각 양식이 백제 지역에서 출토된 보살상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 7세기대에 제작된 백제 보살상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국보 제183호 금동 관음보살상은 국보 제184호 관음보살상에 비해 입체감은 부족합니다. 오른쪽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허리를 왼쪽으로 살짝 틀어 우아한 자세를 보입니다. 조각 양식이 백제 지역에서 출토된 보살상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 7세기 대에 제작된 백제 보살상으로도 추정합니다.	이것은 국보 제183호이다. 백제 지역에서 발견된 보살상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7세기에 제작된 백제 보살상으로 추정한다. 이것은 국보 제184호와 비교해 입체감이 부족하다. 오른쪽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허리를 왼쪽으로 살짝 틀어 우아한 자세를 보인다.	
22	관음보살	국보 184호 금동 관음보살상은 광배와 대좌는 남아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남성적인 풍모, 전면全面에 걸쳐져 있는 화려한 장신구, 천의와 영락장식, 신체와 분리한 조각 등을 볼 때 우리나라 금동불에서는 보기 드문 예이다. 타원형의 꽃장식이 있는 보관 중앙에 좌상坐像의 화불化佛이 있다. 머리카락도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화려하고 복잡한 장식의 입체감이 돋보이는 앞면과 달리, 뒷면은 입체감은 덜하나 각 부분을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오른손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 영락을 살짝 쥐었다. 왼손은 가슴까지 올려 정병을 들고 있었던 듯 하나 결실되어 알 수 없다.	국보 제184호 금동 관음보살상은 남성적인 풍모와 전면의 화려한 장신구, 천의와 영락 장식이 특징입니다. 보관 중앙에 좌상의 화불이 있습니다. 오른손은 영락을 살짝 쥐었습니다. 왼손은 가슴까지 올려 정병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국보 제184호이다. 남성적인 풍채와 용모, 화려한 장신구, 영락 장식(몸에 달아 장식한 것)이 특징이다. 정면 원형 테두리 안에 화불(化佛)이 새겨져 있다. 오른손은 영락을 살짝 쥐고 있으며 왼손은 가슴까지 올려 정병(병)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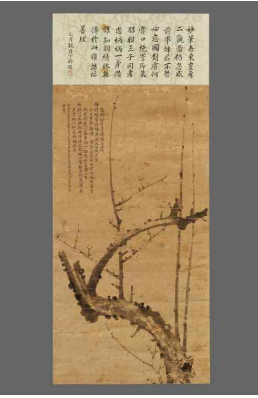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3	부처	<p>국보 제182호 금동불입상은 통일신라시대 금동불로는 비교적 큰 편에 속한다. 머리는 나발螺髮에 육계가 큼직하다. 얼굴은 신체에 비해 크고 양감이 돋보인다. 두 눈은 지그시 감아 명상에 잠긴 듯하다. 두 손은 시무외인과 여원인을 취하였다.</p> <p>통견의 대의는 ‘U’ 자형의 주름을 만들면서 일정하게 내려오다가 양 다리에서 나누어져 무릎 아래까지 이어진다. 대좌는 현재 전하지 않는다. 발 아래에 대좌에 꽃아 연결하였던 축이 남아있다. 뒷면은 도금이 되어 있으나 세부를 조각하지 않았다. 주조 시 내부에 채워져 있던 흙을 빼내기 위한 구멍이 머리·등·무릎의 세 부분에 뚫려 있다. 신체에 비해 작은 손, 몸에 밀착시킨 대의, 옷주름 표현, 속이 완전히 비게 만든 중공식中空式 주조기법 등으로 볼 때 불상 제작 시기는 8세기 초로 추정된다.</p>	<p>머리는 나발[소라 껍데기 모양의 부처의 머리털]에 육계[정수리에 솟아있는 살집]가 큼직합니다. 얼굴은 신체에 비해 크고 양감이 풍성합니다. 두 눈은 지그시 감아 명상에 잠긴 듯하고 두 손은 시무외인과 여원인을 취했습니다. 뒷면은 주조할 때 내부에 채워져 있던 흙을 빼내기 위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p>	<p>이것은 국보 제182호이다. 부처의 머리는 나발(소라 껍데기 모양)에 육계(정수리에 솟아있는 살집)가 크게 있다. 얼굴은 신체에 비해 크고 양감(실제감과 입체감을 표현하는 느낌)이 돋보인다. 두 눈은 감아 명상을 하는 듯하고 두 손은 시무외인과 여원인을 취하고 있다. 뒷면에는 내부에 있던 흙을 빼내기 위한 세 개의 구멍이 보인다.</p>	
24	석사자	<p>의성 관덕동 삼층석탑 기단 모서리에 있던 석사자상이다. 원래는 4점이 있었으나 1939년에 2점은 도난당하였다. 사자는 불법을 지키는 수호상이다. 불상의 대좌나 탑, 석등, 승탑 등 불교와 관련된 석조물에 많이 보인다. 관덕동 석사자상은 새끼를 품고 있는 사자상으로 인해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암사자는 마치 경계하는 듯이 고개를 들어 새끼사자를 품고 젖을 먹이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수사자는 앞다리를 곧게 뻗고 머리를 왼쪽으로 향한 채 입을 벌려 힘찬 자세를 취하였다. 뒷면에는 갈기와 왼쪽으로 말려 올라간 꼬리가 잘 표현되어 있다. 관덕동 삼층석탑의 조성 시기를 근거로, 이 사자상도 9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p>	<p>이 석사자상은 의성 관덕동 삼층 석탑 기단 모서리에 있던 것입니다. 원래는 4점이 있었습니다. 암사자는 새끼 사자를 품고 젖을 먹이는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자는 앞다리를 곧게 뻗고 입을 벌려 힘찬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p>	<p>이것은 보물 제202호로 석사자상이다. 발견된 곳은 의성 관덕동 삼층 석탑의 기단 모서리이다. 원래는 4점이 있었지만 현재는 2점만 남아 있다. 암사자는 새끼 사자를 품고 젖을 먹고 있는 모습이다. 수사자는 앞다리를 곧게 뻗고 입을 벌려 힘찬 모습을 하고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5	아미타불	<p>다.</p> <p>1910년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할 당시, 칠곡군 가산산성架山城 천주사에 모셔져 있었다. 1912년 이왕가박물관에서 구입하여 소장하게 된 조선시대 불상이다. . 불상 안에서 나온 복장腹藏 기록에 의하면 1482년 정수사正水寺에서 관음보살, 지장보살과 함께 제작한 아미타불이다. 1729년에 팔공산의 대장사大長寺 운수암雲水庵에서 수리하였다고 한다(자세히 보기 참조). 정확한 제작연도를 알 수 있어 조선 전기 불상 연구에 있어 중요한 기준작품이다. 조사 당시, 오른쪽 손가락과 나발은 일부분만 남아 있었으나, 최근 보존 처리를 거쳐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p> <p>결가부좌한 자세에 양손은 각각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하생중품인을 하였다. 신체에 비해 얼굴은 작은 반면, 상체가 매우 길고 무릎 폭이 좁아 불안정하고 세장한 모습이다. 대의를 양쪽 어깨에 걸친 상태에서 오른팔을 소매자락에서 빼낸 듯한 착의방식은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보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부터 일 반화된다.</p>	<p>이 아미타불상 안에서 나온 복장의 기록에 의하면 1482년 정수사에서 관음보살상, 지장보살상과 함께 제작된 아미타불상입니다. 1729년 팔공산의 대장사 운수암에서 수리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제작연도를 알 수 있어 조선 전기의 불상 연구에 중요한 기준 작품이 됩니다.</p>	<p>1482년에 정수사에서 관음보살상, 지장보살상과 함께 제작된 아미타불상이다. 1729년 팔공산 대장사 운수암에서 수리했다고 한다.</p> <p>제작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조선 전기 불상 연구에 중요한 기준이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6	송림사 오층전탑 사리갖춤	<p>1959년 송림사 오층전탑을 해체 수리할 때 2층 탑신의 거북모양 돌상자[石函] 안에서 사리기와 여러 공양물이 나왔다. 화려한 집 모양[殿閣形] 사리기는 금동 판을 오려서 만들었다. 네모난 기단 위에 난간을 세우고 네 모서리에 기둥을 세워 보개寶蓋를 얹었다. 난간 안쪽 중앙에는 여섯 개의 금동계 꽃잎을 못으로 고정했다. 연꽃 모양 받침대를 만들고 그 위에 녹색 유리로 만든 잔과 사리병을 안치하였다.</p> <p>유리잔은 표면에 유리로 만든 고리 모양을 상·중·하단에 엇갈리게 붙여 장식하였다. 사리병은 잔과 같은 재질에 목이 좁고 길다. 몸체가 둥근 형태로 보주형寶珠形의 뚜껑이 있다. 사리기와 함께 돌상자 안에는 금제동심원륜金製同心圓輪과 유리구슬, 수정, 곱은옥, 대롱옥, 반지 등이 들어 있었다. 백제의 은제관식銀製冠飾과 유사한 은제도금관식銀製鍍金冠飾이 돌상자 벽에 기대어 있었다. 이 밖에 고려 시대에 전탑을 수리하면서 봉안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감청자사리합이 5층 옥개석 윗면에서 발견되었다.</p>	<p>1959년 송림사 오층 전탑을 해체하여 수리할 때 2층 탑신의 거북 모양 돌상자 안에서 사리기와 여러 공양물이 나왔습니다. 사리기와 함께 돌상자 안에는 금제동심원륜과 유리구슬, 수정, 곱은옥, 대롱옥, 반지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p>	<p>1959년 송림사 오층 전탑을 해체하여 수리하였다.</p> <p>이때 2층 탑신의 거북 모양 돌상자 안에서 사리기와 여러 공양물이 나왔다. 돌상자 안에는 사리기, 금제동심원륜, 유리구슬, 수정, 곱은옥, 대롱옥, 반지 등이 들어있었다.</p>	
27	갈항사 동서삼층 석탑 사리갖춤	<p>사리기는 동탑과 서탑 모두 동제銅製항아리 속에 금동병을 넣은 상태로, 기단 아래의 가공석加工石에 마련된 사리공舍利孔 안에 안치되어 있었다. 동탑의 상층기단上層基壇 면석面石에 천보 17년(758)에 언적법사言寂法師와 두 누이가 함께 발원하여 탑을 건립하였다는 기록이 새겨져 있다. 이 사리기도 탑 건립 때 봉안한 것으로 추정된다.</p>	<p>사리를 넣어두는 사리기는 동탑과 서탑 모두 동제(銅製) 항아리 속에 금동 병을 넣은 상태였습니다. 동탑 상층 기단의 면석에 천보 17년(758)에 언적법사와 두 누이가 발원하여 탑을 건립했다는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사리기도 탑 건립 때 봉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p>	<p>사리를 넣어두는 사리기이다.</p> <p>동탑과 서탑 모두 동제 항아리 속에 금동 병을 넣은 상태였다.</p> <p>동탑 상층 기단의 면석에 천보 17년(758)에 언적법사와 두 누이가 함께 발원(부처에게 소원을 빌) 하여 탑을 건립했다는 기록이 새겨져 있다.</p> <p>이 사리기도 탑 건립 때 봉안한 것으로 추정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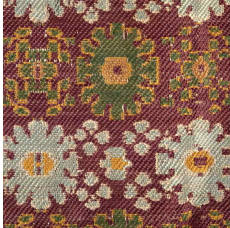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8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사리갓춤	신라 44대 민애왕閔哀王(838~839)을 추모하여 건립한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에 봉안되었던 금동제 사방불판金銅製四方佛板이다. 1966년에 곱돌사리항아리[蠟石製舍利壺]와 함께 도난당했다가 되찾았다. 금동판은 모두 분리되어 있었다. 좌우 가장자리의 구멍으로 보아 상자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각 판에는 선각線刻과 타출打出로 사방불四方佛이 새겨져 있다. 모두 연화대좌蓮花臺座 위에 결가부좌한 불좌상佛坐像을 중심으로 좌우에 보살입상菩薩立像이 배치된 삼존 형식이다. 약그릇을 든 약사불은 동쪽 면, 지권인을 하고 보관을 쓴 비로자나불(사진)은 북쪽 면, 편단우견偏袒右肩의 범의를 입고 향마촉지인을 한 석가불은 남쪽 면, 아미타불로 짐작되는 합장을 한 부처는 서쪽 면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금동판은 가장자리의 구멍으로 보아 상자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각 판에는 사방불이 새겨져 있습니다. 약그릇을 든 약사불은 동쪽 면, 지권인을 하고 보관을 쓴 비로자나불은 북쪽 면, 향마촉지인을 한 석가불은 남쪽 면, 나머지 한 부처는 서쪽 면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금동제 사방불판(4방향 불상판)이다. 금동판의 가장자리 구멍을 보아 상자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각 판에는 사방불이 새겨져 있다. 약그릇을 든 약사불은 동쪽, 지권인(두손 모두 엄지손가락을 손안에 넣고 주먹을 쥔 다음, 왼손 집게손가락을 펴서 오른손으로 감싸 쥔 모양)을 하고 보관을 쓴 비로자나불은 북쪽, 향마촉지인(악마를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왼손은 무릎 위에 두고 오른손은 내리어 땅을 가리킴)을 한 석가불은 남쪽, 나머지 한 부처는 서쪽 면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29	금동 용머리 장식	절 입구에서 사찰의 소속을 표시하거나 법회法會 때 거는 깃발[幡]을 매다는 시설인 보당寶幢 끝에 올렸던 용머리장식이다. 용머리장식은 불법을 수호하고 불보살의 공덕을 찬양하고 경전을 세상에 유포하여 인간 세상에 정법正法을 펼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입 안에 물고 있는 커다란 여의주 뒤에 도르래가 있다. 턱 아래에도 구멍을 뚫어 쇠줄을 걸어 깃발을 쉽게 오르내리도록 고안하였다. 입술과 눈 윗부분에는 운기문雲氣文을 새겨 넣었다. 얼굴 주위의 갈기는 바람에 휘날리듯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전면全面에 걸쳐 선새김 기법으로 비늘과 털을 매우 정교하게 채워 넣어 장식미를 더하였다.	절 입구에 사찰의 소속을 표시하거나 법회 때 거는 깃발을 매다는 시설인 보당 끝에 올렸던 용머리 장식입니다. 입안의 커다란 여의주 뒤에 도르래가 있습니다. 턱 아래에도 구멍을 뚫어 쇠줄은 건 다음 깃발을 쉽게 오르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절 입구에 사찰의 소속을 표시하거나 법회 때 거는 깃발을 매다는 시설인 보당 끝에 올렸던 용머리 장식이다. 입안의 커다란 여의주 뒤에 도르래가 있다. 턱 아래에도 구멍을 뚫어 쇠줄을 걸어 깃발을 쉽게 오르내리도록 만들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0	청동범종	<p>범종은 사찰에서 시간을 알리거나 의식을 행할 때 사용하는 범음구梵音具이다. 용모양 고리 부분(龍鈕)은 종을 매다는 부분이다. 그 뒷부분의 원통 모양 관(音筒)은 우리나라 종의 특징이다. 종의 몸체 위와 아래에는 여러 무늬가 표현된 문양 띠(上帶, 下帶)가 있다. 윗부분의 문양띠는 연곽대蓮廓帶라 부른다. 각 연곽 안에 9개의 연봉오리를 표현하였다. 몸체의 아랫부분에는 종을 치는 자리(당좌撞座)를 마련하였다.</p> <p>안동 신세동 범종은 종신 전면에 걸쳐 화려한 구슬 장식의 영락을 장막처럼 드리운 특이한 형식이다. 특히 한국의 범종은 종의 몸통이 선으로 구획된 중국과 일본의 종과 매우 다르다.</p>	<p>범종은 사찰에서 시간을 알리거나 의식을 행할 때 사용하는 범음구 중 하나입니다. 용 모양 고리 부분은 종을 매다는 부분입니다. 그 뒷부분의 원통 모양 관은 우리나라 종의 특징입니다. 안동 신세동 범종은 종신 전면에 걸쳐 화려한 구슬 장식의 영락을 장막처럼 드리운 특이한 형식입니다.</p>	<p>안동 신세동 범종이다.</p> <p>종신 전면에 걸쳐 화려한 영락(구슬을 꿰어 만든 장신구)을 장막처럼 드리운 특이한 모양이다.</p> <p>범종은 사찰에서 시간을 알리거나 의식을 행할 때 사용하는 범음구 중 하나이다.</p> <p>용모양 고리는 종을 매다는 부분이다.</p> <p>그 뒷부분의 원통모양 관은 우리나라 종의 특징이다.</p>	
31	덕산사 쇄북	<p>쇠북은 사찰에서 공양시간을 알리거나 사람들을 모을 때 사용한다. 금고金鼓·금구禁口·반자半子 등으로도 불린다. 앞면(고면鼓面)은 용기동심원隆起同心圓으로 당좌구撞座區·중구中區·외구外區의 세 부분으로 구획하였다. 당좌구에는 원을 그려 안쪽에 잎과 자방子房을 돌출되게 새겨 넣었다. 가장자리에는 도식화한 꽃무늬를 배치하였다. 중구에는 운기문運氣文을 채워 넣었다. 옆면에는 두 개의 고리가 있고 명문이 새겨져 있다.</p> <p>명문에는 강주剛州의 노부인 우씨가 1143년 발원하여 제작했다고 적고 있다. 경상북도 영천 지역의 옛 지명이 강주이고 『세종실록지리지』에 우禹씨를 강주의 토성土姓으로 지칭하고 있어, 경상북도 영천 지방 세력의 후원으로 제작된 쇄북임을 알 수 있다.</p>	<p>쇠북은 사찰에서 공양 시간을 알리거나 사람들을 모을 때 사용합니다. 당좌구는 쇄북을 치는 부분으로 원을 그리고 안쪽에 잎과 자방이 튀어나오게 새겨 넣었습니다. 가장자리에는 도식화된 꽃무늬를 배치했습니다. 옆면에는 두 개의 고리가 있습니다.</p>	<p>쇠북이다.</p> <p>쇠북은 사찰에서 공양시간을 알리거나 사람들을 모을 때 사용한다.</p> <p>당좌구는 쇄북을 치는 부분으로, 원을 그리고 안쪽에 잎과 자방이 튀어나오게 새겨 넣었다.</p> <p>가장자리에는 일정한 형식의 꽃무늬를 배치했다.</p> <p>옆면에는 두 개의 고리가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2	경상	<p>경상 앞면에는 관세음보살이 보타락가산에 앉아 있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뒷면에는 탑을 들고 있는 비사문천毘沙門天이 선각으로 묘사되어 있다. 앞면의 보살좌상 하단에는 관세음보살을 불러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중생의 모습이 선각으로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 중생의 모습은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의 내용을 표현한 것이다. 주로 경전의 개송[Gatha]을 묘사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모습은 고려 말~조선 초 『묘법연화경』 권7 사경화, <수월관음도>에 등장한다. 따라서 이 작품은 고려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p>	<p>거울 앞면에는 관세음보살이 앉아 있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뒷면에는 탑을 들고 있는 비사문천이 새겨져 있습니다. 앞면의 보살 좌상 하단에는 관세음보살을 불러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중생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p>	<p>거울로, 앞면에는 관세음보살이 앉아 있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뒷면에는 탑을 들고 있는 비사문천(사천왕의 하나)이 새겨져 있다. 앞면의 보살 좌상 하단에 관세음보살을 불러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중생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p>	
33	오달제가 그린 묵매도	<p>윤집尹集, 홍익한洪翼漢과 함께 삼학사三學士로 불리는 오달제(1609~1637)의 매화 그림이다. 그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의 화의和議를 반대하였다. 결국 청나라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였다. 상단에 오언 유吳彦儒가 쓴 숙중(재위 1674~1720)과 영조(재위 1725~1776)의 어제시御製詩가 있다. 매화는 조금 진한 담묵에 물골沒骨(윤곽선 없이 그림)로 그렸다. 기교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능숙한 필력으로 획을 그어 서릿발 같은 기백을 역력히 나타낸다.</p>	<p>윤집, 홍익한과 함께 ‘삼학사’로 불리는 오달제(1609~1637)의 매화 그림입니다. 오달제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끌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매화는 조금 진한 담묵에 윤곽선 없이 그렸습니다. 능숙한 필력으로 획을 그어 서릿발 같은 기백이 역력히 나타납니다.</p>	<p>오달제가 그린 매화 그림이다. 오달제는 윤집, 홍익한과 함께 ‘삼학사’로 불린다. 삼학사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끌려가 죽임을 당했다. 매화는 조금 진한 담묵에 윤곽선이 없이 그렸다. 능숙한 필력으로 획을 그어 서릿발 같은 기백이 역력히 나타난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4	오륜행실도	<p>유교의 기본 윤리 덕목을 보급하기 위하여 1797년에 정조正祖의 명으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와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를 합하여 수정·편찬한 책이다. 효자 33인, 충신 35인, 열녀 35인, 우애가 극진했던 24인, 종족宗族 간에 화목한 7인, 친구의 도리를 지킨 11인, 사제師弟의 도리를 다한 11인 등 총 150여 명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 인물은 대부분 중국인이지만 조선인도 효자 4인, 충신 7인, 열녀 6인 등 총 17인이 포함되어 있다.</p> <p>『오륜행실도』는 하나의 이야기에 삽화, 한문 해설, 한글 번역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삽화 화면 구성의 특징은 이야기의 핵심 내용을 담은 한 장면만 묘사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삼강행실도』 등이 동도이시법同圖異時法(한 화면에 여러 사건을 동시에 표현한 것)에 따라 한 화면에 많은 장면이 표현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p>	<p>1787년에 정조의 명으로 『삼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를 합하여 수정, 편찬한 책입니다. 구성 인물은 대부분 중국인이지만 조선인도 효자 4인, 충신 7인, 열녀 6인 등 총 17인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륜행실도』는 하나의 이야기에 삽화와 한문 해설, 한글 번역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p>	<p>이 책은 『오륜행실도』이다.</p> <p>1787년 정조의 명령으로 『삼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를 합하여 수정, 편찬한 책이다.</p> <p>구성 인물은 대부분 중국인이지만 조선인도 효자 4인, 충신 7인, 열녀 6인으로 총 17인 포함되었다.</p> <p>『오륜행실도』는 하나의 이야기에 삽화, 한문해설, 한글번역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p>	
35	마패	<p>암행어사를 비롯한 관리들이 지방 출장 때에 역驛에서 말을 징발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신표信標이다. 구리로 만든 둥근 패로 지름이 10cm 정도이다. 한 면에는 연호, 연월일과 발행처인 ‘상서원尙瑞院’을 새겼다. 다른 면에는 1마리부터 10마리까지의 말을 새겨 넣었다. 이 마패는 ‘천계사년天啓四年’ ‘옹정원년雍正元年’의 연호가 새겨져 있다. 각각 1624년과 1723년에 발급한 것이다.</p>	<p>암행어사를 비롯한 관리들이 지방 출장 때에 역에서 말을 징발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신표입니다. 한 면에는 연호, 연월일과 발행처인 ‘상서원’을 새겼으며, 다른 면에는 1마리부터 10마리까지의 말을 새겨 넣었습니다.</p>	<p>이것은 ‘마패’이다.</p> <p>마패는 암행어사를 비롯한 관리들이 지방 출장 때 역에서 말을 징발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신표이다.</p> <p>한 면에는 연호, 연월일과 발행처인 ‘상서원’을 새겼고, 다른 면에는 1마리부터 5마리까지의 말을 새겨 넣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6	서매수 초상	<p>서매수(1731~1818)는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달성達城, 자는 덕이德而, 호는 당헌巖軒이다. 영조의 비인 정성왕후 집안 출신이며 이조참의를 지낸 서종섭徐宗燮의 손자이다. 음서로 벼슬을 얻었으나 1787년에 늦은 나이로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했다.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쳐 1807년에는 영의정에 올랐다.</p> <p>18세기 말의 전신관복 초상화의 전형적인 예이다. 의자에는 표범 가죽[豹皮]이 덮여 있다. 족좌대 위에는 황문석이 깔려 있다. 코, 주름, 눈 주위 등을 하나의 윤곽선이 아닌 여러 번의 잔 붓질로 표현했다. 그 주위에 음영을 주었다. 콧등에 보이는 수두 자국, 터럭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수염 등에 보이는 세밀한 표현, 족좌대의 안정된 투시감 등 매우 사실적인 초상화이다. 초상화의 오른쪽 상단에 유한준·俞漢雋 漢雋(1732~1811)의 제발題跋(화폭에 그림을 그린 취지나 목적을 적은 글)이 있다. 서매수가 62세 되던 해인 1792년에 제작한 것이다.</p>	<p>서매수(1731~1818)는 조선 후기의 문신입니다. 서매수의 초상은 18세기 말 전신관복 초상화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코, 주름, 눈 주위 등을 하나의 윤곽선이 아닌 여러 번의 잔 붓질로 표현했습니다. 콧등의 수두 자국, 터럭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수염 등에 보이는 세밀한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p>	<p>조선후기 문신인 서매수의 초상이다. 이 초상은 18세기 말 전신관복 초상화의 전형적인 예이다. 코, 주름, 눈 주위 등을 하나의 윤곽선이 아닌 여러 번의 잔 붓질로 표현했다. 콧등의 수두 자국, 털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수염 등 세밀한 표현을 볼 수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7	보상화무늬 금직물	<p>금錦은 염색한 여러 가지 색실을 사용하여 제직한 무늬가 있는 직물이다. 옷감을 짜는 방법에 따라 경금經錦과 위금緯錦으로 나뉜다. 경금은 날실[經絲]에 걸린 실의 색 수에 따라 직물의 무늬가 표현된다. 날실에 색상이 많아지면 실의 밀도가 높아져서 직물을 제직하기가 힘든 단점이 있다. 위금은 이러한 경금의 단점을 보완하여 발전시킨 제직기법이다. 위금의 제작방법은 경금과 반대로 씨실[緯絲]에 색실을 사용하여 무늬를 만든다. 따라서 위금은 경금보다 훨씬 다양한 색으로 무늬를 만들 수 있다.</p> <p>봉서리 탑에서 발견된 이 금직물은 유일하게 남아 있는 위금기법의 고려시대 직물이다. 자색-황색-녹색, 자색-미색-황색의 3가지 색이 한 조를 이루어 짜여있다. 통일신라시대에 유행한 보상화무늬의 과장된 형태에서 벗어나 단순화된 기하학적 형태가 나타나 있다.</p>	이 금직물은 유일하게 남아 있는 위금기법의 고려시대 직물입니다. 위금 기법은 씨실에 색실을 사용하여 무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금직물은 자색-황색-녹색, 자색-미색-황색의 세 가지 색이 한 조를 이루어 짜여 있습니다.	<p>이것은 고려시대 직물이다.</p> <p>유일하게 남아 있는 위금기법의 직물이다.</p> <p>위금기법은 씨실에 색실을 사용하여 무늬를 만드는 방법이다.</p> <p>이 금직물은 자색-황색-녹색, 자색-미색-황색의 세 가지 색이 한 조를 이루어 짜여 있다.</p>	
38	적의본	<p>왕비와 왕세자비가 국가의 중대한 의식 때 입은 예복(대례복大禮服)이다. 적의가 처음 도입된 것은 고려시대 공민왕 19년(1370)에 명나라 태조 고황제高皇帝가 관복을 사여한 것에서 비롯된다.</p> <p>이 적의본은 적의를 만들기 위한 옷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지를 여러 겹 붙여서 만들었다. 실제 크기와 같으며, 무늬를 그려서 그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했다.</p>	적의는 왕비와 왕세자비가 국가의 중대한 의식 때 입은 대례복입니다. 이 적의본은 적의를 만들기 위한 옷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지를 여러 겹 붙여 만들었습니다. 실제 크기와 같으며 무늬를 그려서 그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p>이것은 적의를 만들기 위한 옷본이다.</p> <p>적의는 왕비와 왕세자비가 국가의 중대한 의식 때 입은 대례복이다.</p> <p>이 적의본은 한지를 여러 겹 붙여 만들었다.</p> <p>실제 크기와 같으며 무늬를 그려서 그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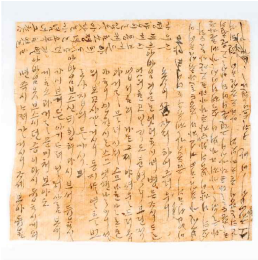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9	단령	<p>단령은 제복祭服, 공복公服과 함께 조선시대 문무백관의 기본적인 관복 중 하나이다. 고려시대 말기인 우왕 12년(1386)에 명나라에 파견된 사신이 명의 황제로부터 하사받아 전해졌고 정몽주가 관복화를 주장하여 받아들여졌다. 그 뒤 명의 영향을 받은 사모紗帽와 단령團領, 품대品帶, 흑화黑靴를 착용하는 단령제도가 시작되었다. 단령은 계급에 따라 색상에 차이가 있었다.</p> <p>『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1품~3품까지는 홍색, 중3품~6품까지는 청색, 7품~9품은 녹색의 단령을 사용하였다. 정조대의 『대전통편大典通編』에서 당하3품 이하의 홍색 단령이 폐지되고 청색과 녹색으로 단일화되었다. 이 단령의 쌍호흉배는 무관 당상관에 해당한다.</p> <p>단령은 관복뿐만 아니라 남자들의 일반적인 예복으로도 사용되었다. 특히 혼례복으로서의 청색단령은 붉은색과 어울려 음양의 조화를 의미한다.</p>	<p>단령은 조선시대 관복입니다. 단령은 계급에 따라 색상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3품부터 6품까지는 청색, 7품부터 9품은 녹색의 단령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단령 가슴 부분에 있는 쌍호흉배는 무관 당상관에 해당합니다. 단령은 관복뿐만 아니라 남자들의 일반적인 예복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p>	<p>이것은 조선시대 관복인 단령이다. 단령은 계급에 따라 색상에 차이가 있다. 중3품부터 6품까지는 청색, 7품부터 9품은 녹색의 단령을 사용했다. 단령 가슴 부분에 있는 쌍호흉배는 무관 당상관에 해당한다. 단령은 관복 뿐 아니라 남자들의 일반적인 예복으로도 사용되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0	연꽃넙쿨 무늬 장옷	<p>장옷은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여성들이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사용하던 쓰개이다. 조선시대 초기의 장옷은 쓰개가 아니라 겹옷인 외투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두툼한 솜을 댄 점, 화려한 직물을 사용한 점, 그리고 고름의 위치를 보면 조선 후기의 장옷과는 차이가 있다.</p> <p>장옷 구성은 겹길과 안길이 좌우대칭형이다. 겨드랑이 아래 조그만 삼각형의 무가 달려있고 소매의 끝동에는 흰색으로 넓게 대었다. 삼각형의 무는 팔을 움직이는데 편하게 부착되었다. 일반적으로 여자의 옷에는 꽃무늬가 있는 옷감을 많이 사용했다. 두 종류의 연꽃을 한 줄씩 엇갈려 배치하고 C형의 줄기가 주위를 감싸고 있다. 꽃 사이의 여백에는 방승·산호·보주·서각 등의 보배무늬를 넣었다.</p>	<p>장옷은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여성들이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해 사용하던 쓰개입니다. 장옷의 구성은 겹 길과 안 길이가 좌우대칭형입니다. 소매의 끝동에는 흰색으로 넓게 대었습니다. 꽃 사이의 여백에는 방승, 산호, 보주, 서각 등의 보배무늬를 넣었습니다.</p>	<p>이것은 장옷이다.</p> <p>장옷은 조선시대 여성들이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해 사용하던 쓰개이다. 장옷은 겹 길과 안길이 좌우대칭형이다. 소매의 끝동에는 흰색으로 넓게 대었다. 꽃 사이의 여백에는 방승, 산호, 보주, 서각 등의 보배무늬를 넣었다.</p>	
41	양관	<p>조복과 함께 착용하는 것이다. 관의 앞면 중앙부분에 양(梁)이라고 하는 세로선이 있어 양관梁冠 혹은 금관金冠이라고도 한다. 관의 머리둘레와 뒷부분은 당초무늬가 새겨져 있고 금니金泥를 칠하였다. 품계에 따라 양의 수가 달라지며, 이 양관은 5량관으로 1품에 해당된다.</p>	<p>양관은 관원이 조정에 나아가 하례할 때 입는 조복과 함께 착용하는 것입니다. 관의 앞면 중앙 부분에 ‘양(梁)’이라고 하는 세로 선이 있어 양관 이라고 합니다. 관의 머리둘레와 뒷부분은 당초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품계에 따라 양의 수가 달라지며, 이 양관은 오량관으로 1 품에 해당합니다.</p>	<p>이것은 양관이다.</p> <p>양관은 관원이 조정에 나가 하례할 때 입는 조복과 함께 착용하는 것이다. 관의 앞면 중앙에 ‘양’ 이라고 하는 세로 선이 있어서 ‘양관’ 이라고 한다. 관의 머리둘레와 뒷부분은 당초무늬가 새겨져 있다. 품계에 따라 양의 수가 달라지며, 이 양관은 오량관으로 1품에 해당한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2	조복	문무백관文武百官들이 나라의 제사와 경축일, 정월 초하루, 동지 등 국가의 중요한 행사나 명절 때 입는 예복禮服이다. 금관金冠이라 불리는 양관梁冠을 같이 착용했기 때문에 금관조복金冠朝服이라 불리기도 한다. 품계에 따라 양관의 양梁의 수, 후수의 무늬, 환環의 재료, 대帶와 홀의 재료, 패옥의 색을 엄격하게 구분했다.	문무백관들이 국가의 중요한 행사나 명절 때 입는 예복입니다. 금관이라 불리는 양관을 함께 착용했기 때문에 ‘금관조복’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품계에 따라 양관의 양梁의 수, 후수의 무늬, 환環의 재료, 대와 홀의 재료, 패옥의 색을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조복이다. 문무백관들이 국가의 중요한 행사나 명절 때 입는 예복이다. 금관이라 불리는 양관을 함께 착용해서 ‘금관조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품계에 따라 양관의 양의 수, 후수(예복 뒤에 드리우는 띠)의 무늬, 환(후수에 달아놓는 것)의 재료, 대(허대)와 홀의 재료, 패옥(좌우에 늘어뜨림)의 색을 엄격히 구분했다.	
43	후수	문무백관文武百官의 조복朝服과 제복祭服 뒤에 늘이는 장식이다. 품계에 따라 무늬, 색실의 수, 환環의 재료가 다르다. 뒤에 늘어뜨린다고 하여 후수後綬라 부르며, 대대大帶에 고정하여 허리에 둘렀다. 후수는 붉은색 비단 바탕에 청, 황, 백색의 순서로 학을 수놓고 2개의 금환金環을 달았다. 1·2품에 해당하는 관리가 착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무백관의 조복과 제복 뒤에 늘이는 장식입니다. 품계에 따라 무늬, 색실의 수, 환의 재료가 다릅니다. 뒤에 늘어뜨린다고 하여 후수라고 부르며, 대대에 고정하여 허리에 둘렀습니다. 후수는 붉은 비단 바탕에 청색, 황색, 백색의 순서로 학을 수놓고 2개의 금고리를 달았습니다.	문무백관의 조복과 제복 뒤에 늘이는 장식이다. 품계에 따라 무늬, 색실의 수, 환의 재료가 다르다. 뒤에 늘어뜨린다고 하여 ‘후수’라고 불린다.	
44	떨잠	왕비를 비롯하여 상류계급의 여인들이 예복을 입고 큰머리나 어여머리를 할 때 머리에 꽂는 장신구이다. 꽃잎 모양을 조각한 옥판에 진주, 산호, 밀화를 꽃 모양으로 부착하였고 칠보七寶로 꽃잎을 장식하였다. 금실로 가늘게 용수철을 만들고 그 위에 꽃과 나비, 새 등의 모양과 진주를 붙여 움직일 때마다 용수철 위의 나비, 새 모양의 장식품들이 흔들리도록 했다.	왕비를 비롯하여 상류계급의 여인들이 예복을 입고 큰머리나 어여머리를 할 때 머리에 꽂는 장신구입니다. 금실로 가늘게 용수철을 만들고 그 위에 꽃과 나비, 새 등의 모양과 진주를 붙여 움직일 때마다 용수철 위의 나비, 새 모양의 장식품들이 흔들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떨잠이다. 떨잠은 왕비를 비롯해 상류계급의 여인들이 예복을 입고 큰머리나 어여머리를 할 때 머리에 꽂는 장신구이다. 금실로 가늘게 용수철을 만들고 그 위에 꽃과 나비, 새 등의 모양과 진주를 붙여 움직일 때마다 용수철 위의 나비, 새 모양의 장식품들이 흔들리게 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5	비녀	<p>왕실에서 큰 머리 위에 꽂았던 예장용 비녀이다. 용비녀도 봉황비녀와 마찬가지로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였으나, 조선 후기에는 민가에서도 혼례식 때 한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보통의 비녀보다 길이가 매우 길어 땀기를 양쪽에 감아 앞으로 늘이기도 했다.</p> <p>밀화비녀는 왕실이나 반가에서 예장용으로 사용했다. 은으로 된 몸체에 밀화로 비녀머리를 장식한 화려한 비녀이다. 밀화 아래 부분에 파란색으로 장식한 나비와 연꽃 봉오리, 넝쿨무늬, ‘복福’자를 새겨 행복을 기원하였다.</p>	<p>왕실에서 큰 머리 위에 꽂았던 예장용 비녀입니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민가에서도 혼례식 때 한하여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밀화 비녀는 아래 부분에 파란색으로 장식한 나비와 연꽃 봉오리, 넝쿨무늬, ‘복’ (福)자를 새겨 행복을 기원했습니다.</p>	<p>왕실에서 큰 머리 위에 꽂은 예장용 비녀이다.</p> <p>조선후기에는 민가에서도 혼례식에 한해 사용하도록 했다.</p> <p>밀화(호박) 비녀는 아래 부분에 파란색으로 장식한 나비와 연꽃봉오리, 넝쿨무늬, ‘복’자를 새겨 행복을 기원했다.</p>	
46	홍선대원군 기린흉배	<p>홍선대원군이 착용하던 기린흉배이다. 구름무늬 비단 바탕에 금실로 수놓았다. 기린은 봉황, 거북이, 용과 함께 영험한 동물의 상징이다. 기린은 상상의 동물로 얼굴은 용을 닮고 사슴과 유사하며 몸에 비늘이 있다.</p> <p>흉배는 조선시대 왕과 문무백관의 상복에 부착하는 것으로 품계에 따라 무늬를 다르게 한다. 상하계급을 구분해 주기도 하지만, 자수의 섬세함과 다양한 무늬는 옷을 화려하게 장식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p> <p>특히 왕실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補라고 한다. 왕과 왕세자는 용무늬를 수놓은 원형의 보를 곤룡포의 가슴, 등, 어깨 네 군데에 붙였다. 평상시에 입는 단령은 사각형의 흉배를 가슴과 등에 붙였다. 흉배의 무늬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선 초기에는 주로 옷감에 직접 직조하는 방식을 썼으나 후기부터는 대부분 자수 흉배가 사용되었다.</p>	<p>홍선대원군이 착용하던 기린흉배입니다. 기린은 상상의 동물로 얼굴은 용을 닮고 몸은 사슴과 유사하며 몸에 비늘이 있습니다. 왕실에서 사용하는 흉배를 보(補)라고 합니다. 왕과 왕세자는 용무늬를 수놓은 원형의 보를 곤룡포의 가슴, 등, 양쪽 어깨에 붙였습니다.</p>	<p>홍선대원군이 착용하던 기린흉배이다. 흉배는 조선시대 문무백관의 상복에 부착하는 것으로 품계에 따라 무늬가 다르다.</p> <p>기린은 상상의 동물로 얼굴은 용과 비슷하며 몸에 비늘이 있다.</p> <p>왕실에서 사용하는 흉배를 ‘보’라고 한다.</p> <p>왕과 왕세자는 용무늬를 수놓은 원형의 보를 곤룡포의 가슴, 등, 양쪽 어깨에 붙였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7	까치 두루마리	<p>첫돌이나 명절 때 어린이들이 입는 옷이다. 오방장두루마기라고도 한다. 기본적인 형태는 보통 두루마기와 같으나, 길·섶·소매 등에서 색을 다르게 한 것이 특징이다. 앞섶에는 여러 가지의 색을 조화롭게 배치하고 앞면과 뒷면에는 아기의 복福과 장수를 바라는 다양한 길상吉祥무늬가 수놓아져 있다.</p>	<p>첫돌이나 명절 때 어린이들이 입는 옷입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보통 두루마기와 같으나, 길·섶·소매 등에서 색을 다르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앞면과 뒷면에는 아기의 복과 장수를 바라는 다양한 길상무늬가 수놓아져 있습니다.</p>	<p>이 옷은 까치두루마기이다. 첫돌이나 명절 때 어린이들이 입는 옷이다. 기본 형태는 두루마기와 같으나 길·섶·소매 등의 색을 다르게 한 것이 특징이다. 앞면과 뒷면에 아기의 복과 장수를 바라는 다양한 길상무늬가 수놓아져 있다.</p>	
48	활옷	<p>공주나 왕주 또는 사대부가에서 주로 혼례 때 입던 예복禮服이다. 홍색비단에 다양한 색사色絲로 화려한 길상吉祥무늬를 수놓은 것이 특징이다. 안감은 청색을 대서 만드는데, 이는 음과 양의 조화이며 ‘청·홍색’으로 대표되는 전통 혼례의 색을 반영한다. 소매의 끝에는 백색 한삼을 달며, 소매에 달린 색동은 황색·홍색·청색으로 화려함을 더해준다. 이 활옷은 궁중활옷의 자수 형태로 뒷면 전체에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다. 물결 위에는 연꽃무늬를 4단으로 수놓았으며 좌우에는 백로白鷺 1쌍이 있다. 연꽃 위로는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으로 장식하였다. 양 어깨에는 백복지원百福之源과 이성지합二姓之合의 문자를 수놓아 복福과 장수를 기원하였다.</p>	<p>공주나 왕주 또는 사대부가에서 주로 혼례 때 입던 예복입니다. 소매에 달린 색동은 황색·홍색·청색으로 화려함을 더해줍니다. 뒷면은 연꽃무늬,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으로 장식했습니다. 양 어깨에는 백복지원과 이성지합의 문자를 수놓아 복과 장수를 기원했습니다.</p>	<p>이 옷은 활옷이다. 공주나 왕주 또는 사대부가에서 주로 혼례 때 입던 예복이다. 소매에 황색, 홍색, 청색의 색동을 달아 화려하게 만들었다. 뒷면은 연꽃무늬,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으로 장식했다. 양 어깨에는 ‘백복지원’과 ‘이성지합’의 문자를 수놓아 복과 장수를 기원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9	현풍 곽씨 편지	<p>곽주郭澍(1569~1617)는 현풍 지역의 세족勢族이며 홍의장군紅衣將軍 곽재우郭再祐(1552~1617)의 종질從姪(사촌형제의 아들)이다. 첫째 부인과 사별한 후 진주 하씨河氏(1580~1652)와 결혼하였으나 전처 아들인 이창以昌과의 갈등으로 곽주는 소례, 하씨는 논공에서 각자 떨어져 살았다. 서로 떨어져 생활을 하면서 편지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p> <p>흔히 조선시대의 남성들은 가정사에 무심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곽주가 하씨에게 보낸 편지에는 옷감 생산과 염색, 옷의 제작 여부, 자녀들의 외출복 등 집 안팎의 소소한 일들을 세세하게 적어 놓았다.</p> <p>편지에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가족에 대한 안부, 조선의 선비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도 담겨있다. 편지 내용에는 곽주가 과거 시험을 보러가는 사연이 있지만 벼슬에 오르지는 못했다. 그러나 당시 김굉필金宏弼의 문묘종사文廟從祀 운동과 관련하여 과거를 치지 못하더라도 상소는 꼭 올리고 오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준다.</p> <p>곽주는 가족들의 잔병치레를 걱정하여 근심이 그칠 날이 없었다. 이 편지는 심(학질)을 앓고 있는 정낭(곽주의 딸)이 다 나았는지 묻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낭이는 몸이 허약하여 곽주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었다.</p>	<p>이 편지는 부부인 곽 주(1569~1617)와 진주 하씨(1580~1652)가 서로 떨어져 생활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입니다. 편지에는 곽주가 집 안팎의 일들에 관심을 가졌었다는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편지에는 심<학질>을 앓고 있는 곽주의 딸 정낭이 다 나았는지 묻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p>	<p>이 편지는 부부인 곽주와 진주 하씨가 떨어져 생활하면서 주고받은 것이다. 곽주가 하씨에게 보낸 편지에는 집 안팎의 일들이 세세히 적혀 있다. 이 편지에는 심(학질)을 앓고 있는 곽주의 딸 정낭이 다 나았는지 묻는 내용이 담겨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50	칠곡 정도사 오층석탑	<p>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정도사터에 있던 석탑이다. 1924년 경북궁으로 이전했다가 1994년에 국립대구박물관으로 옮겨왔다.</p> <p>신라 석탑 양식이 남아 있는 고려 초 석탑이다. 원래 5층이었으나 현재는 5층 지붕돌은 남아 있지 않다. 5층 몸돌 위에 상륜부相輪部의 부재인 노반露盤만 놓여 있다(복원도의 노란색 부분).</p> <p>아래층 기단의 각 면에는 안상眼象무늬를 세 구씩 조각했다. 안상무늬 속에는 꽃무늬를 표현하여 장식미를 더했다. 위층 기단 한 면에는 고려 현종 22년인 태평 11년(1031)에 국가의 안녕을 빌기 위하여 건립하였다[特爲 家國恒安兵戈永息百穀豐登敬造 此塔永充 供養 太平十一年辛未正月 日 願]는 명문銘文이 새겨져 있다.</p> <p>1층 몸돌 정면에는 자물쇠가 달린 문이 새겨져 있다. 몸돌 안의 사리공에서 발견된 유합에서는 형지기形止記(석탑 건립 내력을 적은 문서)와 사리를 넣어 두었던 녹유사리병, 청동합 2개가 발견되었다. 형지기는 한자와 이두로 구성되었다. 형지기에는 1019년부터 1031년에 걸쳐 상주계商州界 경산부京山府에 속하였던 약목군若木郡의 향리와 백성들이 발원하여 이 탑을 건립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p>	<p>신라 석탑 양식이 남아 있는 고려 초의 석탑입니다. 사리공에서 발견된 유합에는 형지기와 녹유사리병, 청동합 2개가 발견되었습니다. 형지기에는 1019년부터 1031년에 걸쳐 상주계 경산부에 속했던 약목군의 향리와 백성들이 발원하여 이 탑을 건립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p>	<p>이 탑은 고려 초의 석탑으로 신라 석탑 양식이 남아 있다.</p> <p>사리공에서 발견된 유합에는 형지기(석탑 건립 내력을 적은 문서)와 녹유사리병, 청동합 2개가 발견되었다.</p> <p>형지기에는 1019년부터 1031년에 걸쳐 상주계 경산부에 속했던 약목군의 향리와 백성들이 발원하여 이 탑을 건립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p>	


(4) 국립전주박물관(61편)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	돌칼	<p>지금 보시는 돌칼은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인 진안 여의동 지석묘에서 출토된 간돌검이에요. 이 간돌검은 말 그대로 돌을 갈아서 만든 검으로서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석기 유물인데요, 고인돌에 죽은 자를 매장할 때 함께 묻는 대표적인 물건이랍니다. 간돌검은 검신檢身과 자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검을 잡는 부분이 칼 자루라고 하기엔 너무 작아 보이죠? 이 건 칼과 자루를 묶기 위한 부분으로 ‘슴베’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루 대신 슴베莖를 만들기도 한답니다. 형태는 자루에 홈이 있는 이단병식二段柄式, 자루에 홈이 없는 일단병식一段柄式, 그리고 홈 대신에 돌기를 만든 유절병식有節柄式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간돌검은 실제로 사용한 사용흔이 있고 생활 유적에서 출토되는 예도 있으나, 이와 같이 죽은 이와 함께 묻는 부장용으로 만든 경우도 있답니다. 이러한 간돌검이 출토된 진안 용담댐 고인돌은 기원전 9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무덤에는 간돌검을 비롯하여 돌화살촉, 붉은간토기 등이 함께 묻혀 있습니다.</p>	<p>이 돌칼은 진안 여의동 지석묘에서 발견된 간돌검입니다. 간돌검은 말 그대로 돌을 갈아서 만든 검이며,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석기 유물입니다. 검신(劍身)과 자루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루 대신 칼과 자루를 묶기 위한 ‘슴베’를 만들기도 합니다. 간돌검은 실제로 사용한 흔적이 있고 생활 유적에서 발견되기도 하지만 죽은 이와 함께 묻는 껌묻거리용으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간돌검이 발견된 진안 여의동 지석묘는 기원전 9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덤에는 간돌검을 비롯하여 돌화살촉, 붉은간토기 등이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p>	<p>돌을 갈아서 만든 검이다.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석기 유물이며 진안 여의동 지석묘에서 출토되었다. 이 묘는 기원전 9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검은 실제로 사용한 흔적이 있다. 생활 유적에서 발견되기도 하지만 죽은 이와 함께 묻는 껌묻거리용으로 만들기도 한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	다양한 농공구	우리나라의 초기 농경은 신석기시대 중기 이후에 시작되었는데요, 주로 조, 피, 수수 등 잡곡류를 경작하는 밭농사 중심이었어요. 청동기시대 중기부터는 벼농사가 본격화되면서 각종 농기구가 증가하고 농경이 생산 경제의 기반을 이루었어요.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노동력과 자원을 조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회조직을 필요했기 때문에 농경사회가 형성되었답니다. 청동기시대 중기 무렵에는 본격적인 농경문화 체계를 갖춘 송국리문화松菊里文化가 전북지역에도 전파, 확산되면서 농경문화가 더욱 발전했는데요, 진안의 여의곡·안자동·풍암 그리고 익산 영등동 등에서 출토된 석도와 석부, 유구석부, 석착 등을 통해 석제 농기구를 이용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청동기시대 농경 생활을 엿볼 수 있답니다.	우리의 농경 생활은 신석기 시대 중기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주로 조, 피, 수수 등 잡곡류를 경작하는 밭농사 중심이었습니다. 청동기시대 중기부터는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각종 농기구가 만들어지고 농경이 생산 경제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북 지역의 농경문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안과 익산 등에서 석도와 석부, 유구석부, 석착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석제 농기구를 이용하였던 활발한 청동기 시대 농경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석제 농기구이다. 신석기 시대 중기 이후 농경 생활이 시작되었다. 주로 밭농사로 조, 피, 수수 등을 경작하였다. 청동기 시대 중기부터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농기구가 만들어졌다. 전북의 농경 문화도 마찬가지였다. 진안과 익산 등에서 돌로 만든 다양한 농기구를 발견하였으며 이것으로 청동기 시대 농경 생활을 엿볼 수 있다.	
3	구멍뚫린 그릇	민무늬토기는 청동기시대의 특징적인 토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구멍뚫린 그릇은 민무늬토기의 바닥에 구멍을 하나 뚫은 토기예요. 진안 농산, 부여 송국리, 공주 산의리, 익산 석천리 유적 등에서 출토되었는데요, 이러한 토기는 바닥에 구멍이 있어 곡식을 찌 먹는 조리 용기로 보기도 한답니다.	이 구멍 뚫린 그릇은 청동기 시대 대표 토기인 민무늬토기의 바닥에 구멍을 하나 뚫은 토기입니다. 진안 농산, 부여 송국리, 공주 산의, 익산 석천리 유적 등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구멍 뚫린 그릇은 곡식을 찌 먹는 조리 용도로 만들었다고 추측합니다.	이것은 토기이다. 청동기 시대 대표 토기인 민무늬토기 바닥에 구멍을 하나 뚫은 것이다. 진안, 부여, 공주, 익산 등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은 곡식을 찌 먹는 용도로 만들었다고 추측된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	장수 남양리 유적 출토유물	<p>지금 보시고 계신 유물은 장수 남양리 유적에서 출토된 철기 유물이에요. 장수 남양리 유적은 금강 최상류의 초기철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인데요, 하천의 충적토에서 넷돌 등을 쌓아 올리고 나무널을 넣은 움무덤土壙墓 5기가 발굴되었답니다. 무덤 내부에는 한국식동검, 동모, 동경 등의 청동기 유물과 함께 쇠도끼, 쇠끌 등의 철기 유물과, 관옥, 아가리띠 토기 등이 출토되었는데요, 금강 상류에서 청동기문화에 이은 초기철기문화의 등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이랍니다. 최근 조사된 완주 갈동·신평 유적 등과 더불어 우수한 세형동검문화의 발전과 함께 철기의 도입이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이 고대국가의 형성을 위한 밑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장수 남양리 유적 출토 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초기철기시대에 중국지역으로부터 철기가 들어올 때에도 무기의 주요 구성은 여전히 한국식동검, 투검창, 꺾창 등의 청동기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p>	<p>이 유물들은 장수 남양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금강 최상류 하천에 쌓인 흙에서 움무덤 5기가 발굴되었습니다. 무덤 내부에는 한국식 동검, 동모, 동경 등의 청동기 유물과 함께 쇠도끼 쇠끌 등의 철기 유물, 관옥과 아가리띠 토기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물들을 통해 금강 상류 지역에서 청동기 문화에서 초기 철기 문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초기철기시대에 중국 지역으로부터 철기가 들어왔을 때도 여전히 청동기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p>	<p>장수 남양리에서 발견된 철기로 된 유물이다. 금강 최상류 하천에서 움무덤 5기가 발굴되었다. 무덤 내부에 한국식 동검, 동모(청동 무기), 동경(거울) 등 청동기 유물과 함께 쇠도끼, 쇠끌(망치로 쳐서 철판을 절단하는 도구) 등의 철기 유물, 관옥(관의 앞을 꾸미는 옥)과 아가리 띠 토기 등이 발견되었다. 이것의 발견으로 금강 상류 지역 청동기 문화에서 초기 철기 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 초기 철기 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철기가 들어왔을 때 주요 무기는 여전히 청동기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5	칼 꺾창 거푸집	<p>지금 앞에 보이는 것은 거푸집이에요, 청동기·철기 등 금속도구의 제작에 쓰였던 것인데요, 거푸집은 한 사회가 금속기를 주조하였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이를 통해 그 사회의 생산력 수준과 사회발전단계 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완주 갈동 1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청동칼 거푸집은 2매가 1쌍으로 발굴되었는데요, 1매의 칼 거푸집 뒷면에는 꺾창銅鐙의 거푸집도 보이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걸 한 번에 여러 개의 도구를 제작할 수 있도록 여러 도구의 형태를 하나의 거푸집에 새긴 것이랍니다. 그리고 거푸집의 접합 부분에는 양면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한 눈금도 표시되어 있어요. 한반도에서는 아직 청동기 제작 공방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갈동에서 출토된 거푸집에는 검은 그을음이 붙어 있어 직접 제품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p>	<p>거푸집은 청동기나 철기 등 금속 도구 제작에 쓰인 물품입니다. 따라서 금속기를 만들었음을 입증하는 고고학적 증거로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의 생산력 수준과 발전단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완주 갈동 1호 토광묘에서 발견된 이 거푸집은 2장이 1쌍으로 되어있으며, 1장의 칼 거푸집 뒷면에는 꺾창의 거푸집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한 번에 여러 가지의 도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나의 거푸집에 여러 형태를 새긴 것입니다. 또한 거푸집의 접합 부분에는 양쪽 면을 정확히 맞추기 위한 눈금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직 한반도에서는 청동기 제작 공방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거푸집의 검은 그을음이 있어 직접 제품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p>	<p>이것은 청동기나 철기 등 금속 도구 제작에 쓰는 물건이다(금속을 녹여 부어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한 틀). 완주 갈동 1호 토광묘에서 발견했으며 2장이 1쌍으로 되어 있다. 1장의 뒷면에는 꺾창의 거푸집도 보인다. 한반도에서는 청동기 제작 공방 터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거푸집의 검은 그을음을 볼 때 직접 금속 제품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6	잔무늬거울	<p>지금 보고 있는 것은 완주 갈동 5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잔무늬거울이에요. 완주 지역에서 발굴된 잔무늬거울 중 가장 잘 남아 있는 것으로, 거울 뒷면에는 위쪽으로 치우쳐 2개의 꼭지가 나란히 달려 있어요. 뒷면의 문양은 동심원과 삼각집선 무늬, 마름모무늬 등으로 이루어진 전 논산 및 화순 대곡리 유적, 완주 신평 유적 출토 잔무늬거울과 달리 세밀한 삼각집선문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거울 뒷면을 크게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문양을 새겼으며 삼각집선 무늬를 서로 엇갈린 방향으로 짝을 지어 반복되게 배치하였는데요, 이렇게 삼각집선문만을 배치하여 문양 효과를 준 것은 함평 초포리 유적에서 출토된 잔무늬거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거울이 출토된 완주 갈동 유적에서는 완성도 높은 동모, 동사를 비롯하여 철부, 철검, 철사 등의 철기가 함께 출토되었는데요, 이는 전북지역에 철기가 유입된 시기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p>	<p>이 유물은 완주군 갈동 5호 토광묘에서 발견된 잔무늬거울입니다. 완주 지역에서 발굴된 잔무늬거울 중 가장 잘 남아 있는 것으로, 거울 뒷면에는 위쪽으로 치우쳐 2개의 꼭지가 나란히 달려 있습니다. 뒷면의 문양은 그세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새겼으며 삼각집선 무늬를 서로 엇갈린 방향으로 짝을 지어 반복되게 배치했습니다. 완주군 갈동 5호 토광묘에서는 잔무늬거울 외에도 완성도 높은 동모, 동사를 비롯하여 철부, 철검, 철사 등의 철기가 함께 출토되었습니다.</p>	<p>세밀한 삼각집선 무늬가 있는 거울이다. 완주군 갈동 5호 토광묘에서 발견했다. 완주에서 발굴된 잔무늬거울 중 보존 상태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이다. 거울 뒷면에는 위쪽으로 치우쳐 2개의 꼭지가 나란히 달려있다. 뒷면은 삼각집선 무늬를 서로 엇갈린 방향으로 반복하여 새겼으며 크게 3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이것을 발견한 곳에서 다양한 종류의 철기들도 함께 발견하였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7	금동관모와 금동신발	<p>지금 앞에 있는 금동관은 신분을 상징하는 장신구로서 백제 지역에서는 공주 무령왕릉, 익산 입점리, 나주 신촌리 등의 지배자 무덤에서 확인된 유물이에요. 입점리 금동관모는 나주 신촌리 금동관처럼 금동판 2장을 붙여 고깔모양으로 만들었으나 물고기 비늘무늬를 두드려 넣은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p> <p>뒤편에 부착된 나팔모양의 장식은 일본 에다후나야마(江田船山) 고분 출토품과 유사한데요, 이는 백제와 일본과의 교류 관계를 잘 보여준답니다. 금동신발은 목이 없고 바닥판 위에 두 장의 옆판을 발등 쪽과 뒤꿈치에서 겹쳐 고정하고 있는데요, 바닥에는 10개의 스파이크가 부착되어 있어요. 백제 금동신발은 익산 입점리 외에도 원주 법천리, 공주 무령왕릉, 나주 신촌리 등 토착의 지배세력 무덤에서 출토되고 있는데요, 입점리 금동신발의 전체 형태에 있어 나주 신촌리 고분이나 일본 에다후나야마(江田船山) 출토품과 유사하여 백제문화권의 특색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p>	<p>이 금동관모는 신분을 상징하는 장신구로서 백제 지역에서는 공주 무령왕릉, 익산 입점리, 나주 신촌리 등의 무덤에서 확인된 유물입니다. 입점리 금동관모는 신촌리 금동관처럼 금동판 2장을 붙여 고깔 모양으로 만든 것은 같으나 물고기 비늘무늬를 두드려 넣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동관모 뒤에 붙은 나팔 모양의 장식은 일본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합니다. 이는 백제와 일본의 교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금동신발은 목이 없고 바닥판 위에 두 장의 옆판을 발등 쪽과 뒤꿈치에서 겹쳐 고정하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10개의 스파이크가 붙어 있습니다. 백제 금동신발은 익산 입점리 외에도 원주 법천리, 공주 무령왕릉 등 토착 지배세력의 무덤에서 출토되고 있습니다. 금동신발 역시 일본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여 백제 문화권의 특색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p>	<p>이것은 신분을 표현하는 것이다. 백제 지역의 공주 무령왕릉, 익산, 나주 등 지배자의 무덤에서 발견되었다.</p> <p>뒤편에 있는 나팔 모양의 장식은 일본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데 이것은 백제와 일본의 교류 관계를 보여준다.</p> <p>금동 신발은 목이 없고 바닥 판 위에 두 장의 옆 판을 발등 쪽과 뒤꿈치에서 겹쳐 있다.</p> <p>바닥에는 10개의 스파이크(바닥 못)가 붙어 있다.</p> <p>이것은 익산, 원주, 공주 등 지배세력의 무덤에서 발견되고 있다.</p> <p>일본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여 백제 문화권의 특색을 잘 보여주고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8	청동으로 만든 잔과 잔받침	<p>여러분, 혹시 위세품이 무엇인지 아세요? 위세품이란 지방세력을 편입하는 과정에서 왕이 지방수장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 하사하는 귀한 물품을 말해요. 고창 봉덕리 고분군 1호분 4호 석실에서는 금동신발과 중국제 청자호, 청동탁잔托盞, 칠기 화살통 등의 위세품 뿐만 아니라 다량의 토기와 마구류, 단야구, 옥 장신구 등이 출토되었었는데요, 이러한 출토 유물로 볼 때 봉덕리 고분군을 만든 집단은 백제의 영역화 이후에도 상당한 정치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마한의 제지 세력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봉덕리 유적에서 출토된 청동으로 만든 잔과 잔받침은 전체적인 형태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동탁은잔銅托銀盞과 유사하지만,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무령왕릉 출토 유물과 달리 봉덕리 고분 출토품은 잔과 잔받침에 음각선이 새겨진 것 이외에 별다른 문양은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러한 금속제 잔과 잔받침은 일반 무덤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고급 기종으로, 무덤에 묻힌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랍니다.</p>	<p>고창 봉덕리 고분군 1호분 4호 석실에서는 금동신발과 중국제 청자호, 청동탁잔, 칠기 화살통 등과 같은 위세품과 다량의 토기, 마구류, 단야구, 옥 장신구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위세품은 왕이 지방세력을 편입하는 과정에서 지방수장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 하사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이렇게 출토된 유물로 미루어 볼 때 봉덕리 고분군을 만든 집단은 백제의 영역화 이후에도 상당한 정치 세력을 유지했던 마한 세력의 하나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잔과 잔받침은 일반 무덤에서 확인되지 않는 고급 물품으로 무덤에 묻힌 사람의 신분과 권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p>	<p>청동으로 만든 잔과 잔 받침이다. 고창 봉덕리 고분군 1호분 4호 석실에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금동 신발과 중국제 청자호, 청동탁잔, 칠기 화살통 등의 '위세품'과 다량의 토기, 마구류, 옥 장신구 등이 함께 발견되었다. '위세품'이란 왕이 지방세력을 편입할 때 지방수장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 사용했던 물건이다. 그 때문에 봉덕리 고분군을 만든 집단은 백제의 영역화 이후에 상당한 정치 세력을 유지했던 마한 세력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청동으로 만든 잔과 잔 받침은 보통 무덤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고급 물품이다. 묻힌 사람의 신분과 권력을 추측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9	갑주	<p>지금 앞에 보이는 유물은 전투용구 이용되는 갑주, 즉 갑옷과 투구인데요, 남원 월산리 고분에서 출토된 것으로서 목가리개와 철제투구, 갑옷비늘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이는 것처럼 목가리개는 장방형의 철판鐵板 여러 장을 완만하게 외반外反된 형태로 세워 측면끼리 연결시켰으며, 철제투구는 좁고 긴 세장방형細長方形의 철판鐵板들을 완만하게 구부려 반구형半球形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현재 투구의 꼭대기 부분인 복발覆鉢은 없는 상태예요. 갑옷 비늘은 철판의 한쪽 면을 둥글게 만들었으며, 각각의 철판에 3~4개의 구멍을 뚫어 가죽끈을 꿰어 연결시켜 만들었답니다. 5세기 후반 대가야大伽倻는 가야국의 중심국으로 성장했는데요, 475년 백제百濟가 일시적으로 멸망한 틈을 타 지금의 전북 동부 산간지역으로 진출했어요. 이러한 동부 산간지역은 백제와 가야세력이 최단거리로 왕래할 수 있는 내륙 교통로의 요충지로서 다양한 세력집단들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였답니다.</p>	<p>남원 월산리 고분에서 출토된 갑주, 즉 갑옷과 투구입니다. 목가리개와 철제 투구 갑옷 비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가리개는 사각형의 철판 여러 장을 완만하게 바깥쪽으로 구부려 연결했습니다. 철제투구는 좁고 긴 사각형의 철판들을 완만하게 구부려 투구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투구의 꼭대기 부분인 '복발'은 없는 상태입니다. 갑옷 비늘은 철판의 한쪽 면을 둥글게 만들었으며, 각각의 철판에 3~4개의 구멍을 뚫어 가죽끈으로 연결해 만들었습니다.</p>	<p>갑옷비늘로 이루어진 갑옷과 목가리개, 철제 투구이다. 남원 월산리에서 발견되었다. 목가리개는 사각형의 철판 여러 장을 바깥쪽으로 구부려 연결하였다. 철제투구는 좁고 긴 사각형의 철판을 구부려 투구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현재 투구의 꼭대기의 복발(투구 꼭대기에 붙이는 둥근 장식)은 없는 상태이다. 갑옷 비늘은 철판의 한쪽 면을 둥글게 만들었으며 각각의 철판에 3~4개의 구멍을 뚫어 가죽끈으로 연결하여 만들었다.</p>	
10	기꽃이	<p>말을 부리기 위해 말에게 장착하였던 각종 장구裝具를 말갓춤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앞에 보이는 기발을 쫓는 기꽃이寄生나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衡, 발 디딤용의 발걸이鑑子 등이 출토되었어요. 남한에서는 4세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출현하였는데요, 능선 정상부에 30여 기의 가야 계통 무덤이 분포해 있는 남원 두락리 유적에서는 이러한 말갓춤과 함께 원통모양의 그릇받침이 출토되었어요. 이를 통해 출토된 말갓춤 유물이 대가야세력과 관련된 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p>	<p>말을 부리기 위한 각종 장구를 '말갓춤이'라고 합니다. 이 유물은 '말갓춤' 중 기꽃이입니다. 기꽃이는 기발을 쫓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밖에도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말을 탈 때 발디딤용으로 사용하는 발걸이 등도 출토되었습니다. 남한에서는 4세기 이후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남원 두락리 유적에서는 30여 기의 가야계 무덤이 있는데 말갓춤과 함께 그릇받침이 출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말갓춤은 대가야 세력과 연관 있는 유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p>	<p>기발을 쫓는데 사용되는 기꽃이 이다. 말을 마음대로 다루기 위한 여러 가지 물건중 하나이다. 남원 두락리에서 30여 기의 가야계 무덤에서 발견되었다. 이 외에도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말을 탈 때 발디딤용으로 사용하는 발걸이 등도 발견되었다. 말갓춤은 대가야 세력과 연관 있는 유물인 것을 알 수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1	연꽃무늬 서까래막새	<p>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이 연꽃무늬 서까래 막새는 목조건물의 연목 끝단에 부착되는 기와예요.</p> <p>등근 서까래의 앞면에 부착시키기 위해 서까래막새의 중앙에는 쇠못구멍이 뚫려 있고, 테두리 부분이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삼국유사』에 의하면 미륵사는 백제 무왕 때 고구려와 신라의 침략을 불심佛心の 힘으로 막기 위해 세워졌다고 해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에 유행한 미륵신앙을 배경으로 창건된 백제 최대의 가람인 미륵사는 중원을 중심으로 동원과 서원으로 구분되고 각각 탑이 있는 독특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1980년부터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약 2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에는 기와류가 가장 많으며, 녹유가 입혀진 연꽃무늬 서까래막새는 백제 기와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이 밖에도 토기류, 도자기류, 금속제품, 나무제품, 토제품, 석제품, 유리와 옥제품 등이 다량 출토되어 고대 사찰의 생활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p>	<p>이 연꽃무늬 서까래 막새는 익산 미륵사에서 출토되었습니다. 막새는 목조건물 지붕 끝에 사용되는 기와입니다. 등근 서까래의 앞면에 붙이기 위해 서까래막새의 중앙에는 쇠못구멍이 뚫려 있으며, 테두리 부분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6~7세기에 유행한 미륵신앙을 배경으로 창건된 백제 최대의 가람(절)인 미륵사는 중원을 중심으로 동, 서원으로 구분되고 각각 탑이 있는 구조를 보입니다. 1980년부터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약 2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연꽃무늬 서까래막새와 같은 기와류가 가장 많습니다.</p>	<p>목조건물 지붕 끝단에 붙이는 연꽃무늬 기와이다.</p> <p>익산 미륵사지에서 발견하였다.</p> <p>중앙에는 쇠못구멍이 뚫려있고 테두리 부분이 없는 특징이 있다.</p> <p>6~7세기에 유행한 미륵신앙에 창건된 백제 최대의 절인 미륵사에 1980년부터 발굴조사가 시작되었다.</p> <p>약 2만여 점의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연꽃무늬 서까래막새와 같은 기와류가 가장 많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2	도가니	<p>지금 앞에 보이는 유물은 왕궁리 유적에서 출토된 도가니이에요. 왕궁리 유적은 백제 30대 무왕이 익산경영을 기획하면서 건설되기 시작하였는데요, 처음에는 백제 궁성이나 관부官府로 활용하기 위해 직사각형 성벽을 세우고, 안쪽에는 계단을 두어 평탄하게 만든 다음 정원을 배치하고 큰 건물을 지었어요. 이곳에서는 백제의 행정지역 및 최고의 관청을 뜻하는 ‘수부首府’와, 백제의 도성제인 5부와 관련하여 공급자를 의미하는 ‘상부을와上部乙瓦’ 도장이 찍힌 기와, 그리고 6세기 후반의 중국 청자 병편 등이 출토되었는데요, 특히 왕궁리 유적에서는 연꽃구슬과 영락瓔珞 등 다양한 금제품을 비롯하여 금·은·동·유리 등을 만드는데 사용한 도가니와 찌꺼기, 그리고 숫돌 등이 많이 출토된 공방터가 확인되었어요. 이곳에서는 금·동·유리의 제련, 정련 뿐 아니라 귀금속의 세공細工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제작기술은 일본으로 전파되었다고 합니다.</p>	<p>이 유물은 왕궁리 유적에서 출토된 도가니입니다. 왕궁리 유적은 백제 제30대 무왕이 백제 궁성이나 행정 건물로 활용하기 위해 직사각형 성벽을 세우고, 안쪽에는 계단을 두어 평탄하게 만든 다음 정원과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백제의 최고 관청을 뜻하는 ‘수부(首府)’와 백제의 도성제인 5부와 관련하여 공급자를 뜻하는 ‘상부을와(上部乙瓦)’ 도장이 찍힌 기와, 그리고 6세기 후반의 중국 청자 병편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특히 연꽃구슬, 영락(瓔珞)과 같은 다양한 금제품과 도가니, 그리고 숫돌 등이 공방터에서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이렇게 출토된 유물을 통해 금과 같은 금속이나 유리의 제련과 귀금속의 세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작기술은 일본으로 전파되었습니다.</p>	<p>이것은 쇠붙이 등을 녹이는 그릇이다. 왕궁리에서 발견되었다. 백제 제30대 무왕이 왕궁리에 백제 궁성(궁궐을 둘러싼 성벽)이나 행정 건물로 활용하기 위해 직사각형의 성벽을 세우고 안쪽에는 계단을 두어 평탄하게 만든 다음 정원과 큰 건물을 지었다. 이곳에서 ‘수부’, ‘상부을와’ 도장이 찍힌 기와, 6세기 후반의 중국 청자 병편(깨진 청자 조각) 등이 발견되었다. 특히 다양한 금제품과 도가니 등이 공방터에서 많이 발견되어 금속이나 유리 등의 세공(정밀하게 만드는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제작기술은 일본으로 전파되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3	‘전주성’ 명 수막새	<p>이 유물은 목조건축 지붕의 기왓골 끝에 사용되었던 기와인 수막새인데요, 전주 동고산성에서 출토된 것으로 중앙에 전주성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통일신라 말의 혼란한 상황에서 견훤甄萱은 전라도 지방의 군사력과 호족豪族 세력을 기반으로 후백제後百濟(892~936)를 세웠어요. 그는 지금의 전주인 완산주完山州에 도읍을 정하고, 왕궁성으로 추정되는 동고산성東固山城을 축조하였는데, 성 내부에서 길이가 84m 정도인 대형 건물지가 확인되었답니다. 이 건물은 발해渤海 동경성東京城 궁터보다 약간 작은 편이에요. 『전주성황사중창기全州城皇祠重創記』에 의하면 동고산성이 견훤의 궁궐터였다고 전해지며, 발굴조사에서도 ‘관 官’, ‘왕王’, ‘전주성全州城’이 찍힌 기와가 출토되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해준답니다. 독자적인 연호인 ‘정개正開’를 사용한 견훤은 중국의 오월吳越 및 일본과 교류하고 신라의 경주를 공격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고려와도 대립하는 등 활발한 정복활동과 외교활동을 펼쳤어요.</p>	<p>이 유물은 목조건축 지붕의 기왓골 끝에 사용되었던 기와인 수막새입니다. 전주시 동고산성에서 출토된 것으로 중앙에 전주성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견훤은 후백제를 세우고 지금의 전주인 완산주에 도읍을 정했습니다. 후백제의 왕궁성으로 추정되는 곳이 동고산성인데 성 내부에서 길이 84m 정도인 대형 건물지가 확인되었습니다. 발굴조사에서 ‘관(官)’, ‘왕(王)’, ‘전주성(全州城)’이 찍힌 기와가 출토되어 후백제의 도읍인 완산주의 궁궐터임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p>	<p>이것은 목조건축 지붕의 기왓골 끝에 사용된 기와이다. 전주시 동고산성에서 발견하였으며 중앙에 ‘전주성’이라고 글씨가 새겨져 있다.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고 지금의 전주인 완산주를 수도로 정했다. 동고산성은 후백제의 왕궁성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성 내부에서 길이가 약 84m인 대형 건물의 터가 확인되었다. 발굴 조사에서 ‘관’, ‘왕’, ‘전주성’이 찍힌 기와가 출토되어 후백제의 수도인 완산주의 궁궐터임을 확인할 수 있다.</p>	
14	진목항아리 그릇받침	<p>죽막동 유적에서는 다량의 토기가 출토되었는데요, 보이는 것처럼 그 가운데 그릇 바깥쪽에 물결무늬가 새겨지고 어깨나 몸통 곳곳에 돌기가 붙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계란형의 몸통에 목이 넓고 길며 아가리가 벌어진 진목항아리는 죽막동 유적에서만 발견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토기가 깨진 채로 발견되어 제사를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답니다.</p>	<p>죽막동 유적에서는 많은 양의 토기가 출토되었습니다. 출토된 토기들은 그릇 바깥쪽에 물결무늬가 새겨지고 어깨나 몸통 곳곳에 돌기가 붙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계란형의 몸통에 목이 넓고 길며 아가리가 벌어진 진목항아리는 죽막동 유적에서만 발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토기가 깨진 채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제사를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p>	<p>죽막동 유적에는 토기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토기들은 그릇 바깥쪽에 물결무늬가 새겨지고 어깨나 몸통 곳곳에 돌기가 있는 것이 많다. 특히 계란형의 몸통에 목이 넓고 길며 아가리가 벌어진 항아리는 죽막동 유적에서만 발견되었다. 대부분 깨진 채로 발견되었으며 제사를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5	돌로 만든 모조품	<p>석제 모조품은 방추차, 도끼, 굽은옥, 방울, 손칼, 거울, 갑옷 등을 돌로 간단하게 축소·모조한 유물을 말하는데요, 앞에 보이는 것처럼 몸체의 중앙이나 끝 부분에는 작은 구멍이 1~2개 뚫려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죽막동 유적에서는 직경 3m 범위 내에서 주로 출토되어 제사를 지낼 때 공헌의 의미로 신목神木에 매달아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석제 모조품은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발견되지만 일본 오키노시마沖ノ島유적을 거쳐 나라奈良까지 가는 해로 상의 중요지역에서 다수 발견되었답니다.</p>	<p>석제 모조품(돌로 만든 모조품)은 돌로 방추차, 도끼, 굽은옥, 방울, 손칼, 거울, 갑옷 등을 간단한 형태로 축소, 모조한 유물을 말합니다. 몸체의 중앙이나 끝 부분에 작은 구멍이 1~2개 뚫려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죽막동 유적에서는 직경 3m 범위 내에서 주로 출토되었는데, 이는 제사를 지낼 때 공헌의 의미로 신목(神木)에 매달아 두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석제 모조품은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발견되지만 일본 오키노시마 유적을 거쳐 나라까지 가는 해로의 중요지역에서 다수 발견되었습니다.</p>	<p>이것은 돌로 방추차(실을 감는 도구), 도끼, 굽은옥, 방울, 손칼, 거울, 갑옷 등을 간단한 모양으로 작게 만든 유물이다.</p> <p>몸체의 중앙이나 끝에 작은 구멍이 1~2개 뚫려 있는 특징이 있다.</p> <p>제사를 지낼 때 공헌의 의미로 나무에 매달아 두었던 것으로 추정된다.</p>	
16	말모양 토제품	<p>고대의 제사유적은 일상 집자리에서도 확인되지만 부안 죽막동이나 제주 용담동龍潭洞 유적과 같이 주로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이나 강안 구릉지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요,</p> <p>제사 의례에서는 음식 공양, 장신구나 모조품模造品 등의 공헌, 복골卜骨(점을 치는데 쓰던 뼈)을 사용하여 신의 뜻을 묻는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제사와 관련하여 새와 말은 지상과 천상을 오가는 존재로 여겨졌는데요, 특히 말 모조품은 제사유적에서 가장 중요한 표지유물로 나타나며, 부안 죽막동 유적에서도 다수의 토제마가 확인되었답니다.</p>	<p>고대 제사유적은 부안 죽막동이나 제주 용담동 유적과 같이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이나 강의 구릉지에서 많이 확인됩니다. 고대 제사의례에서는 음식 공양과 장신구, 모조품 등의 공헌, 복골(점을 치는데 쓰던 뼈)을 사용한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사에서의 새와 말은 지상과 천상을 오가는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말 모조품은 제사 유적에서 가장 중요한 표지 유물로서 부안 죽막동 유적에서도 다수의 말 모양 토제품이 발견되었습니다.</p>	<p>말모양 토제품은 제사 유적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이다.</p> <p>고대 제사유적은 부안 죽막동이나 제주 용담동 처럼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이나 강의 구릉지(산지와 평지의 중간 형태를 갖는 지형)에서 많이 확인된다.</p> <p>고대 제사의례에서는 음식 공양과 장신구, 모조품 등의 공헌, 복골(점을 치는데 쓰던 뼈)을 사용한 행위가 이루어졌다.</p> <p>부안 죽막동 유적에서도 말 모양의 유물이 여러 개 발견되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7	여러 가지 펜석기	<p>지금 보시는 유물은 2008년 전북 고창지역에서 발굴된 펜석기로 돌을 깨뜨리거나 떼어 만든 도구로 선사시대 전 기간 동안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며 일명 타제석기라고도 해요. 펜석기를 만드는 기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데 직접떼기, 간접떼기, 눌러떼기 세 가지 방법이 있고, 크게 몸돌석기와 격지석기로 나뉘어요. 몸돌석기는 몸돌을 직접 가공하여 만든 석기이며, 격지석기란 몸돌에서 떼낸 격지에 잔손질을 하여 만든 석기를 말해요. 대체로 구석기시대의 찌개나 주먹도끼와 같은 석기는 몸돌석기가 많고 굽개·밀개·자르개·찌르개·툽날·새기개 등은 대부분 격지를 이용하여 만든 것들이에요. 신석기시대나 청동기시대의 화살촉·돌괭이·돌보습·돌끌·돌도끼와 같은 석기에서도 갈아낸 흔적이 전혀 없는 펜석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p>	<p>이 유물은 2008년 전북 고창지역에서 발굴된 펜석기입니다. 펜석기는 돌을 깨뜨리거나 떼어 만든 도구로 선사시대 전 기간 동안 가장 오래 사용되었으며, 일명 타제석기라고도 불립니다. 펜석기를 만드는 기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데 직접떼기, 간접떼기, 눌러떼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구분하면 몸돌석기와 격지석기로 나뉩니다. 몸돌석기는 몸돌을 직접 가공하여 만든 석기이며, 격지석기는 몸돌에서 떼낸 격지에 잔손질을 하여 만든 석기입니다. 대체로 구석기시대의 찌개나 주먹도끼 등의 석기는 몸돌석기가 많고 굽개, 밀개, 찌르개 등은 대부분 격지를 이용하여 만든 것입니다. 신석기시대나 청동기시대의 화살촉, 돌보습 등의 석기에서도 갈아낸 흔적이 전혀 없는 펜석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p>	<p>돌을 깨뜨리거나 떼어서 만든 도구이다. 전북 고창에서 발견되었다. 선사시대 전 기간 동안 사용되었다. 펜석기를 만드는 기술은 직접 떼기, 간접 떼기, 눌러 떼기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것은 몸돌을 직접 가공하여 만든 몸돌석기와 몸돌에서 떼낸 것을 손질하여 만든 격지 석기로 나뉜다. 구석기시대나 청동기시대는 몸돌 석기가 많고 신석기시대나 청동기시대는 펜석기를 많이 볼 수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8	빗살무늬 토기	<p>이 유물은 전북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인 갈머리에서 발굴된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빗살무늬토기입니다. 바닥이 뽕족한 포탄모양의 형태를 하고 토기 겉면은 점과 선으로 구성된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장식되고. 기원전 4,500년경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뒤, 기원전 3,500년경 한반도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어요. 그릇의 형태와 장식된 문양에 따라 중서부지역, 남부지역, 동북지역, 서부지역 등 네 개의 지역군으로 나뉘어요. 처음에는 토기의 겉면을 아가리-몸통-바닥의 세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에 다른 문양을 채운 토기를 만들었지만, 점차 바닥이나 몸통의 문양을 생략하거나 같은 문양만으로 장식하는 것으로 변화했어요. 이처럼 빗살무늬토기는 지역적으로 다른 특징을 보이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토기 겉면을 가득 채웠던 규칙적인 기하학적 문양이 간략화하고 불규칙적으로 바뀌면서 청동기시대의 무늬가 없는 민무늬토기로 점차 바뀌게 된답니다.</p>	<p>이 빗살무늬토기는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인 갈머리에서 발굴되었습니다. 바닥이 뽕족하고 토기 겉면은 점과 선으로 된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장식되었습니다. 기원전 4,500년 경 한반도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뒤, 기원전 3,500년 경 한반도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토기 겉면을 아가리-몸통-바닥의 세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에 다른 문양을 채운 토기를 만들었지만, 점차 문양을 생략하거나 같은 문양으로만 장식하는 것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처럼 빗살무늬토기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면을 가득 채웠던 규칙적인 기하학적 문양이 간략화되고 불규칙적으로 바뀌면서 청동기시대에는 무늬가 없는 민무늬토기가 나타납니다.</p>	<p>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토기이다. 진안 용담댐 수몰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기원전 4,500년 경 한반도 중서부지역에 나타난 후 기원전 3,500년 경 한반도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토기의 바닥은 뽕족하고 겉면은 점과 선의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초기에는 겉면을 아가리-몸통-바닥 세 부분에 다른 모양을 장식하였지만 이후에 모양이 생략되거나 같은 모양으로만 장식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시간이 흘러 모양이 바뀌면서 청동기시대에는 무늬가 없는 토기가 나타난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9	금동신발	<p>지금 보시는 유물은 전북 고창 봉덕리 1호분에서 2008년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금동신발 한 켤레가 출토되었습니다. 고창 봉덕리 1호분은 방대형의 분구를 쌓고 정상부에 돌방무덤 5기와 독널무덤 2기를 축조한 분구묘로 이중 4호무덤은 길이 280cm, 높이 150cm, 너비 178cm 내외로 평면형태가 장방형인 구덩식돌방무덤이에요. 봉덕리 신발은 발목 부분에 금동판을 덧대고 금동못으로 고정한 것이 특징으로 옆판 2장, 바닥판, 발목판으로 구성됩니다. 옆판은 주 문양대와 보조문양대로 구획하여 투조와 압출기법으로 장식하였으며, 주문양대에는 용문, 봉황문 등을 표현한 귀갑문을 반복 배치하고 보조문양대에는 덩굴무늬를 장식하였어요.</p> <p>바닥판에는 중앙에 꿈틀대는 한 마리의 용을 배치하고 발뒤꿈치 부분에는 역사상을 투조하였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는 봉황 길상조, 덩굴무늬 등을 장식하였어요. 문양들은 내부까지 세밀하게 표현하였으며 부드러우면서도 역동적인 느낌이에요. 특히 1~2개씩 배열된 스파이크는 6엽 꽃잎의 한 가운데에 부착하여 장식성을 더했어요.</p>	<p>2008년 전북 고창 봉덕리 1호분에서는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금동신발 한 켤레가 출토되었습니다. 봉덕리 금동신발은 발목 부분에 금동판을 덧대고 금동못으로 고정한 것이 특징으로 옆판 2장, 바닥판, 발목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옆판은 주 문양대와 보조문양대로 구분하여 투조와 압출기법으로 장식했습니다. 주 문양대에는 용문, 봉황문 등을 표현한 귀갑문을 반복 배치하고 보조문양대에는 덩굴무늬를 장식했습니다. 바닥판에는 중앙에 꿈틀대는 한 마리의 용을 배치하고 발뒤꿈치 부분에는 역사상을 투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는 봉황 길상조, 덩굴무늬 등을 장식했습니다. 금동신발 내부까지 문양을 세밀하게 표현했으며 부드러우면서도 역동적인 인상을 줍니다. 특히 1~2개씩 배열된 스파이크는 6엽 꽃잎의 한 가운데에 부착하여 장식성을 더했습니다.</p>	<p>이것은 금동판을 발목에 대고 금동못으로 고정한 특징이 있는 금동신발 한 켤레이다.</p> <p>옆판 2장, 바닥판, 발목판으로 되어 있다.</p> <p>2008년 전북 고창에서 원래의 모습 그대로 발견되었다.</p> <p>신발의 옆판은 투조(잘라낸 것)와 압출(좁은 구멍을 눌러서 만들기)기법으로 만들었다.</p> <p>문양은 바닥판과 발뒤꿈치 그리고 신발 내부까지 다양한 그림으로 세밀하게 장식되었으며 1~2개씩 부착된 스파이크(바닥 못)는 6엽 꽃잎의 가운데에 부착되어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0	조형토기	<p>이 토기는 익산 간촌리 3호 토광묘에서 발굴된 것으로 입수구와 출수구가 존재하고 견부가 발달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호남지방에서 출토된 조형토기는 주구토광묘가 조성되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확인되며 재지적 요소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유물이에요. 조형토기의 사용시기는 기원후 1세기로부터 5세기 대까지이고 등장기, 확산기, 쇠퇴기 등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어요. 소위 마한 고지에서 단독의 토광묘나 옹관묘, 주거지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백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장 늦은 시기까지 영산강유역에서 나타나고 있어 재지적인 전통성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토기는 액체를 따르는 용기로써 제의적인 기능이 강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분묘나 주거지에서 일반·실용화되지 못하고 유적 내에서도 1~2점 정도만이 출토되고 있어요. 이러한 양상을 통해볼 때 마한의 전통성 있는 집단 내에서도 비교적 우위를 점하였고, 동시에 제의를 주관했던 사람이 사용했던 기물로 보인답니다.</p>	<p>이 토기는 익산 간촌리 3호 토광묘에서 발굴된 조형토기로 물을 넣는 곳과 물이 나오는 곳이 있으며, 어깨가 발달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남지방에서 출토된 조형 토기는 주구토광묘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발견이 되며 지역색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는 유물입니다. 조형토기의 사용시기는 1세기~5세기 대이며 등장기, 확산기, 쇠퇴기 등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한의 단독 토광묘나 옹관묘, 주거지 등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백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장 늦은 시기까지 영산강유역에서 나타나고 있어 지역적인 전통성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유적 내에서도 1~2점 정도만이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마한의 전통성 있는 집단 내에서 제의를 주관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사용했던 물품으로 추측합니다.</p>	<p>이 조형토기(새모양의 토기)는 물을 넣는 곳과 물이 나오는 곳으로 되어 있고 어깨가 발달된 특징이 있다. 이것은 익산 간촌리에서 발견되었다. 1세기~5세기에 사용되었으며 등장기, 확산기, 쇠퇴기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호남지방에서 발견된 토기는 주구토광묘(지하에 움을 파서 무덤칸을 만들고 무덤 주변에 도랑을 둘러 '토광묘:매립방식의 묘'의 한 형식)가 나타난 때부터 본격적으로 발견되어 지역의 특성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는 유물이다. 발견되는 유적에서 1~2점만 출토되는 것을 볼 때 마한의 전통성 있는 집단에서 제사의식을 주관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1	완주 갈동유적 출토유물	<p>완주 갈동유적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초기철기시대 유적 중 한 곳으로, 2003년 청동칼 거푸집이 처음으로 발굴되면서 유적이 알려지게 되었으며, 2007년 조사에서 초기철기시대의 무덤이 군집을 이루며 확인되었어요. 무덤 안에서는 한국식동검, 청동투겁창과 창자루, 동세기개, 쇠낫, 청동화살촉, 쇠새기개, 쇠도끼, 고리모양 유리, 검은간토기, 덧띠토기, 쇠뿔모양 손잡이 항아리 등이 출토되었답니다. 이 중 청동화살촉과 쇠낫은 서북한 지역에서만 확인되었던 것이며, 쇠도끼와 쇠낫은 중국 전국시대 철기문화의 영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덧띠토기와 검은간토기는 한국식동검문화 단계를 대표하는 토기로 청동기, 철기와 함께 께문거리로 출토된 것이에요.</p>	<p>완주 갈동유적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초기 철기시대 유적 중 한 곳으로, 2003년에 청동칼 거푸집이 처음으로 발굴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07년 조사에서는 군집된 초기 철기시대의 무덤을 확인하였습니다. 무덤 안에서는 한국식동검, 청동투겁창과 창자루, 동세기개, 쇠낫, 청동화살촉, 쇠새기개, 쇠도끼, 고리모양 유리, 검은간토기, 덧띠토기, 쇠뿔모양 손잡이 항아리 등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습니다. 이 중 청동화살촉과 쇠낫은 서북한 지역에서만 확인되었던 것이며, 쇠도끼와 쇠낫은 중국 전국시대 철기문화의 영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덧띠토기와 검은간토기는 한국식 동검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로 청동기, 철기와 함께 께문거리로 출토된 것입니다.</p>	<p>우리나라 대표적인 초기 철기시대 유적 중 한 곳이다. 이곳에서 2003년에 청동칼 거푸집이 처음 발견되었으며 2007년 조사에서는 초기 철기시대의 무덤을 확인하였다. 무덤 안에는 한국식 동검, 쇠낫, 청동화살촉, 쇠도끼 등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이 중 청동화살촉과 쇠낫은 서북한 지역에서만 확인되었으며 쇠도끼와 쇠낫은 중국 전국시대 철기문화의 영향과 관련되어 있다. 덧띠토기와 검은간토기는 청동기, 철기와 함께 무덤의 께문거리로 발견된 것이다.</p>	
22	마한의 철기	<p>2006년 발굴된 완주 상운리 유적에서는 망치, 집게, 줄, 끌, 췌기, 모루, 톱 등 가장 많은 단야구가 확인되어 완주를 중심으로 한 마한 세력이 철기제작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옛날에도 이런 집게가 있었다니 흥미로워요! 철기문화가 본격화되고 각 지역 집단이 점차 통합되면서 삼한이 발전하였고, 전북지역의 마한은 새로운 철기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였는데 두드려 만드는 단조의 방식으로 더욱 단단하고 강해진 철제 농공구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보급하면서 농업생산력이 높아지고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어요.</p>	<p>2006년에 발굴된 완주 상운리 유적에서는 망치, 집게, 줄, 끌, 췌기, 모루, 톱 등 가장 많은 단야구가 확인되어 완주를 중심으로 마한 세력이 철기를 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북지역의 마한은 새로운 철기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두드려 만드는 단조의 방식으로 더욱 단단하고 강해진 철제 농공구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보급하면서 농업생산력이 높아지고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p>	<p>이것은 망치, 집게, 끌, 톱 등 단야구(철기를 제작하는 도구)이다. 2006년 완주 상운리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어 마한이 철기를 제작한 중심인 것을 알 수 있다. 두드려서 만들어 더 단단하고 강해진 농업 도구를 대량으로 만들어 보급하여 농업 기술력이 발전하고 이와 함께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3	목걸이	<p>완주 상운리 유적 등에서 출토된 마한시대의 각종 유리구슬로 이루어진 목걸이에요.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따르면 삼한 사람들은 구슬을 귀하게 여겨 옷에 장식하거나 목이나 귀에 달았다고 해요. 마한 지역의 무덤에서는 각종 구슬이 풍부하게 출토되었고, 구슬은 재질에 따라서 천연광물과 유리로, 모양에 따라서는 둥근 구슬과 곱은구슬, 여러면구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재료도 다양해져서 유리·수정·마노·호박·활석·백토 등이 쓰였습니다.</p>	<p>완주 상운리 유적 등에서 출토된 마한시대의 목걸이입니다.『삼국지 위지동이전』에 따르면 삼한 사람들은 구슬을 귀하게 여겨 옷에 장식하거나 목이나 귀에 걸었다고 합니다. 마한의 무덤에서는 각종 구슬이 출토되었고, 구슬은 재질에 따라서 천연광물과 유리로, 모양에 따라서는 둥근 구슬과 곱은 구슬, 여러 면구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료도 점차 다양해져서 유리, 수정, 마노, 호박, 활석, 백토 등이 쓰였습니다.</p>	<p>유리구슬로 된 목걸이이다. 마한시대의 것으로 완주 상운리에서 발견하였다. 삼한 사람들은 구슬을 귀하게 생각해 옷에 장식하거나 목과 귀에 걸었다. 구슬은 재질과 모양으로 다양하게 구분되며 재료로 유리, 수정, 호박 등 점차 다양하게 쓰였다.</p>	 
24	닭머리 모양 청자항아리	<p>지금 보시는 유물은 2010년 남원 월산리 고분군 M5호분에서 출토된 청자계수호(닭머리모양 청자항아리)라고 해요. 광구호로 한쪽에는 닭머리가 반대편에는 구연에서 동체로 이어지는 손잡이가 대칭으로 붙어 있어요.유약은 담청색유를 시유하였으나 황갈색으로 산화되었어요. 닭머리모양 청자항아리는 중국 동진과 남조에서 제작된 청자로 백제 한성시대부터 동진과의 교류를 통하여 백제 중양에서 수입한 유물로 볼 수 있으며 대부분 백제영역에 포함된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어요. 백제 중양에서 수입하여 지방 권력층에게 사여되는 지배층의 권력을 상징하는 위신제로 보여져요.</p>	<p>2010년 남원 월산리 고분군 M5호분에서 출토된 청자계수호, 닭 머리 모양 청자항아리입니다. 주둥이 부분이 넓은 항아리(광구호)로 한쪽에는 닭 머리가 반대편에는 아가리에서 몸통으로 이어지는 손잡이가 대칭으로 붙어 있습니다. 유약은 담청색유를 발랐으나 황갈색으로 산화되었습니다. 닭머리 모양 청자항아리는 중국 동진과 남조에서 제작된 청자로 백제의 한성시대에 동진과의 교류를 통해 수입한 유물로 볼 수 있습니다. 백제 영역에 해당하는 대부분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이는 백제 중양에서 수입하여 지방권력층에게 하사하는 중앙지배층의 권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p>	<p>닭머리 모양의 청자 항아리이다. 2010년 남원 월산리에서 발견하였다. 아가리가 넓은 항아리로 한쪽에는 닭 머리 모양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아가리부터 몸통까지 이어지는 손잡이가 붙어 있다. 중국 동진과 남조에서 제작되었으며 백제 한성시대에 동진과의 교류로 수입되었다. 백제 중양에서 수입해 지방권력자에게 준 것으로 중양 지배층의 권력을 확인할 수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5	호자형토기	<p>호자는 남성용 이동식 변기로 호랑이 모양으로 만든 것은 산신이 호랑이를 불러 입을 벌리게 하고 소변을 보았다는 중국의 전설과 관련된답니다. 중국에서는 춘추시대 이후 나무, 청동, 토기와 자기로 만든 호자가 사용되었으며 무덤에 부장되었어요. 이 유물은 2005년 남원 실상사에서 출토된 호자형토기예요. 연질의 회색토기로 구연과 동체 일부가 결실되어 있어요. 한반도에서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의 호자는 개성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청자 호자가 있어요. 형태로 볼 때 서진, 혹은 동진 초기에 만들어진 것이 수입된 것이예요. 이밖에 부여 군수리 유적, 관북리유적, 여수 고락산성에서 출토된 토제 호자가 있다. 호자는 통일신라 이후에도 귀족과 승려 사이에서 계속 사용되었는데, 형태는 더욱 간략화 되어 호랑이의 모양은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된답니다.</p>	<p>이 유물은 2005년 남원 실상사에서 출토된 호자형 토기입니다. 연질의 회색토기로 아가리와 몸체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호자는 남성용 이동식 변기로 호랑이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이는 산신이 호랑이를 불러 입을 벌리게 하고 소변을 보았다는 중국의 전설과 관련됩니다. 형태로 볼 때 서진 혹은 동진 초기에 만들어진 것이 수입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밖에 부여 군수리 유적, 관북리 유적, 여수 고락산성에서도 토제 호자가 출토되었습니다. 통일신라 이후에도 귀족과 승려 사이에서 호자는 계속 사용되었는데, 형태는 더욱 간략화 되어 호랑이의 모양은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p>	<p>호랑이 모양으로 만든 남성용 이동식 변기이다.</p> <p>2005년 남원 실상사에서 발견되었다.</p> <p>호랑이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이는 중국의 전설인 '산신이 호랑이를 불러 입을 벌리게 하고 소변을 보았다'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p> <p>서진 혹은 동진 초기에 만들어진 것이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p> <p>부여, 여수 등에서도 출토되었다.</p> <p>통일신라 이후에 귀족과 승려들이 계속 사용하였으나 형태가 더욱 간결해져 호랑이 모양은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된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6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p>1960년대 전주에서 논산으로 가는 국도 1호선에 자리한 낮은 언덕.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는 그 언덕에 한쪽으로 기운 석탑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기울어진 석탑은 1965년 석탑 중수를 통해 오늘날과 같은 번듯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중수 과정 중 1층 지붕돌 윗면과 심초석에서 금강경판과 함, 금제 사리함과 수정병 등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습니다.</p> <p>왕궁리 5층석탑에서 발견된 금강경판은 ‘관세음응험기’에 기록된 백제 무왕이 제석사지 탑에 봉안하였다는 ‘반야경’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과 함께 10세기 초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금동불입상이 함께 출토되었다는 점이다. 어쩌면 금강경판과 사리함이 백제·통일신라 혹은 후백제에서 만들었을 것이라는 식의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 탑에 이러한 사리장엄구를 봉안한 시기가 후백제가 익산지역을 경영하던 10세기 초라는 점이다.</p>	<p>1960년 대 전주에서 논산으로 가는 1번 국도 변에 자리한 낮은 언덕에 한쪽으로 기운 석탑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기울어진 석탑은 1965년 석탑 중수를 통해 오늘날 왕궁리 오층석탑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중수 과정에서 석탑 1층 지붕돌 윗면과 심초석에서 금강경판과 함, 금제 사리함과 수정병 등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왕궁리 5층 석탑에서 발견된 금강경판은 백제 무왕이 제석사지 탑에 봉안했다는 ‘반야경’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10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금동불입상이 함께 출토되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금강경판과 사리함이 백제, 통일신라 혹은 후백제에서 만들었을 것이라는 각각의 주장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왕궁리 오층석탑에서 사리장엄구를 봉안한 시기가 후백제가 익산 지역을 다스리던 10세기 초라는 것입니다.</p>	<p>이것은 금강경판과 함, 금제 사리함과 수정병이다.</p> <p>1960년대 전주에서 논산으로 가는 1번 국도변 낮은 언덕에 있던 한쪽으로 기울어진 오층 석탑을 1965년에 다시 손질하여 고치던 중 석탑 1층 지붕돌 윗면과 심초석(심초석탑의 가운데에 세우는 기둥의 기초가 되는 돌)에서 발견되었다.</p> <p>또한, 금강경판은 백제 무왕이 제석사지 탑에 봉안했다는 ‘반야경’으로 추정된다. 흥미로운 것은 10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금동불입상이 함께 출토되었다는 것이다.</p> <p>금강경판과 사리함의 만들어진 시기가 백제, 통일신라인지 혹은 후백제이지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석탑에 사리장엄구를 봉안한 시기가 후백제가 익산 지역을 다스렸던 10세기 초라는 것이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7	김제 대목리 출토 판불	<p>1980년 3월 7일 김제시 성덕면 대목리 탄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 집 근처 자신의 밭(대목리 산29번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던 중 불상이 새겨진 작은 동판 4개를 발견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세간의 화제가 됐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 익산 등지에서만 확인되던 백제의 불상이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발견된 4점의 크기나 조각은 제각각이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동판(7.3×7.8cm)에는 화려한 장막 아래 부처와 꽃을 든 두 구의 보살을 새겼다. 두 번째로 큰 것(6.8×6.8cm)에는 반가사유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한 나한상을 조각했다. 세 번째로 큰 것(8.8×5.0cm)에는 감실 안 나한상을 상하 7구씩 총 14구를 조각했으며, 가장 작은 것(3.5×6.1cm)에는 감실 안에서 선정하고 있는 부처를 새겼다. 이 조각상들은 서산 마애삼존불, 경주 남산 삼화령 미륵삼존불 등 삼국시대 7세기 중엽 불상과 유사한 면모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대체로 650년 무렵에 백제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의식이나 예배의 대상으로는 작은 이 판불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한 편에서는 큰 판에 부착하여 벽면을 장식했을 것으로 여겨졌고, 또 다른 편에서는 가장 큰 판불에 달려있는 네 개의 다리와 판불 가장자리가 움푹 들어간 점을 근거로 얇은 판을 두드려 만드는 압출불(壓出佛)을 만들 때 썼던</p>	<p>1980년 3월 7일 김제시 성덕면 대목리에 거주하는 주민이 집 근처 자신의 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던 중 불상이 새겨진 작은 동판 4개를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동판의 크기나 조각은 제각각인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동판에는 화려한 장막 아래 부처와 꽃을 든 두 구의 보살을 새겼습니다. 두 번째로 큰 것에는 반가사유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나한상을 조각했고, 세 번째로 큰 것에는 감실 안 나한상 14구를 조각했으며, 가장 작은 것에는 감실 안에서 선정하는 부처를 새겼습니다. 이 조각상들은 7세기 중엽 삼국시대의 불상과 유사한 면모를 보입니다. 따라서 650년 무렵에 백제에서 동판을 만든 것으로 추정합니다. 용도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는데 먼저 큰 판에 부착하여 벽면 장식용으로 쓰였다는 의견과 가장 큰 판불에 달려있는 네 개의 다리와 판불 가장자리가 움푹 들어간 점을 근거로 압출불을 만들 때 썼던 틀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판불 표면에서 금 성분이 추출되어 압출불의 틀이 아닐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후대에 도금을 할 수도 있고 개금불사도 발견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제 대목리 판불이 출토되기 전까지만 해도 부여, 공주, 익산 등의 도시와 백제와 중국의 교통로에 해당하는 예산, 서산, 태안 등에만 판불이 발견되었습니다. 김제에서의 판불 출토는 백제의 핵심 도시로 김제도 기능을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p>	<p>이것은 불상이 새겨진 작은 동판 4개이다.</p> <p>1980년 3월 7일 김제시 성덕면 탄상마을의 주민이 자신의 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다가 발견하였다.</p> <p>크기와 새겨진 조각은 제각각인데 그중 가장 큰 것의 모양은 화려한 장막 아래 부처와 꽃을 든 두 구의 보살 모양이다. 두 번째로 큰 것의 모양은 반가사유상이 가운데 있고 좌우에 나한상이 조각되어 있다.</p> <p>세 번째로 큰 것의 조각은 감실안 나한상이 위아래 7구씩 모두 14구의 모양이다.</p> <p>제일 작은 것은 감실 안에서 선정하고 있는 부처의 모양이 새겨져 있다.</p> <p>이것의 사용 목적은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 의견은 큰 판에 부착하여 벽면 장식용으로 쓰였다는 의견이고, 두 번째 의견은 압출불을 만들 때 썼던 틀이었다는 의견이 있다.</p> <p>그러나 최근 판불 표면에 금 성분이 발견되어 압출불의 틀이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p> <p>하지만 도금은 후대에도 할 수 있고 개금불사도 발견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다.</p> <p>이것의 발견으로 김제시 성덕면 대목리가 백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p>틀로 보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표면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금(Au) 성분이 나와 압출물의 틀이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사찰에서 개금불사가 발견되는 데다 도금은 후대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압출물의 틀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판불이 발견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백제의 불상은 부여, 공주, 익산 등 중요한 도시와 백제에서 중국으로 가는 중요한 교통로 예산, 서산, 태안 등에만 발견됐다. 이 판불이 출토된 김제시 성덕면 대목리가 백제에서 중요했던 곳이라는 짐작이 가능한 대목이다. 판불이 발견된 2년 뒤 정읍시 소성면 보화리에서도 백제 석불 2구가 발견됐는데, 백제의 중방성으로 여겨지는 고부와 매우 가까운 곳이다. 김제 대목리 출토 판불과 정읍 보화리 석불입상은 백제가 중국으로 가는 교통로뿐만 아니라 중요한 남방 교통로를 뜻한다 하겠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8	낙수정 출토 범종	<p>1999년 7월 다카하라 히미꼬(高原 日美子)라는 여인이 일본 후쿠오카현청교육위원회를 방문하여 한국 종 1구를 기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는 여사에게 원 소유국의 문화기관에 기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을 하였고, 고심 끝에 여사는 같은 해 10월 한국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기증할 것을 약속했다. 같은 해 11월 5일 동종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을 떠난 뒤 실로 73년 만에 그리운 고국 땅을 밟은 것이었다. 이 동종은 2001년 9월 21일 보물 제1325호로 지정되었고, 이후 국립전주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 이 동종이 국립전주박물관의 소장품이 된 이유는 일제강점기 3대 조선총독인 사이토 마코토(齊藤實)가 1926년 일본 수성원(水城院)에 동종을 기증하면서 보낸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이토의 편지에 따르면 동종은 당시 전주면(全州面)에 살던 박모(朴某)가 자신 소유 낙수정(樂壽亭) 수리시 땅 속에서 발견한 것으로써, 1916년 경성(京城)에서 열린 공진회(共進會)에 출품하기도 하였다. 동종의 원소재지가 전주였던 것이다. 한편 동종이 발견된 곳에서 1909년에 '開元寺'(개원사)가 새겨진 기와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동종은 전주 개원사라는 절에 걸려있던 종으로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종을 매다는 부분이 깨어지자 땅속에</p>	<p>1999년 7월 타카하라 히미꼬라는 일본인이 후쿠오카현청교육위원회를 방문하여 한국 종 1구를 기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원 소유국의 문화기관에 기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을 했고, 고심 끝에 같은 해 10월 한국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기증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11월 5일 동종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동종은 2001년 9월 21일 보물 제1325호로 지정되었고, 이후 국립전주박물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으로 이관된 이유는 일제강점기 제3대 조선총독인 사이토 마코토가 1926년 일본 수성원에 동종을 기증하면서 보낸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종은 당시 전주면에 살던 박 모씨가 자신이 소유한 낙수정을 수리할 때 땅 속에서 발견한 것이라는 내용을 편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종의 원 소재지가 '전주'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종이 발견된 곳에서 1909년 '개원사'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개원사라는 절에 걸려있던 동종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동종은 통일신라의 동종을 연상시키면서도 고려 초의 동종의 세부 표현과 유사합니다. 아마도 10세기 중엽에서 11세기 전반에 조성하였을 것으로 봅니다.</p>	<p>이 종이 발견된 곳에서 1909년에 '개원사'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가 발견되어 이 절에 걸려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동종이다.</p> <p>통일신라와 고려 초의 동종과 세부모양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10세기 중엽에서 11세기 전반에 조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p> <p>1999년 어느 일본인이 후쿠오카현청교육위원회에 한국 종 1구를 기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원소유국에 기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에 따라 같은 해 11월 5일에 한국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기증하였다.</p> <p>2001년 9월 21일 보물 제1325호로 지정되었고 이후, 국립전주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p> <p>국립전주박물관으로 이관된 이유는 일제강점기 제3대 총독이 1926년 일본 수성원에 이종을 기증할 때 보낸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편지 내용에 '전주면에 살던 박 모씨가 소유한 땅 속에서 이 종을 발견했다'고 되어 있어 종의 원소재지가 '전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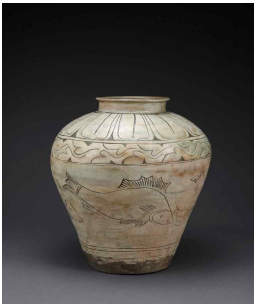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p>물렸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개원사는 폐사되고 조선시대 낙수정이라는 정자가 들어섰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 낙수정 동종은 통일신라 동종을 연상시키면서도 고려 초 동종의 세부 표현과 유사한 것으로 미루어 10세기 중엽에서 11세기 전반에 조성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이 동종과 흡사한 종이 일본 원청사(圓淸寺)에도 있다. 이 두 종은 크기는 물론이고 넝쿨무늬·비천 등의 모습까지도 유사하여 같은 장인(匠人)이 동일한 문양판(文樣板)을 사용하여 조성한 것으로 추측된다. 불가(佛家)에서 동종의 소리는 '일승지원음(一乘之圓音)', 즉 '부처의 소리'를 의미한다.또 종을 매다는 부분의 대나무 관과 같은 음통은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는 신라의 보물 만파식적(萬波息笛)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한다. 천년 전 옛 전주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소원을 들어주었을 이 동종의 소리는 지금도 국립전주박물관 전시실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9	원수리 출토 순금제 불상	<p>이 순금불상은 1963년 8월 6일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에 살던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발견하였다. 이 순금불상이 발견된 장소는 마을사람 사이에서 이미 독적골 절터로 알려졌던 곳이었다. 그런데 관람객이 가장 사랑하는 이 순금불상이 금은방에 팔려 금반지가 될 뻔한 적이 있다. 바로 이 불상을 발견한 사람이 충남 논산의 한 금은방에 팔려갔다가 금값으로 여섯 돈을 쳐주겠다고 실망하고 돌아서는 찰나 순경이 이를 발견하여 현재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다. 깨달음을 얻은 존재인 부처의 모습은 불교경전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몸에 황금빛이 난다는 내용이 있다. 경전의 내용을 충실히 따르려면 황금으로 만들면 될 것이다. 그런데 삼국시대 이래 수많은 불상 가운데 순금으로 만든 불상은 경주 구황동 삼층석탑에서 출토된 2구와 익산 원수리 출토 순금제 불상 1구 등 3구밖에 없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부터 황금은 매우 귀하고 비싼 보석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불상은 철이나 동과 같은 금속, 나무, 흙, 돌로 만들었으며, 황금빛을 내기 위해 도금을 하였을 뿐이다. 불상은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을 때 취했다는 항마촉지인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석가모니불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역삼각형 얼굴, 오른쪽 어깨 위를 살짝 걸친 옷자락, 대좌 등의 형태는 중국 원대 성행하였던 네팔과 티베트</p>	<p>이 순금불상은 1963년 8월 6일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에 살던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발견하였습니다. 순금불상이 발견된 장소는 마을 사람들이 이미 독적골 절터로 알려졌던 곳입니다. 순금불상을 발견한 사람은 금은방에 팔려고 했으나 제값을 못 받는 거 같아 돌아가는 중 순찰 중인 순경이 이를 발견하여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부처의 모습은 불교 경전에서는 몸에 황금빛이 난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경전의 내용에 충실히 따르기 위해 황금으로 만들고 싶어 했으나 황금은 워낙 귀했기 때문에 철이나 동 같은 금속, 나무, 흙, 돌로 만들었습니다. 황금빛을 내기 위해 도금을 했을 뿐입니다. 불상의 모습은 항마촉지인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석가모니 불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삼각형 얼굴, 오른쪽 어깨 위를 살짝 걸친 옷자락, 대좌 등의 형태는 네팔과 티베트의 불교인 라마교의 불상과 유사합니다. 불상의 뒷면에 남선인 신축정월일 김○○(男 善人 辛丑正月日 金○○)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로써 신축년 1월에 김모라는 사람이 발원한 불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팔과 티베트 불상의 영향을 받은 것과 신축년이라는 단서를 종합해보면, 1361년에 불상이 발원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불상 상단에는 고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줄을 꿰어 마치 목걸이처럼 몸에 지니고 다녔을 것으로 보입니다.</p>	<p>순금으로 만든 불상이다. 1963년 8월 6일 익산 독적골 절터로 알려진 곳에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발견했다. 농부는 금은방에 팔려고 갔다가 생각했던 만큼의 값을 못 받게 되어 돌아서는 찰나 순경이 발견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불교경전을 보면 부처는 황금빛이 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황금은 매우 귀하고 비싸 대부분 철이나 동, 금속, 나무, 흙, 돌로 만든 후 도금을 한다. 삼국시대 이후 수많은 불상 중 순금으로 만든 것은 익산 원수리 불상 1구와 경주 삼층석탑에서 발견된 불상 2구로 3구밖에 없다. 항마촉지인(부처의 손 모양에서 오른손을 풀어서 오른쪽 무릎에 엮고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는 손 모양)의 모습을 보아 석가모니 불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얼굴형이 역삼각형이고 오른쪽 어깨 위에 살짝 걸친 옷자락, 대좌(불상을 안치하는 대)의 모습은 라마교의 불상과 비슷하다. 불상 뒷면에 새겨진 글을 보아 신축년 1월에 김모라는 사람이 발원(부처에게 소원을 비는 것)한 것을 알 수 있다. 상단에 고리가 있는데 아마도 여기에 줄을 꿰어 목걸이처럼 몸에 지녔을 것으로 생각된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p>의 불교인 라마교의 불상과 유사하다. 불상의 뒷면에 남선인 신축정월일 김○○(男 善 人 辛丑正月日 金○○)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로써 신축년 1월에 김모라는 사람이 발원한 불상임을 알 수 있다.이 불상에서 네팔과 티베트 불상의 영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신축년은 1361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상단에는 고리가 하나 달려 있는데, 여기에 줄을 꿰어 마치 목걸이처럼 몸에 지니고 다녔을 것으로 생각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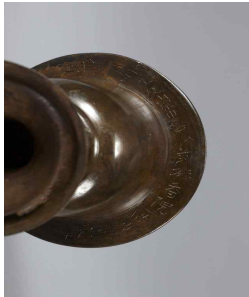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0	유천리출토 청자 (구름용 무늬매병과 모란무늬 매병)	<p>고려청자를 보고 고려의 문인 이규보(李奎報 · 1168~1241)는 그의 시에서 “푸른 자기 술잔을 만든 솜씨는 하늘의 조화를 빌려왔나 보구려”라고 하였고, 중국 송나라 문신인 서경(徐兢)은 ‘선화봉사고려도경’에서 “도기의 색이 푸른 것을 고려인들은 비색이라고 하며, 근래에 들어 제작이 공교해지고 광택이 더욱 아름다워졌다.”라고 하였으며, 중국 송나라의 태평노인은 “고려의 비색자기는 천하에서 제일”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고려청자의 주요 생산지가 바로 전북이다. 줄포만에 인접한 고창 용계리와 반암리, 부안 진서리와 유천리는 전남 강진만의 용운리, 계율리, 사당리와 함께 양질의 고려청자가 만들어졌던 곳이다. 부안 일대의 청자요지에서는 음각, 양각, 투각, 상감, 철화, 퇴화, 철채 등 다채로운 기법으로, 구름과 학, 파도와 물고기, 국화, 모란, 연화, 넝쿨무늬, 포류수금 등 다양한 무늬를 새긴 청자를 만들었다. 주된 형태는 대접, 발, 접시, 잔과 잔받침, 병, 매병, 의자, 향로, 장구, 주자 등이 있다. 진서리에서는 양질의 청자 외에도 약간 질이 떨어지는 일상 용기들이 주로 생산된 반면, 부안 유천리 요지에서는 양질의 세련된 청자가 생산되었다. 양질의 유천리 청자는 왕실에도 납품되었는데, 고려 명종(재위 1170~1202)의 지릉에서 출토된 청자와 유천리 청자가 유사한 점이나 유천리 특유의 흑백퇴화문 청자접시가 희종(재위 1204~1211) 석릉에서 출토된 점, 고려 국왕의 행궁으로 추정되는 파주 혜음원(1122년 창건) 유적에서</p>	<p>고려청자는 고려 내부뿐만 아니라 중국 송나라에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을 만큼 도기의 색과 광택, 모양이 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려청자의 주요 생산지가 바로 전북지역이었습니다. 줄포만에 인접한 고창 용계리와 반암리, 부안 진서리와 유천리는 전남 강진만의 용운리, 계율리, 사당리와 함께 양질의 고려청자가 만들어진 곳입니다. 부안 일대의 청자요지에서는 음각, 양각, 투각, 상감, 철화, 퇴화, 철채 등 다양한 기법으로 구름과 학, 파도와 물고기, 국화, 모란, 연화, 넝쿨무늬, 포류수금 등 다양한 무늬를 새긴 청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주된 자기의 형태는 대접, 발, 접시, 잔과 잔받침, 병, 매병, 의자, 향로, 장구, 주자 등이 있습니다. 진서리에서는 양질의 청자 외에도 일상 용기들이 주로 생산된 반면 부안 유천리 요지에서는 양질의 세련된 청자만을 생산하였습니다. 양질의 유천리 청자는 왕실에도 납품이 되었는데, 고려 명종의 지릉에서 출토된 청자가 유천리 청자와 유사하다는 점과 유천리 특유의 흑백퇴화문 청자접시가 고려 희종의 석릉에서 나왔다는 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국립전주박물관에 전시 중인 유천리 출토 매병은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의 대형 매병입니다. 매병은 아가리가 좁고 짧으며, 어깨는 넓고 밑이 가름한 형태의 병입니다. 표면은 상감기법으로 모란과 용무늬를 아름답게 장식하였습니다. 특히 모란무늬 매병은 일제강점기 현재 전주초등학교 자리에서 발견된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p>	<p>이것은 고려청자인 구름용무늬 매병과 모란무늬 매병이다. 부안 유천리에서 제작한 것으로 몇 안 되는 대형 크기의 매병이다. 일제강점기 현재 전주초등학교 자리에서 발견하였다. 아가리가 좁고 짧으며 어깨는 넓고 밑이 가름한 형태이다. 하나는 용무늬, 하나는 모란무늬가 아름답게 새겨져 있다.</p> <p>전북지역은 고려청자의 주요 생산지로 줄포만에 인접한 부안 진서리와 유천리, 고창은 전남의 강진만, 사당리와 함께 질 좋은 고려청자만을 생산한 곳이다. 부안 일대에서는 음각, 양각, 투각, 상감 등 다양한 기법으로 구름과 학, 파도와 물고기 등 다양한 무늬를 새겨넣었다. 주로 대접, 접시, 잔과 잔받침, 병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었다. 부안 유천리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것이 고려 명종의 능과 희종의 능 그리고 고려 국왕의 행궁으로 추정되는 파주 혜음원에서 발견되어 양질의 유천리 청자가 왕실에도 납품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p>이를 확인할 수 있다.특히 부안 유천리 요지에서는 70~90cm에 달하는 대형의 매병이 출토되기도 하였는데, 국립전주박물관에 전시 중인 매병 두 점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손에 꼽을 수 있는 대형 매병이다. 매병은 아가리가 좁고 짧으며, 어깨는 넓고 밑이 가름한 형태의 병이다. 표면은 상감기법으로 모란과 용무늬를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특히 모란무늬로 장식된 매병은 일제강점기 현재 전주초등학교에서 발견된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깊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1	분청사기 물고기무늬 항아리	<p>고창 용산리 가마는 조선시대 15~16세기에 걸쳐 분청사기, 백자, 흑유자기 등을 만들었던 곳으로 현재까지 4기의 가마가 발견되었다. 분청사기는 인화, 박지, 귀얄, 덩병 등의 다양한 제작 기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백자는 연질과 경질이 함께 출토되었다. 특히 내섬시內贍寺나 예빈시禮賓寺와 같은 중앙 관청에 납품할 정도의 양질의 분청사기와 관요 자기 양식의 영향을 받은 상급의 백자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고창 용산리 가마의 출토품 가운데 분청사기 물고기무늬 항아리는 아가리가 밖으로 벌어지고 어깨에서 몸체까지 당당한 양감과 풍만함이 돋보이는 대형 항아리이다. 백토는 아가리부터 몸체의 아랫부분까지 두텁게 입혔다. 어깨와 몸체의 윗부분에는 무늬를 제외한 바탕의 백토를 긁어내는 박지剝地 기법과 원하는 무늬를 음각 선으로 표현하는 조화彫花 기법을 함께 사용하여 각각 연꽃잎과 모란잎을 대범하고 단순하게 표현했다. 몸체의 가운데 부분에는 조화 기법을 사용하여 몸체, 얼굴과 지느러미를 간략하게 그려낸 물고기 한 마리씩을 둘러가며 장식했다. 미적인 감각과 함께 물고기를 표현한 문양에서 소박함이 느껴진다.</p>	<p>고창 용산리 가마는 조선시대인 15~16세기에 걸쳐 분청사기, 백자, 흑유자기 등을 만들었던 곳이며, 현재까지 4기의 가마가 발견되었습니다. 분청사기는 인화, 박지, 귀얄, 덩병 등의 다양한 제작 기법을 사용했으며, 백자는 연질과 경질이 함께 출토되었습니다. 특히 내섬시나 예빈시와 같은 중앙 관청에 납품할 정도의 분청사기와 관요 자기 양식의 상급 백자가 출토되어 주목됩니다. 고창 용산리 가마의 출토품 중 하나인 이 분청사기 물고기무늬 항아리는 아가리가 밖으로 벌어지고 어깨에서 몸체까지 당당한 양감과 풍만함이 돋보이는 대형 항아리입니다. 백토는 아가리부터 몸체의 아랫부분까지 두텁게 입혔습니다. 어깨와 몸체 윗부분에는 무늬를 제외한 바탕의 백토를 긁어내는 박지 기법과 원하는 무늬를 음각의 선으로 표현하는 조화 기법을 함께 사용하여 연꽃잎과 모란잎을 대범하고 단순하게 표현했습니다. 몸체의 가운데에는 조화 기법을 통해 물고기 한 마리씩을 둘러가며 장식했습니다. 미적 감각과 함께 물고기를 표현한 문양에서 소박함이 느껴집니다.</p>	<p>분청사기 물고기무늬 항아리이다. 고창 용산리 가마에서 출토되었다. 아가리가 밖으로 벌어지고 어깨에서 몸체까지 당당한 양감과 풍만함이 돋보이는 대형 항아리이다. 어깨와 몸체 윗부분에는 무늬를 제외한 바탕의 백토를 긁어내는 박지기법과 원하는 무늬를 음각의 선으로 표현하는 조화기법을 함께 사용하여 연꽃잎과 모란잎을 대범하고 단순하게 표현했다. 몸체의 가운데에는 조화기법으로 물고기 한 마리씩을 둘러가며 장식했다. 미적 감각과 함께 물고기를 표현한 문양에서 소박함이 느껴진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2	군산비안도와 십이동파도 출토청자	<p>지난 2002년 전라북도 군산시 고군산도에 위치한 비안도에서는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바뀐 물길로 인해서 노출된 고려청자를 비롯한 고려시대의 유물을 다량 인양하였다. 이 가운데 고려청자는 3,177점에 달하며 그 종류는 대접, 접시, 발, 완 등 다양하다. 이 중에는 양질의 비색청자가 많은데, 표면에는 앵무새무늬, 연꽃무늬, 넝쿨무늬, 모란무늬 등 다채로운 문양이 섬세하게 장식되어 있다. 청자의 형태나 무늬, 제작 기법 등으로 볼 때, 부안 유천리 가마에서 출토된 양상과 유사하여 주목된다. 한편, 비안도 북방의 십이동파도에서도 지난 2003년에 8,117점에 달하는 고려청자가 발견되었다. 특히 십이동파도 해저유적은 11세기 중·후반 완도선과 13~14세기의 목포 달리도선과 더불어 고려시대 선박 구조와 발달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선체가 조사되었다. 이곳에서 출토된 청자는 대접, 완, 접시, 항아리 등의 생활용기가 다수를 차지하며, 대부분 무늬가 없지만 넝쿨무늬, 연판무늬가 일부 장식되어 있다. 또한 적재 및 포장된 상태로 출토되어 고려시대의 청자의 운송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p>	<p>2002년 전북 군산시 고군산도에 위치한 비안도라는 섬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바뀐 물길로 인해 노출된 고려청자를 비롯한 유물들을 다량 인양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고려청자는 3,177점에 달하며, 그 종류는 대접, 접시, 발, 완 등 다양합니다. 이 중에는 양질의 비색청자가 많은데 표면에는 앵무새, 연꽃, 넝쿨, 모란 등의 무늬가 섬세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형태, 무늬, 제작기법 등으로 볼 때 부안 유천리 가마에서 출토된 것들과 유사합니다. 비안도 북쪽의 십이동파도에서도 지난 2003년에 8,117점에 달하는 고려청자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십이동파도 해저 유물에서는 11세기 중, 후반의 완도선과 13~14세기의 목포 달리도선과 더불어 고려시대의 선박 구조와 발달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선체가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대접과 완, 접시, 항아리 등의 청자들이 적재, 포장된 상태로 발견되어 고려시대 청자의 운송과정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p>	<p>2002년 전북 군산시 고군산도에 위치한 비안도라는 섬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물길이 바뀌어 고려청자 및 다량의 유물들이 노출되었다. 이 가운데 고려청자는 3,177점에 달하며 그 종류는 대접, 접시, 발, 완 등 다양하다. 이 중 양질의 비색청자가 많은데 표면에 앵무새, 연꽃, 넝쿨, 모란 등의 무늬가 섬세하게 장식되어 있다. 형태, 무늬, 제작기법 등을 볼 때 유천리 가마에서 출토된 것들과 비슷하다. 비안도 북쪽의 십이동파도에서도 2003년에 8,117점에 달하는 고려청자가 발견됐다. 특히 십이동파도 해저 유물에서는 11세기 중,후반의 완도선과 13~14세기 목포 달리도선과 함께 고려시대의 선박 구조와 발달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선체가 조사되었다. 이곳에서 출토된 청자는 생활용기가 다수이며 대부분 무늬가 없지만 넝쿨무늬, 연판무늬가 일부 장식되어 있었다. 또한 적재 및 포장된 상태로 출토되어 고려시대 청자의 운송과정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3	용무늬 대야	<p>불교가 번성했던 고려시대에는 불교의식과 관련된 물품을 공들여 만들었다. 이 커다란 대야는 고려시대 12~13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일반적인 용도의 것이라기보다는 왕실, 또는 사찰에서 관불의식 灌佛儀式(사월 초파일에 아기 부처상의 정수리에 물을 뿌리는 의식)을 행할 때 쓰이는 관불반 灌佛盤으로 추정된다. 보기 드문 대형의 작품으로, 전면에는 빈틈없이 은입사 銀入絲로 장식하였다. 둥글게 돌아간 넓은 전의 가장자리는 도톰하게 말아 번개무늬를 넣었고, 전 부분에는 넝쿨무늬를 장식하였다. 안쪽 바닥면의 중앙에는 칠보 모양의 큰 여의주를 중심으로 두 마리의 용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은 여의주를 잡으려는 듯한 모습을 새겨 넣었으며, 여백에도 넝쿨무늬를 빈틈없이 장식하였다. 고려시대의 은입사기법이 대야에까지 활용된 예로 귀족사회의 풍요로운 일면을 반영하고 있다.</p>	<p>이 대야는 고려시대 12~13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일반적인 용도가 아닌 왕실, 또는 사찰에서 관불의식(부처님 오신 날에 아기 부처상의 정수리에 물을 뿌리는 의식)을 행할 때 쓰는 관불반으로 추정됩니다. 크기가 큰 편으로 보기 드문 모습이며, 전면에는 빈틈없이 은입사로 장식하였습니다. 가장자리는 도톰하게 말아 번개무늬를 넣었고, 전 부분에는 넝쿨무늬를 넣었습니다. 안쪽 바닥면의 중앙에는 칠보 모양의 큰 여의주를 중심으로 두 마리의 용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은 여의주를 잡으려는 듯한 모습을 새겨 넣었습니다. 여백에도 넝쿨무늬를 빈틈없이 넣어 용무늬 대야는 귀족사회의 풍요로운 일면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p>	<p>이 대야는 12~13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왕실이나 사찰에서 관불의식(부처님 오신 날에 아기 부처상의 정수리에 물을 뿌리는 의식)을 행할 때 쓰이는 관불반으로 추정된다. 보기 드물게 크기가 크며 전면에는 빈틈없이 은입사로 장식했다. 가장자리는 도톰하게 말아 번개무늬를 넣었고, 전 부분에는 넝쿨무늬를 넣었다. 안쪽 바닥면의 중앙에는 칠보 모양의 큰 여의주를 중심으로 두 마리의 용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작은 여의주를 잡으려는 듯한 모습을 새겨 넣었다. 여백에도 넝쿨 무늬를 빈틈없이 넣었다. 고려시대의 은입사기법이 대야에까지 활용되어 귀족사회의 풍요로운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4	전주 화엄사 출토 청동제 향완	<p>공양구供養具는 부처님께 바치는 공양품인 향, 꽃, 물, 음식 등을 담는 것으로 향합과 향로, 꽃바구니(화롱華籠), 화병華瓶, 촛대 등이 있다. 특히 향로, 화병, 촛대는 불전에 올리는 기본적인 공양구로 삼구족三具足이라고 한다. 부처님께 향을 공양할 때 사용하는 향로香爐가운데 나팔처럼 퍼진 높은 굽과 넓은 전이 달린 그릇 모양의 몸체를 가진 향로를 향완香垸이라고 한다. 향완은 처음에 금속으로 만들어졌으며, 고려시대에는 장식성이 가미된 은입사향완이 유행하였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청자가 만들어지면서 금속기를 본뜬 청자향완도 만들어졌다. 전주 화엄사 출토 청동제 향완은 1967년 완주군 상관면 대성리(현 전주시 대성동)의 화엄사 터에서 글자가 새겨진 쇠북·접시와 함께 발견되었다. 이 유물들은 큰 향완을 제외하고 모두 철제 솥 안에 넣어졌다. 같이 출토된 쇠북의 측면에 ‘을유…전주화엄사…중삼십근(乙酉…全州華嚴寺…重三十斤)’이라고 새겨져 있어 이들 유물이 전주 화엄사에서 사용한 불교 공양구임을 짐작할 수 있다. 향완은 넓은 전, 둥그스름한 몸체, 나팔형의 굽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밋밋하게 표현된 전, 각진 몸체, 단으로 이루어진 굽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p>	<p>공양구는 부처님께 바치는 공양품인 향, 꽃, 물, 음식 등을 담는 것으로 향합과 향로, 꽃바구니, 화병, 촛대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로, 화병, 촛대는 불전에 올리는 기본 공양구로 삼구족(三具足)이라고 합니다. 향로 중에 나팔처럼 퍼지고 높은 굽과 넓은 전이 달린 그릇 모양의 향로를 ‘향완’이라고 합니다. 향완은 초기에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고려시대에는 장식성이 가미된 은입사향완이 유행하였습니다. 또한 청자가 만들어지면서 청자 향완도 만들어졌습니다. 전주 화엄사 출토 청동제 향완은 1967년 완주군 상관면 대성리(현재 전주시 대성동)의 화엄사 터에서 글자가 새겨진 쇠북, 접시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함께 출토된 쇠북의 측면에 ‘을유…전주화엄사…중삼십근(乙酉…全州華嚴寺…重三十斤)’이라고 새겨져 있어 이들 유물이 전주 화엄사에서 사용한 불교 공양구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p>	<p>이것은 향로의 일종으로 청동으로 만든 ‘향완’이다.</p> <p>향완이란 나팔처럼 퍼지고 높은 굽과 넓은 전이 달린 그릇 모양의 향로를 뜻한다.</p> <p>향완은 초기에 금속으로 만들었고 고려시대에는 장식성이 가미된 은입사향완이 유행했다. 또 청자가 만들어지면서 청자향완도 만들어졌다.</p> <p>이 향완은 1967년 완주군 상관면 대성리의 화엄사 터에서 글자가 새겨진 쇠북, 접시와 함께 발견되었다.</p> <p>함께 출토된 쇠북의 측면에 새겨진 글씨로 보아 이들 유물이 전주 화엄사에서 사용한 불교 공양구(부처님께 바치는 공물을 담는 그릇)임을 알 수 있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5	제석사지 출토 천부 얼굴	<p>제석사는 백제무왕 40년(639)에 불이 나 불당, 7층탑, 회랑 등이 전소되었다는 기록이 중국 남북조시대 관세음상의 영험담을 모아 놓은 관세음응험기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에서 동쪽으로 약 1.4km 떨어져 있는 절터에서 1942년 ‘제석사’가 새겨진 기와가 발견되었어요. 한편, 제석사지에서 북동쪽으로 500m 떨어진 곳에는 불에 탄 제석사지의 기와, 소조상 등을 버린 폐기장이 있는데, 이 곳에서는 346점의 불보살, 천인, 신장, 악귀, 동물 형상의 소조상 파편이 발견되었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천인상의 얼굴은 우아하고 부드러운 백제의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 있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악귀상은 신장에게 밝힌 악귀의 일그러진 표정을 매우 실감나게 표현하였어요. 제석사지에서 발견된 소조상과 유사한 것들이 부여 정립사지, 능사, 구아리 절터, 중국 낙양 영녕사, 일본 법륭사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석사지 소조상은 어떤 곳에 봉안되었을까? 이 소조상들은 중국 북위 낙양 영녕사나 일본 법륭사 목탑 안에 있는 소조상의 예로 미루어 볼 때, 1층 탑신 안 사천주 주변에 조성된 예불도나 변상도의 일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요. 제석사지 목탑을 장식했던 소조상은 언제 폐기되었을까? 아쉽게도 그 시기나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다만 통일신라시대 기와가 절터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통일신라시대까지는 법등이 이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답니다.</p>	<p>제석사는 백제 무왕 40년(639)에 불이 나 불당, 7층 탑, 회랑 등이 전소되었다는 기록이 중국 남북조시대의 관세음응험기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익산 왕궁리 5층 석탑 동쪽으로 약 1.4km 떨어진 절터에서 1942년에 ‘제석사’가 새겨진 기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석사지에서 북동쪽으로 500m 떨어진 곳에는 불에 탄 제석사의 기와 소조상을 버린 폐기장이 있는데, 이 곳에서 346점의 불보살, 천인, 신장, 악귀, 동물 형상의 소조상 파편이 발견되었습니다. 천부의 얼굴을 묘사한 이 천인상은 우아하고 부드러운 백제의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석사지의 소조상과 유사한 것이 부여 정립사지, 능사, 구아리 절터, 중국 낙양 영녕사, 일본 법륭사 등에서도 확인됩니다. 중국과 일본의 소조상의 예를 미루어 볼 때, 1층 탑신 안 사천주 주변에 조성된 예불도나 변상도의 일부로 소조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조상이 폐기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통일신라의 기와가 절터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통일신라시대까지 법등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p>	<p>이것은 제석사지에서 출토된 유물이다. 천부의 얼굴을 묘사한 것으로 우아하고 부드러운 백제의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 있다.</p> <p>백제 무왕 40년에 제석사에 불이 나 불당, 7층 탑 등이 전소되었다는 내용은 중국 남북조시대의 관세음응험기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p> <p>실제로 1942년에 익산 왕궁리 5층석탑에서 동쪽으로 1.4km 떨어진 절터에서 ‘제석사’가 새겨진 기와가 발견되었다.</p> <p>또 제석사지 북동쪽으로 500m 떨어진 곳에는 불에 탄 제석사의 기와, 소조상 등을 버린 폐기장이 있는데, 이곳에서 346점의 불보살, 천인, 신장, 악귀, 동물 형상의 소조상 파편이 발견되었다.</p> <p>제석사지 소조상과 유사한 것들이 부여 정립사지, 능사, 구아리 절터, 중국 영녕사, 일본 법륭사 등에서도 확인이 된다.</p> <p>이 소조상들은 중국과 일본의 소조상의 예로 미루어 볼 때, 1층 탑신 안 사천주 주변에 조성된 예불도나 변상도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p> <p>소조상의 폐기 이유와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통일신라시대 기와가 절터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 시대까지는 법등이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6	진안도통리 초기청자	<p>중국 절강성의 월주요로부터 청자제작기술이 도입되면서 도자기 생산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기 시작하였어요. 한반도 중서부 지역에 위치한 초기 청자 생산지 가운데 대표적 유적지 중 하나인 경기도 시흥 방산동 가마터는 중국 오대 월요와 가마 축조 방식, 제작 양상 등이 매우 유사하여 초기 청자 제작 기술이 늦어도 10세기 중반에 중국에서 유입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초기 청자 가마는 직사각형 벽돌을 이용하여 만든 벽돌 가마였다. 가마를 벽돌로 쌓아 축조하고 측면출입구를 만들어 사람의 출입과 자기를 적재하는 이 대형 가마는 이전까지 한반도에는 없는 새로운 시설이었어요. 초기 전축요의 유형으로 볼 수 있는 가마로는 황해도 배천 원산리, 경기도 시흥 방산동, 용인 서리, 고양 원흥동, 양주 부곡리, 서산 오사리 등에서 발견된 가마가 여기에 해당해요. 가마길이가 20m 정도인 벽돌 가마가 경기도 여주 중암리, 전북 진안 도통리(道通里), 대구 진인동 등에서도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후백제의 옛 영토인 진안 도통리에서는 초기청자를 생산하였는데, 이곳의 청자 가마를 후백제에 의해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의견도 있어요. 이는 후백제와 오월의 돈독한 국제외교 관계에 근거하여, 오월에 여러 차례 사신을 파견하고 교류를 가졌던 후백제가 당시 백제의 옛 유적에서 출토되는 중국 도자의 사용을 넘어 그 제작기술의 도입을 마다했을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월과의 국제외교가 시작된 이래로 줄곧 청자 제작기술의 도입은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로 청자의 수입만으로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본격적인 청자 제작을 시도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견훤이 줄곧 큰 비중을 두었던 오월과 국제외교의 결실로 청자 제작기술이 후백제에 전래되었을 가능성도 있답니다.</p>	<p>한반도에는 늦어도 10세기 중반 경에는 중국에서 초기 청자 제작 기술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시흥 방산동 가마터에서 중국 오대 월요와 가마 축조 방식, 제작 양상 등이 매우 유사한 초기 청자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청자 가마는 직사각형 벽돌을 이용하여 만든 벽돌 가마였는데 이전까지 한반도에서 볼 수 없었던 가마입니다. 후백제의 옛 영토인 진안 도통리에서는 초기 청자를 생산하였는데, 이곳의 청자 가마는 후백제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는 후백제와 중국 오월의 돈독한 국제외교 관계에 근거하며, 오월에 여러 차례 사신을 파견하고 교류를 가졌던 후백제가 청자의 수입만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초기 청자 기술을 도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p>	<p>이것은 진안 도통리에서 만든 초기 청자이다. 이곳의 청자가마는 후백제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하는 의견도 있다. 후백제와 오월이 돈독한 관계를 갖고 교류를 했기에 후백제가 청자의 수입만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초기청자기술을 도입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초기청자는 늦어도 10세기 중국에서 유입되었을 것이다. 경기도 시흥 가마터에서 중국 오대 월요와 가마 축조 방식, 제작 양상 등이 매우 유사한 초기 청자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 청자 가마는 직사각형 벽돌을 이용하여 만든 벽돌 가마였는데 이전까지 한반도에서 볼 수 없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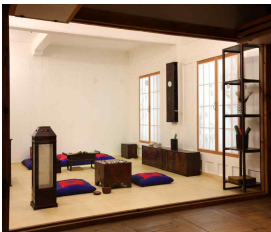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7	전 남원 출토 사리장엄구	<p>사리장엄구는 사리를 탑 안에 봉안하기 위한 장치로 당시로서는 최고급 소재인 유리병이나 금·은·동으로 만든 이중 삼중의 사리함으로 되어 있어요. 본래 사리란 절대자의 분신이므로 아주 성스럽고 정성스럽게 모셨기 때문에 사리장엄구는 당대 공예 기술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리는 원래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의미하며, 불교에서 전하기를 석가모니가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든 후 다비(화장)를 하자 여덟 말의 사리가 나왔다고 해요. 이를 진신사리라고 부르며 당시 이 사리를 8등분하여 근본팔탑을 세웠는데, 이것이 바로 사리탑 신앙의 효시라고 해요. 그런데 이후 시공을 달리하면서 진신사리탑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진신사리의 수는 한계가 있고 또한 범신사리 사상이 확대되면서 불경이나 불상, 소탑, 구슬, 향목 및 당대 지배계층이 생전에 애호하던 물건까지도 탑속에 봉안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러한 진신사리와 범신사리를 보관할 용기가 필요해졌고, 금은을 비롯한 화려한 물질을 이용해 사리를 장엄하는 사리장엄구가 금속공예의 발달과 함께 당대 시주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고 사리장엄구는 화려해지게 되었어요. 남원 부근의 탑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이 사리장엄구는 연꽃대좌 위에 방형투조함을 얹은 형태로, 사각형의 사리갓춤 주위에는 연꽃받침 밑에서 함의 모서리 방향으로 굽어 올라간 연꽃 줄기 위에 창과 검을 들고 가부좌를 한 신장상이 1구씩 놓여 있어요. 함 내부에는 녹유리사리병이 안치되어 있습니다.</p>	<p>사리장엄구는 사리를 탑 안에 봉안하기 위한 장치로 당시 최고급 소재인 유리병과 금, 은, 동으로 만든 2,3중의 사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원 부근의 탑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이 사리장엄구는 연꽃 대좌 위에 방형투조함을 얹은 형태로, 사각형의 사리갓춤 주위에는 연꽃 받침 밑에서 함의 모서리 방향으로 굽어 올라간 연꽃 줄기 위에 창과 검을 들고 가부좌를 한 신장상이 1구씩 놓여 있습니다. 내부에는 녹유리사리병이 안치되어 있습니다.</p>	<p>이것은 사리를 탑 안에 봉안하기 위한 장치인 '사리장엄구'이다. 이 사리장엄구는 남원 부근의 탑에서 출토되었다. 사각형의 사리갓춤 주위에는 연꽃 받침 밑에서 함의 모서리 방향으로 굽어 올라간 연꽃 줄기 위에 창과 검을 들고 가부좌를 한 신장상이 1구씩 놓여 있다. 내부에는 녹유리사리병이 안치되어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8	고창용산리 관사명인화 분청사기	<p>고창 용산리에서는 15~16세기 초에 만들어진 분청사기, 백자, 흑유자기 등이 출토되어 고려청자에 이어 조선시대에도 전북 지역에서 도자 제작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용산리에서 출토된 분청사기는 무늬가 없는 것과 인화, 조화, 박지, 귀얄, 덩병 등 모든 종류가 만들어졌답니다. 백자는 연질과 경질이 함께 출토되었는데 연질이 주를 이루고, 특히 내섬시나 예빈시, 내자시와 같은 중앙 관청에 납품할 정도의 양질의 인화 분청사기와 관요 자기 양식의 영향을 받은 상급의 백자가 출토되었다고 해요. 내섬시(內贍寺)는 궁궐에 바치는 토산물, 2품 이상에게 주는 술과 안주, 왜인(倭人)에게 주는 음식과 직조 등을 담당하던 관청이고, 예빈시(禮賓寺)는 외국 사절을 대접하는 일 등을 담당하던 관청이며 내자시(內資寺)는 궁중에서 쓰는 쌀, 국수, 간장, 직조 등을 담당하던 관청이라고 해요. 조선 전기에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각 생산지로부터 공납의 형태로 세금을 받아 조달해 왔는데, 도자기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각 지역에서 제작하여 세금으로 바친 품목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관사명을 그릇에 새기게 한 것은 특정 그릇이 특정 관청에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함과 동시에 도중에 유실되거나 사취되는 폐단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어요.</p>	<p>고창 용산리 가마는 조선시대인 15~16세기에 걸쳐 분청사기, 백자, 흑유자기 등을 만들었던 곳이며, 현재까지 4기의 가마가 발견되었습니다. 분청사기는 인화, 박지, 귀얄, 덩병 등의 다양한 제작 기법을 사용했으며, 백자는 연질과 경질이 함께 출토되었습니다. 특히 내섬시나 예빈시와 같은 중앙 관청에 납품할 정도의 분청사기와 관요 자기 양식의 상급 백자가 출토되어 주목됩니다. 도자기도 각 지역에서 제작하여 세금으로 바친 품목 중 하나였으며, 관사명을 그릇에 새기게 한 것은 특정 관청에서만 사용한다는 의미와 유실과 사취되는 폐단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p>	<p>이것은 관사명이 새겨진 인화분청사기이다.</p> <p>고창 용산리 가마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고창 용산리 가마는 조선 15~16세기에 걸쳐 분청사기, 백자, 흑유자기 등을 만들었던 곳이다.</p> <p>이 곳에서 출토된 분청사기는 무늬가 없는 것과 (인화, 박지, 귀얄, 덩병 등) 다양한 기법으로 무늬를 넣은 것이 모두 발견되었다.</p> <p>백자는 연질과 경질이 함께 출토되었는데 연질이 주를 이루었다.</p> <p>특히 중앙관청에 납품할 정도의 양질의 분청사기와 관요 자기 양식의 상급 백자가 출토되어 주목된다.</p> <p>도자기는 각 지역에서 세금으로 바친 품목 중의 하나였다.</p> <p>관사명을 그릇에 새긴 것은 특정 관청에서만 사용한다는 의미와 유실과 사취되는 폐단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p> <p>이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9	부안유천리 고려백자 (연꽃무늬 매병과연꽃 무늬병)	<p>지금 보고 계시는 연꽃무늬매병과 연꽃무늬병은 도자기의 몸체에 음각으로 연꽃무늬를 시원하게 배치하여 고려백자의 우아함을 더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두 점 모두 고려백자의 특성상 표면의 유약이 떨어져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청자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한반도 중부의 경기도 용인 서리, 여주 중암리를 중심으로 백자도 함께 제작되기 시작하였으며, 12~13세기 무렵 청자와 더불어 전성기를 맞이하였어요. 부안은 전남 강진과 더불어 고려청자 제작의 중심지로서, 비색의 청자색과 상감기법을 사용한 명품 청자를 생산하였고, 고려백자의 제작으로도 각광받았는데, 장식적이고 품위 있는 고려백자 명품의 산지로도 유명하답니다. 고려백자는 조선백자와는 달리 표면이 무른 연질에 빛깔은 아이보리색을 띠며 청자와 동일한 그릇의 형태와 무늬가 백자로 표현되어 독특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어요. 부안 유천리에서 생산된 백자는 대부분 12세기에 집중되어 만들어졌어요. 종류는 접시가 가장 많고 대접, 발, 잔, 뚜껑 등 일상생활용기가 대부분이에요. 유천리 백자의 기형은 청자와 크게 차이가 없지만 굽 깎음새나 구연 처리 등이 예리해요. 그러나 청자의 모든 기종과 기형이 백자에서도 확인되는 것은 아니어서 선별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외에도 매병, 병, 잔탁, 향로, 장고 등 특수 용도에 사용되는 백자가 제작되었어요.</p>	<p>이 연꽃무늬매병과 연꽃무늬병은 도자기의 몸체에 음각으로 연꽃무늬를 시원하게 배치하여 고려백자의 우아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점 모두 고려백자의 특성상 표면의 유약이 떨어져 나가고 있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자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경기도 용인, 여주를 중심으로 백자도 함께 제작되었고, 12~13세기 무렵 청자와 더불어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부안은 청자색과 상감기법을 사용한 청자를 생산하였고, 고려백자 제작으로도 각광받았습니다. 고려백자는 조선백자와 달리 표면이 무른 연질에 빛깔은 아이보리색을 띠며 청자와 동일한 그릇의 형태와 무늬가 백자로 표현되어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안 유천리에서 생산된 백자는 대부분 12세기에 집중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종류는 접시가 가장 많고 대접, 발, 잔, 뚜껑 등 일상 용기가 대부분입니다. 유천리 백자의 모양은 청자와 크게 차이 없지만 굽 깎음새나 구연 처리 등이 예리합니다. 그밖에 매병, 병, 잔탁, 향로, 장고 등 특수 용도에 사용되는 백자도 제작되었습니다.</p>	<p>이 도자기 두 점은 부안 유천리에서 생산됐다. 몸체에 음각으로 연꽃무늬를 배치하여 고려백자의 우아함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나 두 점 모두 고려백자의 특성상 표면의 유약이 떨어져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자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백자도 제작되기 시작해서, 12~13세기 무렵 청자와 더불어 전성기를 맞이했다. 부안은 청자색과 상감기법을 사용한 청자를 생산하였고, 고려백자 제작으로도 각광을 받았다. 고려백자는 조선백자와 달리 표면이 무른 연질에 아이보리색을 띠며 청자와 동일한 그릇의 형태와 무늬가 표현되어 독특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부안 유천리에서 생산된 백자는 대부분 12세기에 만들어졌다. 접시가 가장 많고 대접, 발, 잔, 뚜껑 등 일상용기가 대부분이다. 유천리 백자의 모양은 청자와 큰 차이는 없지만 굽 깎음새나 구연 처리 등이 예리하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0	고리무늬 청자 의자	청자 그릇의 표면에 투공을 내어 표현하는 투각 기법은 매우 입체적이고 화려한 느낌을 주었으며, 일상용기보다는 향로, 붓꽂이, 의자 등에 주로 사용되었어요. 투각청자는 무늬를 따라 오려내는 정성어린 제작과정이나 완성도를 통해 볼 때, 상형청자와 더불어 고려청자 명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로 몸체의 중심에 고리무늬로 큼직하게 투각 장식한 이 청자 의자는 부안 유천리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부안 유천리에서는 고리무늬, 용무늬, 연꽃넙쿨무늬, 대나무무늬 등의 투공으로 장식된 커다란 의자 파편이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청자로 의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고려인들의 화려했던 생활을 짐작케 해주는 귀중한 예로, 의자뿐만 아니라 화분 받침대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러한 크기를 성형하고 조각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솜씨가 아니고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요. 이 의자에 앉아 한가로이 바둑을 즐겼을 고려 귀족들의 모습을 상상해보시겠어요!	청자 그릇 표면에 투공을 내어 표현하는 투각 기법은 매우 입체적이고 화려한 느낌을 주며, 향로, 붓꽂이, 의자 등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투각청자는 제작과정과 완성도를 봤을 때 상형청자와 더불어 명품 고려청자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몸체의 중심에 고리무늬로 큼직하게 투각 장식을 했으며 부안 유천리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천리에서는 투공으로 장식된 커다란 의자 파편이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자로 의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고려인들의 화려했던 생활을 짐작케 해주는 귀중한 예로 의자뿐만 아니라 화분 받침대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몸체의 중심에 고리무늬로 큼직하게 투각 장식을 한 청자 의자이다. 부안 유천리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천리에서 투공으로 장식된 커다란 의자 파편이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청자로 의자를 만든 것은 고려인들의 화려한 생활을 짐작케 하는 귀한 예로, 의자뿐만 아니라 화분 받침대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투각 기법은 청자 그릇의 표면에 투공을 내어 표현하는 기법으로 입체적이고 화려한 느낌을 주며, 일상용기 보다는 화로, 붓꽂이, 의자 등에 사용했다. 투각청자는 정성어린 제작과정과 완성도를 볼 때 상형청자와 함께 명품 고려청자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41	선원계보기략	앞에 전시된 책자는 선원계보기략이에요. 조선 왕실의 족보로 1681년(숙종 7)부터 1931년까지 부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반포頒布 했는데요, 이 책은 왕의 즉위나 왕비 책봉, 왕세자 탄생 등 왕실에 새로운 일이 생기면 그것을 추가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계속 수정이 되어왔어요. 그리고 고조부 8명을 기록한 가계도인 팔고조도八高祖圖가 처음으로 수록되어 있어, 1783년(정조 7) 이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주 이씨가 왕가가 되기 이전인 시조 이한李翰 으로부터 태조 이성계의 고조부인 목조穆祖 까지의 계보인 선원선계璿源先系 와 목조에서부터 편찬된 당시의 왕실 계통이 수록된 선원세계璿源世系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선원계보기략입니다. 조선 왕실의 족보로 1681년(숙종 7년)부터 1931년까지 비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반포했습니다. 왕의 즉위나, 왕비 책봉, 왕세자 탄생 등 왕실에 새로운 일이 생기면 추가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계속 수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고조부 8명을 기록한 가계도인 '팔고조도'가 처음으로 수록되어 있어 1783년(정조 7년) 이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주 이씨가 왕가가 되기 이전인 시조 이한으로부터 태조 이성계의 고조부인 목조까지의 계보인 선원선계와 목조에서부터 왕실 계통을 수록한 선원세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선원계보기략'이다. 조선 왕실의 족보로 1681년부터 1931년까지 비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반포했다. 왕의 즉위, 왕비 책봉, 왕세자 탄생 등 왕실에 새로운 일이 생기면 추가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계속 수정 되었다. 고조부 8명을 기록한 가계도인 '팔고조도'가 처음으로 수록되어 있어 1783년 이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주 이씨가 왕가가 되기 이전인 시조 이한부터 태조이성계의 고조부인 목조까지의 계보인 '선원선계'와 목조부터 왕실 계통을 수록한 '선원세계' 등으로 구성되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2	대한제국 국새	<p>1897년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고종의 지위도 국왕에서 황제로 격상되었는데, 이에 따라 호칭, 복식, 의장 등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특히 관직과 각종 문서가 바뀌면서 여기에 사용하는 국새(國璽)도 새로 제작되었답니다. 국새의 손잡이 또한 제후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북에서 황제의 신분을 나타내는 용(龍)으로 바뀌었어요. 은으로 만든 후 금도금을 한 제고지보(制誥之寶, 신수239)는 정1품에서 종1품의 최고위 관료인 척임관(勅任官)을 임명할 때 사용하였으며, 역시 은제에 금도금을 한 대원수보(大元帥寶, 신240)는 1899년(광무3) 육군과 해군을 총지휘하는 원수부(元帥府)가 설치되면서 군통수권자로서 황제가 사용한 것이에요. 옥으로 제작된 고종어보(高宗御寶, 신수9240)에는 1873년, 1888년, 1890년, 1892년, 1900년에 고종황제가 받은 존호(尊號)들이 새겨져 있는데, 존호는 왕실의 기념일이나 경사가 있을 때 왕과 왕비의 덕망과 업적을 찬양하며 세자 및 신하들이 올린 것이라고 합니다.</p>	<p>1897년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고종은 황제로 격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호칭, 복식, 의장 등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관직과 각종 문서가 바뀌면서 여기에 사용하는 국새도 새로 제작되었습니다. 국새의 손잡이는 제후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북에서 황제를 나타내는 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후 금도금을 한 제고지보는 정1품에서 종1품의 최고위 관료인 척임관을 임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대원수보의 경우 1899년(광무3년) 육, 해군을 총지휘하는 원수부가 설치되면서 군통수권자로서 황제가 사용한 것입니다. 옥으로 제작된 고종어보에는 1873년, 1888년, 1890년, 1892년, 1900년에 고종황제가 받은 존호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존호는 왕실의 기념일이나 경사가 있을 때 왕과 왕비의 덕망과 업적을 찬양하며 세자 및 신하들이 올린 것이라고 합니다.</p>	<p>대한제국 국새이다. 1897년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고종은 황제로 격상되었다. 이에 따라 호칭, 복식, 의장 등의 변화가 있었고, 관직과 각종 문서가 바뀌면서 국새도 새로 제작되었다. 국새의 손잡이는 제후를 나타내는 거북에서 황제를 나타내는 용으로 바뀌었다. 은으로 만든 후 도금을 한 제고지보는 정1품에서 종1품의 최고위 관료인 척임관을 임명할 때 사용했다. 역시 은으로 만든 후에 도금을 한 대원수보는 1899년 육,해군을 총지휘하는 원수부가 설치되면서 군통수권자로서 황제가 사용했다. 옥으로 제작한 고종어보에는 1873년, 1888년, 1890년, 1892년에 고종황제가 받은 존호들이 새겨져 있다. 존호는 왕실의 기념일이나 경사가 있을 때 왕과 왕비의 덕망과 업적을 찬양하며 세자 및 신하들이 올린 것이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3	사랑방 가구	<p>조선시대는 국가통치이념인 성리학의 영향으로 남녀의 역할과 지위가 엄격하게 구분되었어요. 그래서 한 집안 안에서도 남녀의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안방과는 별도로 남성이 거처하는 사랑방이 마련되었는데요, 특히 선비들에게 사랑방은 주거 공간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었답니다. 선비들은 유학(儒學)의 이념과 도덕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학문을 연마함과 동시에 시·서·화를 필수 교양으로 여기고 소홀히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조선시대 사랑방은 학문을 연마하는 문방(文房)이자 예술 활동의 공간이 되었답니다. 사랑방은 주인의 안목과 격을 보여주는 공간이었는데요, 선비들은 부귀(富貴)를 나타내는 화려함을 속된 것으로 여겨 사랑방 역시 단정하면서도 깔끔한 멋이 나도록 꾸몄어요. 사랑방은 침실·거실·서재로 구분되는데요, 사랑방 가구로는 책상·사방탁자·문갑 등을 있었으며, 문갑 위에는 필통·지통·연적·수석·난초를 놓았고, 사방탁자나 책상 등은 벽면에 붙여 방을 넓게 쓸 수 있도록 했어요. 이렇게 사랑방에 놓인 가구는 청빈을 덕목으로 삼은 선비의 기품이 가장 잘 묻어나 있답니다.</p>	<p>조선시대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남녀의 역할과 지위를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따라서 한 집안에서도 남녀의 생활공간이 분리되었고, 안방과는 별도로 남성이 거처하는 사랑방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선비들에게 사랑방은 단순한 주거 공간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선비들은 유학의 이념과 도덕으로 끊임없이 학문을 닦고 시, 서, 화를 필수 교양으로 여겼습니다. 사랑방은 학문의 연마하는 공부방이자 예술 활동의 공간이 되었으며, 이런 면에서 사랑방은 주인의 안목과 격을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사랑방은 침실, 거실, 서재로 구분되었으며 사랑방 가구로는 책상, 사방탁자, 문갑 등이 있었으며 문갑 위에는 필통, 지통, 연적, 수석, 난초를 놓았습니다. 사방탁자나 책상 등은 벽면에 붙여 방을 넓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p>	<p>사랑방 가구이다.</p> <p>조선시대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남녀의 역할과 지위를 엄격하게 구분했다.</p> <p>따라서 한 집안에서도 남녀의 생활공간이 분리되었고, 안방과 별도로 남성이 거처하는 사랑방을 마련했다.</p> <p>특히 선비들에게 사랑방은 주거공간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p> <p>사랑방은 학문을 연마하는 곳이자 예술 활동의 공간으로 주인의 격을 보여주는 곳이었다.</p> <p>사랑방은 침실, 거실, 서재로 구분되었고 책상, 사방탁자, 문갑 등이 있었다.</p> <p>문갑 위에는 필통, 지통, 연적, 수석, 난초를 놓았고 사방탁자나 책상 등은 벽에 붙여 방을 넓게 쓸 수 있게 했다.</p>	
44	전주부 지도	<p>조선 왕실의 본향이었던 전주는 1392년(태조 1) 완산유수부(完山留守府)로 승격되었으나, 1403년(태종 3) 전주부(全州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또한 제주도를 포함한 전라도를 총괄하는 전라감영(全羅監營)이 설치되어 호남지역 문화와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지금 앞에 있는 유물은 종이에 전주성과 그 주변을 담채로 그린 지도를 열 폭 병풍으로 만든 것이에요. 첫 번째 폭과 마지막 폭에는 전주부의 변천 과정과 전주성 내외의 주요 장소의 위치, 간단한 연혁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객사(客舍), 풍남문(豊南門), 패서문(沛西門), 경기전(慶基殿), 조경묘(肇慶廟) 등 전주부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답니다.</p>	<p>조선 왕실의 본향인 전주는 1392년(태조 1년) 완산유수부로 승격되었으나, 1403년(태종 3년) 전주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제주도를 포함한 전라도를 총괄하는 전라감영이 설치되어 호남지역 문화와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전주부 지도는 종이에 전주성과 그 주변을 담채로 그린 지도이며, 열 폭 병풍으로 만든 것입니다. 첫 번째 폭과 마지막 폭에는 전주부의 변천 과정과 전주성 내외의 주요 장소의 위치, 연혁 등이 기록되었습니다. 객사, 풍남문, 패서문, 경기전, 조경묘 등 전주부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p>	<p>이것은 종이에 전주성과 그 주변을 담채로 그린 지도이다.</p> <p>열폭 병풍으로 만들었다.</p> <p>첫 번째 폭과 마지막 폭에는 전주부의 변천 과정과 전주성 내외의 주요 장소, 연혁 등이 기록되었다.</p> <p>객사, 풍남문, 패서문, 경기전, 조경묘 등 전주부의 모습이 잘 묘사되었다.</p> <p>전주는 조선 왕실의 본향으로 1392년 완산유수부로 승격되었으나, 1403년 전주부로 이름이 바뀌었다.</p> <p>또 제주도를 포함한 전라도를 총괄하는 감영이 설치되어 호남지역 문화와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5	전주장	<p>전주에서는 전라도 동부에 위치한 산지에서 풍부한 목재를 공급받아 솜씨 좋은 장인들이 수준 높은 목가구를 생산했어요. 특히 부유한 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제작은 더욱 활기를 띌 수 있었는데요, 전주장은 조선시대 전주 지역에서 제작된 목가구로 장(幪)과 반닫이의 형태가 결합된 가구에요. 보통 2층 내지 3층으로 나뉘어져 위층은 장, 아래층은 반닫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닫이는 앞판의 반을 나누어 그 중 위판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으로 설치한 다용도 가구를 말합니다. 튼튼한 느티나무나 소나무, 나뭇결이 아름다운 떡감나무를 주로 사용했으며, 금속장식인 장식(裝錫)은 제비초리, 불로초(不老草), 보상화(寶相華), 만자(卍字)모양 등이 주를 이루었어요. 보는 것처럼 이중장인 이 전주장의 위층 표면은 떡감나무를 사용하여 장식성을 높였으며, 제비초리 모양의 경첩, 보상화 모양의 앞바탕 등 장식이 붙어있답니다.</p>	<p>전주장은 조선시대 전주 지역에서 제작된 목가구로 장(幪)과 반닫이의 형태가 결합된 가구입니다. 보통 2층 또는 3층으로 나뉘어져 위층은 장, 아래층은 반닫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닫이는 앞판의 반을 나누어 그 중 위판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으로 설치한 다용도 가구를 말합니다. 느티나무, 소나무 같이 튼튼한 재질 또는 떡감나무와 같은 결이 아름다운 재질을 사용했으며, 금속 장식인 장식은 제비초리, 불로초, 보상화, 만자 모양 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 전주장의 경우 위층 표면은 떡감나무를 사용하여 장식성을 높였고, 제비초리 모양의 경첩과 보상화 모양의 앞바탕 등 장식이 붙어 있습니다.</p>	<p>이것은 조선시대 전주에서 제작되었다. 장과 반닫이의 형태가 결합된 목가구이다. 보통 2층 또는 3층으로 나뉘어져 위층은 장, 아래층은 반닫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닫이는 앞판의 반을 나누어 그 중 위판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으로 설치한 다용도 가구이다. 보통 튼튼하거나 결이 아름다운 재질의 나무로 만들고 금속 장식인 장식을 붙인다. 이 전주장은 위층 표면은 떡감나무를 사용하여 장식성을 높였고, 제비초리 모양의 경첩과 보상화 모양의 앞바탕 등 장식이 붙어 있다.</p>	
46	김관 초상	<p>채용신(蔡龍臣, 1850~1941)은 전북 지역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던 언양 김씨 집안의 주문에 따라 이 가문의 인물 3인의 초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작품은 그 가운데 조선전기 문신(文臣) 김관(金鑴, 1425~1485)의 초상으로, 채용신이 새롭게 그린 것인데요, 얼굴은 좌안칠분면의 전통적인 초상화법이 아닌 정면관(正面觀)의 서양화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 시기에 제작된 김관 초상과 비교해 보면, 매서운 눈매와 수염 등은 본래의 모습을 충실히 따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 좌우에 글을 적어 초상화의 주인공과 작자, 제작 시기를 비롯하여 13대손인 김철상이 김관 초상을 모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p>	<p>이 작품은 조선 전기 문신 김관(金鑴, 1425~1485)의 초상으로, 채용신(蔡龍臣, 1850~1941)이 언양 김씨 문중의 의뢰를 받아 그린 것입니다. 얼굴은 좌안칠분면의 전통적 초상화법이 아닌 정면관의 서양화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제작된 김관의 초상과 비교해 보면, 매서운 눈매와 수염 등은 본래의 모습을 충실히 따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 좌우에 글을 적어 초상화의 주인공과 작자, 제작시기를 비롯하여 13대손인 김철상이 초상을 모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p>	<p>이 작품은 조선 전기 문신 김관의 초상이다. 채용신이 언양 김씨 문중의 의뢰를 받아 그린 것이다. 얼굴은 전통적인 초상화법이 아닌 서양화법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이전에 제작된 김관의 초상과 비교해 보면, 무서운 눈매와 수염 등 본래의 모습을 충실히 따랐음을 알 수 있다. 화면 좌우에 글을 적어 초상화 주인공, 작자, 제작시기를 비롯하여 13대손인 김철상이 초상을 모셨음을 밝히고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7	이삼만이 쓴 오언시	<p>지금 보시는 작품은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와 쌍벽을 이뤘던 창암 이삼만(蒼巖 李三晩, 1770~1847)이 쓴 오언시를 8폭 병풍으로 만든 것이예요. 전라북도 정읍 출생으로 만년에는 전주에 살면서 완산(完山)이라고도 호를 썼답니다. 어린 시절에 당대의 명필이었던 이광사(李匡師)의 글씨를 배웠는데, 글씨에 열중하여 포(布)를 누여가면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으나 글씨에만 몰두하여 가산을 탕진하였고, 병중에도 하루 천자씩 쓰면서 “벼루 세개를 먹으로 갈아 구멍을 내고야 말겠다”고 맹세했다고 하는데요, 글씨 배우기를 청하면 점 하나 획 하나를 한달씩 가르쳤다고 합니다. 해서(楷書) 등 모든 글씨를 잘 썼고 특히 흐르는 물과 같은 유수체(流水體)는 그의 대표적인 서체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삼만은 글자를 흘려 쓰는 초서(草書)에도 능통했는데, 이 병풍은 그의 초서 글씨의 면모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당(唐)의 왕지환(王之渙), 이백(李白), 전기(錢起), 유우석(劉禹錫), 장호(張祜) 등과 송(宋) 주희(朱熹)의 오언시를 행초서로 쓴 작품으로, 원래의 시와 다르게 쓴 글자가 일부 있습니다. 마지막 폭 하단에 ‘기축추 이삼만 己丑秋 李三晩’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를 통해 기축년(1829) 가을에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p>	<p>추사 김정희와 쌍벽을 이뤘던 창암 이삼만(蒼巖 李三晩, 1770~1847)이 쓴 오언시를 8폭 병풍으로 만든 것입니다. 전북 정읍 출생으로 만년에는 전주에 살면서 '완산'이라는 호를 썼습니다. 해서(楷書) 등 모든 글씨를 잘 썼고 특히 흐르는 물과 같은 유수체(流水體)는 그의 대표적인 서체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삼만은 글자를 흘려 쓰는 초서(草書)에도 능통했는데, 이 병풍은 그의 초서 글씨의 면모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당(唐)의 왕지환(王之渙), 이백(李白), 전기(錢起), 유우석(劉禹錫), 장호(張祜) 등과 송(宋) 주희(朱熹)의 오언시를 행초서로 쓴 작품으로, 원래의 시와 다르게 쓴 글자가 일부 있습니다. 마지막 폭 하단에 ‘기축추 이삼만 己丑秋 李三晩’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를 통해 기축년인 1829년 가을에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p>	<p>창암 이삼만의 오언시를 8폭 병풍으로 만든 것이다.</p> <p>이삼만은 추사 김정희와 쌍벽을 이룬 사람으로 정읍 출생으로 만년에는 전주에 살면서 '완산'이라는 호를 썼다.</p> <p>모든 글씨를 잘 썼으며 특히 흐르는 물과 같은 유수체는 그의 대표 서체로 높이 평가 받는다.</p> <p>또 글자를 흘려 쓰는 초서에도 능통했는데, 이 병풍은 그의 초서 글씨의 면모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당의 왕지환, 이백, 전기, 유우석, 장호 등과 송의 주희의 오언시를 행초서로 쓴 작품으로 원래 시와 다르게 쓴 글자가 일부 있다.</p> <p>마지막 폭 하단에 쓰여진 글씨로 기축년인 1892년 가을에 썼음을 알 수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8	어제수덕전 편	<p>어제수덕전편은 조경묘를 세운 경위와 더불어 영조의 소회를 적은 글이에요. 영조는 전주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왕으로 시조의 사당인 조경묘를 건립하였고, 조경묘에는 조선왕실의 시조인 이한과 부인 경주김씨의 위패가 모셔졌어요. 영조는 중국 주나라 왕실의 시조인 후직이 덕을 쌓아 주나라가 천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왕실의 시조들이 선을 행하고 덕을 쌓아서 오늘의 조선이 있게 되었다고 하였어요. 또한 시조로부터 천여 년이 지나 전주에 시조묘를 세우는 것은 주나라에서 시조를 제사했던 것과 같은 뜻이라 하였습니다. 용비어천가에서는 조선왕실의 창업을 태조 이성계의 고조부인 목조에서부터 언급하였지만, 영조의 조경묘 건립은 그 기원을 시조 이한에게까지 연결함을 의미해요.</p>	<p>조선 영조는 전주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왕입니다. 시조의 사당인 조경묘를 전주에 건립하였고, 조경묘에는 조선 왕실의 시조인 이한과 부인 경주 김씨의 위패를 모셨습니다. 영조는 중국 주나라 왕실의 시조인 후직이 덕을 쌓아 주나라가 천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조선 왕실 역시 선을 행하고 덕을 쌓아서 오늘의 조선이 있게 되었다고 여겼습니다. 용비어천가에서는 조선 왕실의 창업을 태조 이성계인 고조부인 목조에서 부터 언급했지만, 영조의 조경묘 건립은 그 기원을 시조 이한에게까지 연결하였습니다.</p>	<p>이 글은 조경묘를 세운 경위와 영조의 소회를 적은 글이다. 영조는 전주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왕이다. 시조의 사당인 조경묘를 전주에 건립하였다. 조경묘에는 조선 왕실의 시조인 이한과 부인 경주 김씨의 위패를 모셨다. 영조는 중국 주나라 왕실의 시조가 덕을 쌓아 주나라가 천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조선 왕실도 선을 행하고 덕을 쌓아서 오늘의 조선이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용비어천가에서는 조선 왕실의 시작을 태조 이성계의 고조부부터 언급했지만, 영조의 조경묘 건립은 왕실의 기원을 시조 이한으로 본 것이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9	조경단비탑 본	<p>탑본은 석비나 기와, 기물 등에 새겨진 문자나 무늬를 종이에 그대로 박아낸 것이에요. 이 유물은 전주 조경단비의 앞면과 뒷면을 탑본한 것인데, 비의 앞면에는 고종이 직접 쓴 ‘대한조경단’ 다섯 글자가 새겨졌고, 뒷면에는 조경단의 내력을 자세히 새겨 놓았는데 전주가 왕실의 본향임을 강조하였답니다.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른 고종은 황제국의 권위에 맞게 선조들의 격을 높이는 일을 추진하였는데 특히 선조들의 고향인 전주에서 두드러졌어요. 그래서 1899년 황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전주와 삼척에 있는 조상의 묘소를 정비하고 묘역의 경계를 정하고, 전주의 건지산에 있는 시조 이한의 묘역도 정비하여 조경단을 조성하였어요. 조경단에는 제사를 모시는 단과 함께 비각을 세웠답니다. 고종은 시조의 묘역을 정비하는 일 등을 통해 오래도록 이어져온 자신의 뿌리를 강조함으로써 황제국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였고, 그러한 뜻이 조경단비를 통해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p>	<p>탑본은 석비나 기와, 기물 등에 새겨진 문자나 무늬를 종이에 그대로 박아낸 것입니다. 이 유물은 전주 조경단비의 앞면과 뒷면을 탑본한 것인데, 비의 앞면에는 고종이 직접 쓴 ‘대한조경단’ 다섯 글자가 새겨졌고, 뒷면에는 조경단의 내력을 자세히 새겨 놓았는데 전주가 왕실의 본향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종은 시조의 묘역을 정비하는 일 등을 통해 오래도록 이어져 온 왕실의 뿌리를 강조함으로써 황제국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였고, 그러한 뜻이 조경단비를 통해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p>	<p>이 유물은 전주 조경단비의 앞면과 뒷면을 탑본한 것이다.</p> <p>탑본이란 석비나 기와, 기물 등에 새겨진 문자나 무늬를 종이에 그대로 박아낸 것이다.</p> <p>이 비의 앞면에는 고종이 직접 쓴 ‘대한조경단’이 새겨졌고, 뒷면에는 조경단의 내력을 자세히 새겨서 전주가 왕실의 본향임을 강조하였다.</p> <p>고종은 시조의 묘역을 정비하며 왕실의 뿌리를 강조함으로써 황제국의 권위를 세우고자 했다.</p>	
50	운강서실	<p>이 작품은 중국 왕희지(王羲之, 307~365)와 조맹부(趙孟頫, 1254~1322)의 서예세계를 지향한 신위(申緯, 1769~1845)의 글씨를 바탕으로 1964년에 쓴 글씨입니다. 이후 굳센 기운인 금석기(金石氣)가 강해지는 악필(握筆) 이전의 작품으로 행서현판입니다.</p>	<p>이 작품은 중국 왕희지(王羲之, 307~365)와 조맹부(趙孟頫, 1254~1322)의 서예세계를 지향한 신위(申緯, 1769~1845)의 글씨를 바탕으로 1964년에 쓴 글씨입니다. 이후 굳센 기운인 금석기(金石氣)가 강해지는 악필(握筆) 이전의 작품으로 행서현판입니다.</p>	<p>이것은 석전이 신위의 글씨를 바탕으로 1964년에 쓴 글씨이다.</p> <p>신위는 중국 왕희지와 조맹부의 서예세계를 지향하였다.</p> <p>이 글씨는 행서현판으로, 굳센 기운인 금석기가 강해지는 악필 이전의 작품이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51	용상봉무	‘용이 날고 봉황이 춤을 춘다’는 뜻인 용상봉무龍翔鳳舞 는 93세에 쓴 작품으로 석전의 강한 서체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오른손 수전증으로 글씨를 쓸 수 없자 왼손으로 붓을 잡고 쓴 글씨입니다.	‘용이 날고 봉황이 춤을 춘다’는 뜻인 용상봉무龍翔鳳舞 는 93세에 쓴 작품으로 석전의 강한 서체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오른손 수전증으로 글씨를 쓸 수 없자 왼손으로 붓을 잡고 쓴 글씨입니다.	이것은 석전이 93세에 쓴 작품이다. ‘용상봉무’는 ‘용이 날고 봉황이 춤을 춘다’는 뜻이다. 오른손 수전증으로 글씨를 쓸 수 없자 왼손으로 붓을 잡고 쓴 것이다. 석전의 강한 서체가 잘 나타나 있다.	
52	석전의 유품	지금 보시는 것은 석전이 생활 속에서 사용하던 유품입니다. 지팡이와 모자, 두루마기를 비롯하여 붓과 붓통, 경상, 그리고 서적들이 전시되어 서예가로서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석전이 생활 속에서 사용하던 유품입니다. 지팡이와 모자, 두루마기를 비롯하여 붓과 붓통, 경상, 그리고 서적들이 전시되어 서예가로서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석전이 사용하던 유품이다. 지팡이와 모자, 두루마기를 비롯하여 붓통, 경상, 서적들이 전시되어 서예가로서의 삶을 엿볼 수 있다.	
53	황중윤초상	본 초상화는 평해 황씨인 석전의 집안에 내려오는 유물입니다. 석전의 조부인 황중윤(1858~1911)은 전주 경기전 참봉과 부안 군수를 역임한 인물로서, 54세인 1911년에 당대의 유명한 초상화가 채용신(蔡龍臣, 1850~1941)이 그렸는데, 큰 눈과 오른쪽 뺨의 점 등 외모를 사실감 있게 묘사하였고, 관복에 가는 선을 그려 재질감을 표현하였습니다.	본 초상화는 평해 황씨인 석전의 집안에 내려오는 유물입니다. 석전의 조부인 황중윤(1858~1911)은 전주 경기전 참봉과 부안 군수를 역임한 인물로서, 54세인 1911년에 당대의 유명한 초상화가 채용신(蔡龍臣, 1850~1941)이 그렸는데, 큰 눈과 오른쪽 뺨의 점 등 외모를 사실감 있게 묘사하였고, 관복에 가는 선을 그려 재질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초상화는 평해 황씨인 석전의 집안에 내려오는 유물이다. 석전의 조부인 황중윤을 그린 것이다. 황중윤은 전주 경기전 참봉과 부안 군수를 역임한 인물이다. 그가 54세인 1911년에 당대의 유명한 초상화가 채용신이 그렸다. 큰 눈과 오른쪽 뺨의 점 등 외모를 사실적으로 묘사했고, 관복에 가는 선을 그려 재질감을 표현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54	반계수록	<p>이 책은 조선 중기의 학자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이 통치 제도에 관한 개혁안을 중심으로 저술한 책입니다. 관직 생활을 단념하고 전북 부안군 보안면 우반동에 칩거해 52세까지 22년간에 걸쳐 연구한 것인데요, 전제(田制), 교선(敎選), 임관(任官), 직관, 녹제(祿制), 병제(兵制)와 그 고설(攷說) 또는 후록(後錄)을 실었으며 보유(補遺)에는 군현제(郡縣制) 등을 실었습니다. 이 반계수록에 담긴 내용은 현실 법제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안정된 국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개혁의 주체를 왕의 결단에 둬으로써 당시 권력구조상 실현할 수 없는 것이고 왕조가 새로이 개창되어야만 실현될 수 있는 이상안(理想案) 이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후세학자에게 영향을 주어 실학(實學)이란 학풍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p>	<p>반계수록은 조선 중기의 학자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이 통치 제도에 관한 개혁안을 중심으로 저술한 책입니다. 관직 생활을 접고 전북 부안군 보안면 우반동에 칩거해 52세까지 22년간에 걸쳐 연구한 것입니다. 반계수록에 담긴 내용은 현실 법제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안정된 생활을 백성들에게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주체를 왕의 결단에 두었기에 당시 권력구조상 실현할 수 없는 것이고 왕조가 새로 만들어져야만 실현되는 이상안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다만 후세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실학'의 학풍을 일으키는 데에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p>	<p>이 책은 '반계수록'으로 통치 제도에 관한 개혁안을 담고 있다. 조선 중기 학자 유형원이 관직을 접고 전북 부안에 칩거해 52세까지 22년간에 걸쳐 연구하여 저술한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현실 법제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서 백성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개혁의 주체를 왕의 결단에 두었기에 당시 권력구조상 실현할 수 없었고 왕조가 새로 만들어져야만 실현될 수 있는 이상안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후세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실학'이라는 학풍을 일으키는 데에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55	거문고	<p>거문고를 만드는 재료는 앞면은 오동나무, 뒷면은 주로 밤나무를 써요. 오동나무는 돌 사이에서 오랫동안 자란 석상동(石上桐)을 으뜸으로 치며 땅에서 7~8척 높이의 무늬와 웅이가 없는 곧고 높은 가지를 사용하고, 뒷면에는 밤나무와 같은 단단한 나무를 사용한답니다. 이 거문고의 앞판으로 쓰인 오동나무는 지리산 석상폭포(石上瀑布)에서 벼락을 맞아 마른 것이고, 뒷판으로 쓰인 밤나무는 제주도 한라산에 있던 것이에요. 이는 창원정씨 가문(이재 황윤석 선생의 처가)에서 구해 전라도 장수에서 간직하였던 것으로, 황윤석 선생께서 약 이백여년 전 전라도 홍덕 고향집에 옮겨 간수하게 되었어요. 백여년 전 5대 종손 기산 황종윤(1858~1911) 선생께서 전주의 김명칠 선생에게 거문고로 만들게 하여 세상에 전하게 되었다고 해요. 위 사실은 석전 황옥 선생께서 1933년 거문고의 바닥에 친필로 써서 남겨 두었습니다.</p>	<p>거문고를 만드는 재료는 앞면은 오동나무, 뒷면은 주로 밤나무를 씁니다. 이 거문고의 앞판으로 쓰인 오동나무는 지리산 석상폭포에서 벼락을 맞아 마른 것이고, 뒷판으로 쓰인 밤나무는 제주도 한라산에 있던 것입니다.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창원 정씨 가문(이재 황윤석 선생의 처가)에서 구해 전라도 장수에서 간직하고 있던 것으로, 황윤석 선생이 약 200여 년 전 전라도 홍덕 고향집에 옮겨 간수하게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 5대 종손 기산 황종윤(1858~1911) 선생이 전주의 김명칠 선생에게 거문고로 만들게 하여 세상에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위 사실은 석전 황옥 선생이 1933년 거문고 바닥에 친필로 써서 남겨 두었습니다.</p>	<p>이 거문고는 지리산 석상폭포에서 벼락을 맞은 오동나무로 앞판을 만들고 제주도 한라산에 있던 밤나무로 뒤판을 만들었다.</p> <p>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창원 정씨가문에서 구해 전라도 장수에서 간직하고 있던 것으로, 황윤석 선생이 약 200년 전 전라도 홍덕 고향집에 옮겨 간수하게 되었다.</p> <p>100여 년 전 5대 종손 황종윤 선생이 전주의 김명칠 선생에게 거문고를 만들게 했다고 한다.</p> <p>이 내용은 석전 황옥 선생이 1933년 거문고 바닥에 친필로 써서 남겼다.</p>	
56	돌방무덤	<p>지금 보고 계신 것은 완주 둔산리, 전주 평화동에 있던 무덤으로 굴식돌방무덤(횡혈식석실분, 橫穴式石室墳)이라고 합니다. 시신을 묻기 위해 널길을 통해 무덤방石室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돌로 쌓아 만든 무덤을 말하는데요, 7세기 전반에 만든 것으로 보이는 완주 둔산리 고분과 달리 전주 평화동에 있던 고분은 입구와 벽면에 여러 장의 돌을 수평으로 좁혀 쌓아 돌방을 만든 것으로 보아, 둔산리 고분보다 이른 6세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p>	<p>이 무덤은 완주 둔산리, 전주 평화동에 있던 굴식돌방무덤이라고 합니다. 시신을 묻기 위해 널길을 통해 무덤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돌로 쌓아 만든 무덤을 말합니다. 7세기 전반에 만든 것으로 보이는 완주 둔산리 고분과 달리 전주 평화동에 있던 고분은 입구와 벽면에 여러 장의 돌을 수평으로 좁게 쌓아 돌방을 만든 것으로 그보다 이른 6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p>	<p>이 무덤은 굴식돌방무덤이다.</p> <p>완주 둔산리와 전주 평화동에 있던 것이다.</p> <p>시신을 묻기 위해 널길을 통해 무덤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돌로 쌓아 만든 무덤이다</p> <p>완주 둔산리 고분은 7세기 전반에 만든 것이다.</p> <p>전주 평화동에 있던 고분은 입구와 벽면에 여러 장의 돌을 수평으로 좁게 쌓아 돌방을 만든 것으로 6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57	군산 도암리 고분	지금 앞에 있는 고분은 군산 도암리에서 발견된 백제시대 고분을 이전하여 복원한 것입니다. 2기의 백제 무덤을 옮겨 왔는데, 그 중 하나는 시신을 넣은 나무널 木棺을 보호·안치하기 위하여 돌을 쌓아 덧널槨을 만들고 출입구를 측면에 만든 앞트기식돌덧널무덤橫口式石槨墓이며, 또 다른 하나는 집처럼 꾸민 돌방과 출입구가 있는 굴식돌방무덤橫穴式石室墳입니다.	군산 도암리에서 발견된 백제시대의 고분을 이전하여 복원한 것입니다. 2기의 백제 무덤을 옮겨 왔는데 그 중 하나는 시신을 넣은 나무널을 보호, 안치하기 위해 돌을 쌓아 덧널을 만들고 출입구를 측면에 만든 '앞트기식돌덧널무덤'이며, 다른 하나는 집처럼 꾸민 돌방과 출입구가 있는 '굴식돌방무덤'입니다.	군산 도암리에서 발견된 백제시대의 고분 2기를 이전하여 복원한 것이다. 하나는 시신을 넣은 나무널을 보호, 안치하기 위해 돌을 쌓아 덧널을 만들고 출입구를 옆면에 만든 '앞트기식돌덧널무덤'이다. 다른 하나는 집처럼 꾸민 돌방과 출입구가 있는 '굴식돌방무덤'이다.	
58	미륵사지 석등	미륵사는 백제 무왕이 창건한 백제 최대의 사찰로, 조선시대까지도 명맥을 유지했던 사찰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불교석조물이 많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석등은 미륵사지 창건 당시 조성된 것인데요, 이후에 조성되는 한국의 석등은 대부분 이 석등의 영향을 받았답니다.	미륵사는 백제 무왕이 세운 백제 최대의 사찰로, 조선시대까지도 명맥을 유지했기 때문에 다양한 불교 석조물이 많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석등은 미륵사 창건 당시에 조성된 것인데 이후에 만들어지는 한국의 석등은 대부분 이 석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석등은 미륵사를 세울 때 만든 것이다. 미륵사는 백제 무왕이 세운 최대의 사찰로, 조선시대까지 명맥을 유지했기 때문에 다양한 불교 석조물이 많이 조성되었다. 이 석등 이후에 만들어지는 한국의 석등은 대부분 이 석등의 영향을 받았다.	
59	제석사지 석등 옥개석	백제 무왕이 창건한 제석사에서 석등 옥개석屋蓋石이 발견되었는데, 팔각형 옥개석 윗면의 두툼한 연꽃무늬가 백제 기와의 연꽃무늬와 같은 것으로 보아, 제석사 창건 혹은 중창 때인 7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 무왕이 세운 제석사에서 석등 옥개석이 발견되었습니다. 팔각형 옥개석 윗면의 두툼한 연꽃무늬가 백제 기와의 연꽃무늬와 같은 것으로 보아, 제석사 창건 혹은 중창 때인 7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석등 옥개석이다. 백제 무왕이 세운 제석사에서 발견되었다. 팔각형 옥개석 윗면의 두툼한 연꽃무늬가 백제 기와의 연꽃무늬와 같은 것으로 보아, 제석사를 세울 때 혹은 보수할 때인 7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60	무성리 석불입상	정읍 무성리에서 출토된 석불은 다른 부처와 달리 손에 꽃을 쥐고 있는데, 이 꽃은 용화龍華라고 부르는 꽃으로, 미륵불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미륵불은 미래에 올 부처로, 석가모니불이 열반에 든 뒤 56억 7천만년 후에 출현하여 세 번의 설법으로 모든 중생을 교화한다고 전한다.	정읍 무성리에서 출토된 석불은 다른 부처와 달리 손에 꽃을 쥐고 있습니다. 이 꽃을 용화(龍華)라고 부르는데, 미륵불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미륵불은 미래에 올 부처로 석가모니불이 열반에 든 뒤 56억 7천만년 후에 출현하여 세 번의 설법으로 모든 중생을 교화한다고 전해집니다.	이 석불은 정읍 무성리에서 출토되었다. 다른 부처와 달리 손에 꽃을 쥐고 있다. 이 꽃을 용화라고 부르는데 미륵불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미륵불은 미래에 올 부처로 석가모니불이 열반에 든 뒤 56억 7천만년 후에 출현하여 세 번의 설법으로 모든 중생을 교화한다고 전한다.	
61	돌탑과 숫대	옛 마을 뒷산에는 수호신을 모신 산신당 山神堂 또는 성황당城隍堂이 있었고, 마을 입구에는 장승[벽수], 숫대[짐대], 돌탑, 신목新木 등으로 이루어진 성스러운 공간이 있었다. 돌탑은 무주군 설치면 대평마을 입구의 조선시대 돌탑을 참고로 만든 것이고, 숫대는 부안군 서외리의 숫대를 본 떠 만든 것이다.	옛 마을 뒷산에는 산신당 또는 성황당이 있었고, 마을 입구에는 장승<벽수>, 숫대<짐대>, 돌탑, 신목 등으로 이루어진 성스러운 공간이 있었습니다. 돌탑은 무주군 설치면 대평마을 입구의 조선시대 돌탑을 참고로 만든 것이고, 숫대는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의 숫대(중요민속자료 제18호)를 본 떠 만든 것입니다.	이 돌탑은 무주군 대평마을 입구의 조선시대 돌탑을 참고해서 만든 것이다. 숫대는 부안군 서외리의 숫대를 본 떠 만든 것이다. 옛 마을 뒷산에는 산신당 또는 성황당이 있었고, 마을 입구에는 장승<벽수>, 숫대<짐대>, 돌탑, 신목 등으로 이루어진 성스러운 공간이 있었다.	 

(5) 국립제주박물관(60편)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	갈색곰뼈	제주시 애월읍 빌레못동굴에서 발견된 갈색곰뼈입니다. 동굴에서는 대륙사슴, 큰노루 등 추운 기후에 살았던 동물뼈들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 동물뼈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10만~4만년 전, 빙하기가 되어 제주가 육지와 연결되었을 때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 애월읍 빌레못동굴에서 발견된 갈색곰뼈입니다. 동굴에서는 대륙사슴, 큰노루 등 추운 기후에 살았던 동물의 뼈들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 동물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10만~4만년 전, 빙하기의 얼어붙은 바다를 건너 제주도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갈색 곰의 뼈이다. 제주 애월읍 빌레못 동굴에서 발견하였다. 이것이 발견된 동굴에는 대륙사슴, 큰노루 등 추운 날씨에 살았던 동물의 뼈들도 있었다. 이 동물들은 약 10만~4만년 전 빙하기 때, 얼어붙은 바다를 건너온 것으로 추정된다.	
2	찍개	조면암 자갈의 한쪽 가장자리를 떼어내어 만든 외날 찍개입니다. 찍개는 동물을 해체하거나 뼈를 부술 때 또는 나무를 다듬을 때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제주에서는 구석기시대의 석기제작전통을 지닌 뎀석기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만5천~1만5천년 전, 가장 추운 빙하기 때 만들어진 토층에서 발견되고 있어 당시에 제주에 구석기문화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돌의 한쪽 가장자리를 떼어내어 만든 외날찍개입니다. 찍개는 동물의 뼈를 부수거나 동물을 해체할 때 또는 나무를 다듬을 때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제주에서는 구석기시대 고유의 뎀석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만5천~1만5천년 전 가장 추운 빙하기 때 만들어진 토층에서 발견되고 있어 그 시기에 제주에 구석기 문화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돌의 바깥쪽을 떼어내어 만든 돌이다. 이것은 동물의 뼈를 부수거나 동물을 잘라낼 때 그리고 나무를 다듬을 때 사용한다. 약 2만5천~1만5천년 전 가장 추운 빙하기 때 흙이 겹겹이 쌓인 토층이 만들어졌으며 그곳에서 발견되었다. 그 시기에 제주에 구석기 문화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3	생수케유적의 석기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제주도 최초로 구석기시대 바위그늘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유적에서는 굽개, 밀개, 톱니날 석기, 돌날, 돌날몸돌 등 후기구석기 전통의 석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석기들의 사용 흔적을 분석한 결과, 생수케 사람들은 사냥과 식물 등을 채취하며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 서귀동의 생수케 바위그늘 유적은 제주도에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입니다. 유적에서는 굽개, 밀개, 톱니날 석기, 돌날, 돌날몸돌 등 구석기 후기의 석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석기들을 통해 생수케 사람들은 사냥과 채집 생활을 하며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구석기 유적이 최초로 발견된 곳이 서귀포시 서귀동 생수케 바위그늘 유적이다. 유적에서는 구석기 후기의 다양한 석기들이 발견되었다. 그곳에서 발견된 석기들을 통해 사냥과 채집 생활을 하며 살았음을 알 수 있다.	